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23일(음력 10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553 호

친환경 장묘법 '수목장' 관심 급증

사찰이 장례문화 선도

경내 임야 효율적 활용 기대 … 복지부 · 산림청 법제화 추진

일본 최초로 수목장(일명 수림장)을 도입한 상운사 주지 치사카 겐보 스님의 '사찰 수목장의 운영 현황과 전망' 주제 강연이 열린 11월 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강연은 '죽음'이란 인기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최근 차세대 장묘법으로 각광받는 수목장에 대한 관심으로 빈 좌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매장하는 장례법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목장이 묘지 매장으로 인한 토지잠식과 호화 봉안당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이른바 '묘지대란'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장을 실시할 경우 산림보호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어 수목장이 몇 년안에 장묘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화장 전통을 가진 불교계는 이미 수목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와 금산 일불사 등은 사찰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고양 흥국사 등 사찰들도 기존 사찰림에 수목장림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강동구 교수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임야를 보유한 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 검토하는 사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국대도 학교 소유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수목장 실시 계획을 가진 사찰들을 위해 사업 타당성 등 검토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산골운동단체들도 수목장 캠페인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치러졌던 수목장에 대한 제도화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장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수목장 등 자연산골시설을 '자연장 시설'로 규정해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수목장에 대한 관리주체를 재단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사찰 주변 산지를 수목장으로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공익용 산지를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고 사찰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우현제 계장은 "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함께 지방치단체들도 수목장림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김포 서산시 등도 대규모 수목장 조성한다는 계획을 최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산지보전협회,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수목장포럼 등은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수목장을 알리고 있다.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서울보건대 장례지도학과 등도 한국현실에 맞는 수목장법을 개발하고 있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수목장 운동은 불교계가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찰 소유림을 적극 활용해 불교계가 묘지와 환경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영천 은해사는 올 봄부터 경내에 수림장을 운영해 신도들과 타사찰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11월 17일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불국사를 방문, 주지 종상 스님과 대웅전과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범종각에서 타종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 · 미 정상 부부 불국사서 탑돌이 · 타종 함께 해

노무현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내외는 11월 17일 오후 2시 불국사를 방문했다. 두 정상 내외가 자하문에 들어서자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영접하며 석가탑과 다보탑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사찰을 안내했다. 석가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다라니경)이 나왔다고 소개하자, 부시 대통령은 감탄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대웅전에서는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대웅전 내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나란히 다보탑을 도는 탑돌이도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내외는 범종각(성덕대왕신종 복제품)으로 이동해 종상 스님과 함께 세 차례 기념 타종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호주 대만 등 8개국 정상 부인들은 18일 오전 부산 범어사를 찾아 영산재를 관람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태고총림 방장에 혜초 스님

30일 선암사서 추대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다.

태고종은 11월 30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4일 제4회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7세 종정에 추대된 혜초 스님은 10월 25일부터 태고종림 선암사 종정원에 주석해왔다.

혜초 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 출생으로 45년 양택 화상을 은사로 진주 청곡사에서 득도, 53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 및 해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에서 수학했으며, 61년 법륜사에서 덕암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과 제17대 총무원장 ,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천안제일 아나율
호진 스님 | 11월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그림 · 조태호

일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정우 · 원학 스님 등 '승적 정정'

10월 26일 조계종 종무회의… 징계 확정까지 유효

1998년 조계종 사태 관련 멸빈 징계자인 원학(前 총무원 문화부장) 정우(구룡사 주지) 현소(前 도피안사 주지) 성문(前 봉은사 주지) 스님의 승적이 '정정'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6일 조계종 총무부장 자승 스님은 "98년 징계자 문제는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무부에서 '승적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고 스님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10월 26일 종무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네 스님에 대한 징계 확정 판결 시까지 승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다.

이와 관련 31대 집행부에서도 2003년 11월 승적을 정정하고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재심사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헌 개정 없이 문제를 처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의 반발에 따라 유보했다.

한편 종무회의 결정에 앞서 총무원장 선거 당시 지관 정련 양 후보측에서 징계자 '사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목숨 걸고 마음자리 찾자"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결제

불기 2549년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6일 전국 100여개 선원은 일제히 결제법요식을 봉행하고 3개월간의 결제에 들어갔다. 결제대중들은 15일 저녁부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16일 오전 방장스님 등에게 결제법어를 청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한철 동안 표현된 언어 이전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목숨걸고 참으로 간절하게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등도 각각 법어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 · 9면 남동우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연등에서는 신개념을 적용한 최첨단의
공법으로 법당에 연등을 설치 시공하고 있습니다



▼ 연등 설치 중 (2천등 규모)
▲ 연등 설치 전
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 대법당

연등을 밑에서 전체 조립, 승강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올립니다.

공단등

황금등

팔각접등


종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 덕 연 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공의·화합으로 종단중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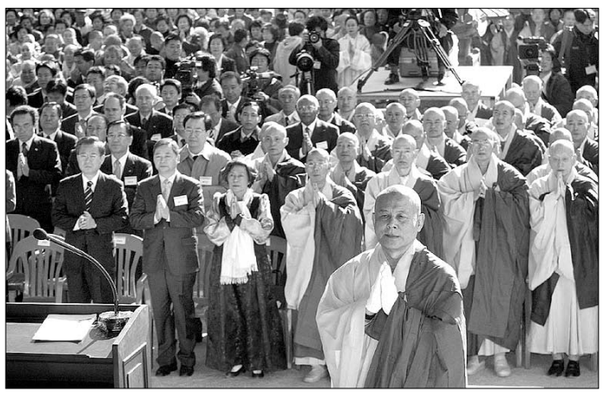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법회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이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 앞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취임법회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원명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안으로 부쟁(不諍)의 덕을 넓혀 모든 대립을 원융통합해 화해를 이끌어 내야하며 밖으로 구세의 덕을 넓혀 사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원로회의 부의장 지혜 스님은 前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 원적 후 종단 안정과 총무원장 선거 원만 회향 공로로 前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종도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자 승가 본연의 모습인 공의에 의한 종단운영을 통해 대중화합을 반드시 실현해 종단 중흥을 이룩해 갈 것"을 약속했다.



취임법회에서 지관 스님(맨 앞)이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서 통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했다.

특히 취임법회 3일 전 입적한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이 대독해 눈길을 끌었다.

박태화 위원장은 "나라의 통일과 불교발전을 위한 총무원장스님의 행업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총무원장 취임식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취임법회에 이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은 제막식, 기록물전시 관람 및 시설순방 순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자승 스님 동선 스님 정만 스님 탁연 스님 지원 스님 도진 스님 심경 스님

총무 자승 기획 동선 재무 정만 스님 등

조계종 새 집행부 구성

조계종 총무원 제32대 첫 집행부 인선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새 총무부장에 자승, 기획실장에 동선, 재무부장에 정만, 문화부장에 탁연, 사회부장에 지원, 호법부장 서리에 도진, 사서실장에 심경 스님을 11월 16일과 17일 각각 임명했다.

또 총무국장에 정범, 기획국장에 성묵, 감사국장에 선문, 재무국장에 효웅, 사회국장에 혜용, 호법국장에 경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성효, 호법부 상임감찰에 탄공·현종, 호법과장에 지묵 스님을 임명했다.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봉사하는 정신과 사부대중을 받드는 자세로 종무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WFB 와나미티 회장 지관 스님 예방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와나미티 회장이 1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와나미티 회장은 또 같은 날 진각종 총인원과 진선여중고를 방문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가치·행동기준 반듯해야 '발전'



상·하위법 모순, 세부규정 미비 등 많아

농지법·자연공원법 개정 등 현안도 수두룩

"종단 법령은 종도들의 가치기준과 행동기준이며, 종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계율을 보완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법령집〉 머리말 첫 번째 단락이다. 〈법령집〉에 따르면 '종헌'은 종도의 종지·종통에 입각한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종단 내 최고규범이자 근본규범으로서 종단 내 최고법이다.

'종법'과 '종령'은 종헌에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법이다. 따라서 32대 총무원 집행부가 종무처리의 원칙과 기준인 '종헌' '종법' '종령'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종단이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다.

'다툼소지' 빌미 주어선 안돼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은 상충되거나 규정이 미비한 조항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고 법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종헌 1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하지만 조계종은 현재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무원법 17조에 근거한 것이다. 즉 상위법인 종헌과 하위법인 종법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다.

또 종헌 52조에 따르면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각 1인을 둔다.

그러나 총무원법 7조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현 체제에 맞게 종헌 52조 '문화사회부장'을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고쳐야 한다.

호계원법도 손질할 부분이 있다. 호계원법 2조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호계원은 호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 호계원은 위원 2/3이상 참석으로 심리를 열고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징계조차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관계법령 개정도 시급

국가관계 법령 개정 추진도 32대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이다. 대표적 국가법령은 '농지법'.

현행 농지법으로는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은 농지를 소유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농지를 종교용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전통사찰 경내지 경우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불가피한 불사를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은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신·증·개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지관리법'도 개정해 전통사찰의 산지전용 및 전용부담금 적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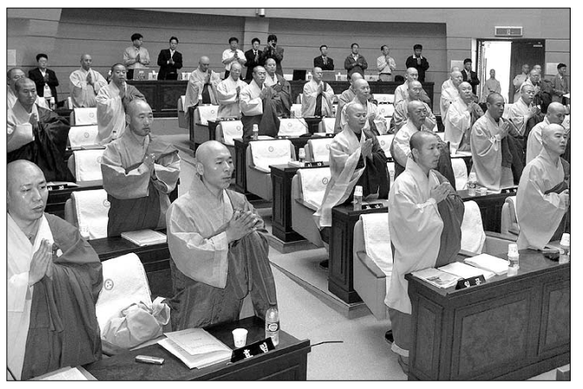
교육원 포교원 위상 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현재 예산 편성권은 교육원과 포교원에 있지만 총무원 기획실의 조정을 거쳐 종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원 포교원 모두 현 시스템에서 이러한 과정은 인정하지만, 보다 많은 재정적 자율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승려 기본교육 틀과 제도 확립·강화가 필요하다. 승가 기본 정신인 '공동체 정신'이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에서 기본교육을 강화해야만 종단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적 토대가 바로 '상설 행자 교육원 설립'.

연간 운영비만 20~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설 행자 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포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선 '신도법' '포교법'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 종헌종법 미비에는 중앙종회의 책임이 크다. 사진은 중앙종회 개원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해관계 얽혀 상정도 못해

총무원 관련 법령 중 제·개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이다. 현재 종단 사찰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설사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가 구성돼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법인관리법' 신설도 시급하다. 종헌 9조 3항에 따르면 조계종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했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조계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법리적 논란 및 종단재산 유실 가능성이 있다.

종단 안정 및 수행풍토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승려노후복지.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종헌에 승려노후복지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종법에 승려노후복지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교육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신도조직의 모법(母法)인 '신도법' 개정과 관련법인 '사찰운영위원회법'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등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또 교구활성화를 위한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교구자치법' 제·개정도 필요하다. 남동우 기자

신(新)개념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 원광디지털대학교

당신의나이+4년= 새로운 미래

인생의 재설계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The Economist 2002년 6월호 표지 글)

전통깊은 차향(茶香)세상을 향기롭게 바꾼다
차(茶)문화경영학과

21c 차문화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최초 4년제 학과
• 중국절강수인대학 등 차관련 학교 및 단체와 활발한 교류활동
• 차관련업체(제다,찻집,차도구전문점등)와 산학협력을 통한 체험교육 강화
• 전국 50여개 다례원과 연계 교육 실시
• 전통차(茶)예절지도사,선명상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21c e-세상에 부는 디지털 한복바람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최초, 세계최초 인터넷 교육으로 新 한복인을 키운다.
• 인터넷수업, 실습센터 보충수업을 통한 Multi-Way 교육시스템
• 한국복식,미학,공예학 분야등을 균형있게 학습
• 지역별 학과협력실습센터
- 김혜순 한복 / 하늘물빛 / 월간한복 / 민속한복학원 / 다모 한복 / 윤정 한복 / 웨딩한복사랑 / 최경희 패션 전문 교육원 등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전통공연예술의 연희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통공연예술학과

전통공연예술 전반을 손쉽고 깊이 있게 공부하며 4년제 대학교 학위 취득 가능
• 전통타악, 전통무용, 전통성악 등 전공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인교육
• 전국 30여개 교육센터와 연계한 삼박자교육시스템
• 타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교과과목 이수가능
• 사물놀이 지도사, 전통생활문화지도사 자격증 등 취득 가능

특전
-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요가·명상학과

공무원행정학부
경찰학과
공무원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신설)

문화예술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경영학부
얼굴경영학과(신설)
부동산경영학과

게임학부
게임학과

□ 원서접수기간 : 2005년 12월 1일(목) ~ 2005년 12월 15일(목)
• 기간내 접수하시면 입학금 (200,000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원서접수 전형료(30,000원)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입학상담 : 080-285-2854 / 1588-2854
□ 홈페이지 : www.wdu.ac.kr
□ 지원자격, 세부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상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검색 를 쳐보세요

파키스탄 고아돕기 나섰다

천태종, 1가정 1고아 결연…지진구호 3만불 전달

천태종이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의 고아들을 돕는 '1가정 1고아 돕기 결연운동'을 펼친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11월 15일 서울 관문사에서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고 파키스탄 고아 후원계획을 발표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불교와 이슬람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 종교간 이해와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1가정 1고아돕기 결연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1가정1고아돕기 운동은 전 종도들이 참여하는 종단 차원의 국제구호 불사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결연고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0달러씩 1년에 120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결연을 맺은 불자들이 인터넷으로 결연아이의 성장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천태종은 대지진으로 최소 8만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 국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종도들이 한달간 모금한 3만불을 파키스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주한 파키스탄 임티아즈 아메드 대사대리에게 전달했다.

주한 파키스탄 임티아즈 아메드 대사대리는 "상상치 못했던 지진의 참상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파키스탄에서 시름하고 있는 분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천태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파키스탄 이슬람 이맘(성직자)과 천태종 부원장 춘광 스님이 공동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와 이슬람식 축원 및 기도와 '세계평화와 종교간 평화를 위한 발원문'을 함께 낭독했으며, 파키스탄 고고학자 압둘 레만 박사의 '간다라 유적 발굴의 의의와 전망' 주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부원장 춘광, 사회부장 무원, 교육부장 용암 스님과 주한 파키스탄 임티아즈 아메드 대리대사, 파키스탄 간다라예술문화협회 자이디 사이드 울 하산 회장, 파키스탄 노동자 100명과,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곽성문 의원(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후원문의 (02)2198-507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임티아즈 아메드 파키스탄 대사대리에게 지진피해민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원들은 11월14일 서울 봉은사에서 직접 인경을 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사찰체험 평생 못잊을 추억"

국제적십자사 회원 30명 봉은사 템플라이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각국 적십자 회원들이 11월 14일 강남 봉은사를 찾아 한국사찰 체험 행사를 가졌다.

핀란드, 스위스 등 15개국 30여 회원들은 '평화 생명 행복'을 주제로 봉은사 사찰안내, 육법공양 등을 관람한데 이어 참선, 인경, 염주 만들기, 다도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탈리아적십자사 대표로 참석한 안토니오 마라스(M. Antonio Marras · 45)씨는 "불교사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톨릭 교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참선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한국 전통사찰에서의 체험은 평생 못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고속철 계룡산 관통 반대' 확산

공주시민연대 출범

계룡산 훼손이 불가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불교계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공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룡산 시민연대'(상임대표 지성, 이하 공주시민연대)는 11월 12일 신원사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계룡산 보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공주시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민족의 영산 계룡산을 포기한 불공정하고도 불투명한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노선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 지성 스님(신원사 주지)은 "최근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고속철 건설을 언급하면서 예정보다 빨리 고속철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이웃종교와도 연대해 계룡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창립된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도 11월 18일 현재 2만 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유철주 기자

'중앙신도회'→'전국신도회'로

명칭 개정 추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신도회'로의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김의정 회장을 비롯한 중앙신도회장단은 11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계종 전국신도회'로의 명칭 개정과 중앙신도회관 마련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의정 회장은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개정하는 안을 종회에 제출해 놓았고, 20여개가 넘는 신행 · 포교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도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공간에만 입주해있는 중앙신도회관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철주 기자

"남북 서로 인정하고 용서를"

법륜 스님, 평화방안 제안

"평화체제를 딛고 통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60년간 적대적 체제경쟁에서 빚어진 분단의 아픔을 민족화해로 치료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11월 15일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법륜 스님은 기조 제안을 통해 "상호 인정과 이해만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법륜 스님은 "남북이 서로를 용서하는 민족화해선언을 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법 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철주 기자

"내원암 소송도 각하해야"

수원지법 친일파 토지반환소송 각하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가 11월 15일 이모씨(을사오적중의 한 사람인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내원암 소송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제기한 내원암 토지반환소송은 12월 중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판사는 이모씨가 "조부가 일제로부터 받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3 · 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헌법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법체계가 충돌, 위헌적 법률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이 판사는 또 "헌법 이념에 따라 국회는 친일청산과 관련법을 제정했어야 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법체계 충돌을 지적하기 위해 봉선사와 내원암이 지난 8월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신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도 "국회에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며 "내원암 소송에서도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11월 30일 내원암 현지를 직접 둘러보고 12월 9일 재판을 속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립 대학생 100명 총 1억원 장학금 전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총무원장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00여명의 종립대학 불교학 전공자들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1학기 학점을 평점 4.0이상 받은 동국대학교 서울불교대학 60명과 경주 불교문화대학 40명에게 지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큰 나무를 길러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진각종, 교구별 연합합창단 공연 풍성

진각종 교구별 연합 합창단의 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

대구교구 연합 금강합창단(단장 명선각)은 11월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정기발표회를 겸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울산 정토사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금강합창단원들과 화음을 맞추게 되며, 조계종 서연 스님이 찬조 출연해 플룻 연주와 함께 음성공양으로 아름다운 법음을 들려주게 된다.

대전교구 연합 심인합창단(단장 일상주)도 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 겸 정기연주회를 12월 1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정기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찬불가 15곡을 정갈하게 들려주며, 진각종 서울청년회 노래동아리 J&B소울, 찬불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봉종씨, 서원대학교 가야금연주단 등이 특별 출연한다.

서울교구 연합 진각합창단(단장 대성지)은 12월 15일 밀각심인당에서 법음을 들려준다.

정기연주회에서는 삼귀명, 오대서원가 등 의식곡을 새롭게 편곡해 색다른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교구 연합 유가합창단(단장 유심관)은 12월 12일 노블리아호텔에서 개최하는 '회향의 밤'에 출연해 찬불가를 선보인다.

김원우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2006 신 · 편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06학년도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한방건강학과, 요가 · 명상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등.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약물재활복지학과와 얼굴경영학과를 신설했다.

모든 수업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수능 · 내신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로 선발이 진행된다. 12월 1~15일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1544-2854

강유신 기자

인터넷포교 시스템 구축 포교사단 '내 마음의 법당'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이욱용)은 11월 13일 영천 은해사에서 가졌던 '포교사단 지도자 연수'를 통해 인터넷 포교시스템 '내 마음의 법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내 마음의 법당'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문자메세지, 이메일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초 공양 서비스를 이용해 친지들의 기원을 올릴 수 있다. 또 사찰 전용 커뮤니티와 스님 전용 블로그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12월부터 포교사단의 단보를 인터넷으로도 발행, 생동감 있고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포교사단은 내년 △사이버포교에 대한 인식확대 △정보화교육과 컨설팅 △불교지식정보건전화사업 등 미디어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수강회원 모집

겨울학기 | 제53기 | 12월 1일 개강

불교문화센터 강의실 전면 개보수하여 새롭게 open 하였습니다.

서화강좌

서예(書藝)/A
신덕선: 서예가/미협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매주 화요일 10:00~14:00
7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서예(書藝)/B
정복순: 서예가/국전대상작가
매주 화요일 14:30~18:00 70,000원(3개월)

한글서예
임인선: 서예가
매주 토요일 10:00~13:00 70,000원(3개월)

민화(民畵)그리기/ 초급, 중급
이영자: 민화가
초급: 매주 목요일 13:30~15:00
중급: 매주 목요일 10:00~12:30
60,000원(3개월)/ 25명 정원제, 선착순

유 화
장동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서양화(누드)
장동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4:00~17:00 90,000원
(3개월)/모델료 별도

사군자 / 문인화
최형주: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80,000원(3개월)

인물화(공필화)
이강 : 서울대 미술대학 박사
매주 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건강강좌

요 가
박선경: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10:30~12:00
120,000원(3개월) / 30명 정원제, 선착순 접수

요 가(저녁반)
홍선정: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월 · 수 · 목요일(주 3일 수업) 19:00~20:30
120,000원(3개월) / 정원제, 선착순 접수

요 가(새벽반)
문숙: 한국요가연수원
매주 화요일 19:00~20:30
매주 목요일 08:00~08:50
80,000원(3개월) / 정원제, 선착순 접수

수지침
최윤순: 오륜포교원 침술원 원장
매주 목요일 14:30~16:00
50,000원(3개월) / 재료비 별도

불교미술강좌

단청(초급, 연구)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단청부분 4명 합격)
· 정송희: 단청 강사
· 연구: 매주 금요일 10:00~12:00
· 초급: 매주 금요일 12:10~14:10
각 70,000원(3개월)

불화(佛畵)그리기
김익홍: 불화가
매주 화요일 14:00~16:00 70,000원(3개월)

사 경
김경호: 전통 사경 연구가
매주 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불교교리강좌

불자의 신행생활 (아함경을 중심으로)
성열 스님: 강남포교원 원장/ 불교방송 신행상담실 진행
매주 목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붓다의 최초 호흡법
이선향: 서울 위빠사나선원 지도법사
매주 화요일 11:00~13:00 60,000원(3개월)

능화 스님의 불교무용
능화 스님: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가호 / 범패 · 작법무 예능 보유자
초급 : 매주 목요일 13:00~15:00 중급 : 매주 목요일 15:00~17:00 100,000원(3개월)

무료강의

원각경
자명 스님: 서울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매주 수요일 11:00~12:30

불교의 중심사상
윤원철 교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매주 목요일 13:00~14:30

기초 불교 교리강좌
신진욱 법사 매주 금요일 11:00~12:00

신행도량으로 새롭게 단장한 多寶院 법회 안내

일상기도법회
새벽 예불 / 매일 오전 5시 30분
사시 불공 / 매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기도 / 매일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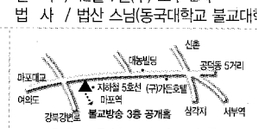
관음재일 기도법회
11월 25일(금/음력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12월 25일(일/음력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 기도법회
12월 2일(금/음력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12월 31일(토/음력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49재 · 천도재 · 기제사 등

다보법회
일 시 / 11월 23일(수) 오후 2시
법 사 / 청아 스님(자광사 주지/오하이오 주립대 박사)
일 시 / 12월 7일(수) 오후 2시
법 사 / 법산 스님(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법당 / 공개홀 多寶院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문의전화 : (02)703-0108 팩스 : (02)3273-1618
www.dabo.or.kr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외환은행 : 189-22-01147-4 예 금 주 : (재)대한불교진흥원

전통교양강좌

한국무용
최윤희: 무용가
매주 월요일 13:30~15:00 50,000원(3개월)

생활꽃꽂이와 꽃장식
보명스님: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불교전통꽃꽂이
보명스님: 연화꽃꽂이 회장
매주 수요일 13:00~14:30 60,000원(3개월)
재료비 별도

노래부르기교실
조성희: 문화센터 노래부르기 강사
매주 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남성도 수강 환영

생활역학강좌
이태권: 동제개운학회 이사/역학연구가

초급반	10:00~11:30	역학의 구성 / 기초	각70,000원 (3개월)
중급반	12:00~13:30	육친활용 /12운성법	
고급반	13:30~15:00	神殺論, 길신, 흉신	
연구반	15:00~16:30	용신정법 및 격국활용	

매주목요일 / 25명 신착순마감

기문둔갑 / 1, 2
신정균: 기문둔갑연구가
1 : 매주 금요일 10:00~12:00
2 : 매주 금요일 13:00~15:00
각 80,000원(3개월)

인상학
이은실: 인상학 연구가
매주 월요일 10:30~12:00 70,000원(3개월)

생활풍수
최도곤: 건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매주 월요일 13:30~15:00 60,000원(3개월)

어학강좌

도약하는 영어회화
진우기: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수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다시 시작하는 영어회화
진우기: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수요일 12:00~13:30
60,000원(3개월)

유아 어린이 강좌

엄마와 함께 그림, 만들기(4~5세)
유아 그림, 만들기 (6~7세)/2회 수업
유아 토요미술 (5~7세)/2회 수업
초등미술(1~2학년)
초등미술 (3~6학년)
유아구연동화교실
어린이구연동화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유아과학교실
어린이과학교실/1학년
어린이과학교실/2, 3학년
고학력 고급과학/4~6학년
독서와 글쓰기/1. 2. 3학년
독서와 논술/4. 5. 6학년
바이올린/초급, 중급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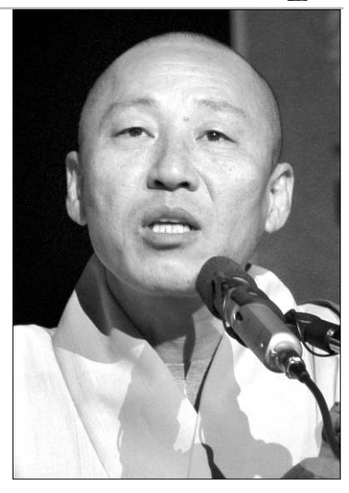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7강 : 돌아보며 어울리는 삶-밀행제일 라훌라

강사 : 재연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1.16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견과 바른 사유가 매일 매일 하는 출가

자녀교육땐 '말도 좋고 뜻도 좋게' 표현해야



재연 스님은 매일매일 출가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라훌라 존자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처님 십대제자를 어떤 분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엮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료들이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나게 될 라훌라(Rāhula) 존자에 관한 기록이나 경전은 상당히 많습니다. 라훌라 존자에게 설해졌거나 이름이 언급된 경전 수만 12개에 이릅니다. 대승경전으로는 <유마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는 밀행(密行) 제일로 불리었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Anguttara Nikāya)라는 <증지부 아함> 첫 부분에 "내 제자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데 으뜸인 라훌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훌라 존자가 밀행 제일로 불리게 된 연유로 "공부하기 좋아하는데 으뜸인 라훌라"라는 부처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라훌라 존자의 출가 배경이나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훌라 존자가 태어난 날은 부처님이 출가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서에는 '라훌라' 라는 말은 '속박' '무엇인가를 묶어둔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훌라라는 말은 힌두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힌두 신들은 죽음을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들이 까일라스라는 히말라야 산으로 바다를 휘저어서 불사약을 얻습니다.

불사약을 얻자 어느 신이 약병을 들고 달아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밝은 달이 떴습니다. 껌껌한 곳에서 약을 먹던 신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라후' 입니다. 라후는 더 이상 약을 먹을 수가 없었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라후는 쫓겨나면서 달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일식, 월식이 그때의 라후가 달을 갈아먹으며 복수를 하는 것이라 합니다.

힌두의 신들이 보기에 라후는 고약한 놈이자 방해자였습니다.

청년 싯달타가 자기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구, 방해자가 생겼군' 이라고 했던 혼잣말이 아이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싯달타가 출가하여 수행 끝에 완전한 해탈의 길을 보고 열반을 증득했습니다. 그 후 고향을 찾아옵니다. 라훌라가 출생한 후 6년간 고행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라훌라 나이 일곱 살 되던 해였습니다.

부처님이 아버지 정반왕의 초청으로 왕궁에서 공양을 받게 됩니다. 일곱 살 먹은 라훌라가 공양이 끝나고 돌아가는 부처님을 따라가며 청합니다.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재물은 없다. 다만 열반과 해탈을 성취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내가 가진 그 유산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사미가 탄생합니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에게 맡깁니다.

경전에 보면 사미승 라훌라는 짓궂은 장난으로 수행자들을 골탕 먹이거나 사람들을 속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무라지 못하고 난처해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린 사미 라훌라를 만나면 혼을 내거나 달래곤 했습니다.

<중부 니까야> '망고동산에서 라훌라에게 주신 가르침' 은 라훌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전환점이 됩니다.

하루는 부처님이 망고 동산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라훌라 존자가 발 닦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발을 닦는 부처님께 예를 올린 라훌라 존자가 한 쪽에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릇에 남은 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발 닦은 물처럼 하찮은 것이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그리고는 그 물을 버리며 "이처럼 버려지는 것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이어 부처님이 물그릇을 엎어놓으며

"이렇게 엎어진 것이 바로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다시 부처님이 물그릇을 바로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텅 비어 공허한 것이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행자의 삶이다. 이것은 마치 긴 상아에 커다란 몸집으로 전쟁터에 나온 코끼리와 같다. 그 코끼리는 온몸으로 싸움을 하면서도 코는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그러나 그 코끼리가 코를 쓰게 되면 조련사는 '이 코끼리가 이제 목숨을 버렸구나, 드디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라훌라여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가 하지 못할 악행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장난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요즘말로 '중노릇 잘못하고 있다' 는 엄한 꾸지람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때부터 라훌라 존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정진하게 됩니다. 그후 라훌라 존자는 아침마다 모래를 한줌 쥐고

"제가 오늘 움켜쥔 모래수 만큼 우리 스승님들로부터 고귀한 가르침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원하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평소 라훌라 존자와 같이 공부하기를 권해봅니다.

밀행은 '남몰래 열심히 하다' 는 뜻이지만 '주도면밀하게 정교하게' 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장난꾸러기 라훌라가 후에 공부가 되어 밀행제일로 불렸던 연유는 드러내지 않고 남 몰래 차근차근 엄밀하게 정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라훌라 존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나한전에 모셔진 16나한 가운데 11번째 나한이 바로 라훌라 존자입니다.

경전에서 라훌라 존자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테라가타 장노게에 라훌라 존자의 게송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갖춘 까닭에 내 이름 축복 받은 라훌라 / 붓다의 아들로 법 보는 눈(法眼)을 얻었네

번뇌 모두 씻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 세 가지 지혜(三明)로 불사(不死)를 보니 공양 받을 만한 아라한이라

쾌락에 눈멀고 갈망의 그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 망태기에 든 물고기처럼 해태(懈怠)라는 이름의 친척들에 묶였네

나 저 쾌락을 내려놓고 마라(Māra)의 사슬을 벗었어라 / 갈망의 뿌리 뽑고 불꽃 사그라들어 서늘하여라.

여기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석가족의 왕위계승권을 가진 싯달타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올바른 지혜, 또 그런 것을 통해 스스로 증득한 경지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부처님 아들을 뜻합니다.

세가지 지혜는 자신의 전생에 관한 지혜, 중생들의 죽음과 내생에 관한 지혜, 업의 소멸에 관한 지혜를 말합니다. 법안이란 세상을 제대로 올바르게 보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아는 불교적 세계관을 증득했음을 말합니다. 이로써 두 가지를 갖춘 아라한이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라훌라 존자에게 "출가의 공덕은 그야말로 무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내려놓은 것인데 어떻게 공덕과 이득을 이야기 합니까?" 고 묻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나 라훌라 존자의 출가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매일 매일의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고, 이웃과 나 자신을 보는지,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보는 일, 그것과 합당하게 사유하는 일이 곧 매일 매일하는 출가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채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는 방하착(放下着)으로 '내려놓는 것' 입니다. '이 생각 한번 내려놓아 볼까?' 이것이 출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나 현재의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아둥바둥 해야 될 일인가? 정말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서 정말 해야 된다면 올바르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매일 매일 출가하는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문 : 부처님은 아들이자 제자인 라훌라 존자를 엄히 꾸짖어 가르쳤다고 하였는데 세속에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답 : 경전에서는 교육에 대해 두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꾸지람과 칭찬입니다. 시기적으로 초기경전을 보면 비교적 꼬집고 지적하는 쪽이 강합니다. 후기 대승경전 쪽으로 가면 칭찬하고 북돋워 주는 것이 보입니다. 꼭 대승경전과 초기경전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이와 풀어나가는 이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꽉 차있다면 표현 방법이 과격하더라도 이해하지만 서로 비틀어져 있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늘 '말도 좋고 뜻도 좋게' 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가슴도 따뜻해야 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방식이 보다 더 정교하고 따뜻한 자비로 채워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되겠지요. 자녀나 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따뜻한 자비심으로 대하세요.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www.songgwangsa.org

금강산림대법회

모 연 문

거룩한 삼보 전에 귀의하옵고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는 제방에서 수행정진하시는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산림대법회' 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봉행되는 '금강산림대법회'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초청법문이 펼쳐집니다. 대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우리 재가불자들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향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유주무주 선망부모의 영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불자님들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번쩍이는 반야의 공지(空智)를 체득하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금강산림대법회' 에 이웃과 함께 수희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감로의 법과를 증득하시길 바라옵니다. 나무금강반야바라밀

불기 2549년 10월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 조 합장

● 입재 : 2005년 12월 2일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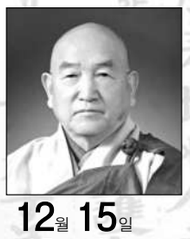
● 회향 : 2006년 1월 19일 오전 11시



12월 2일 보성큰스님 (송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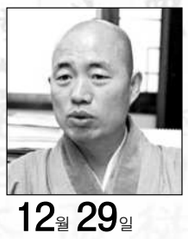
12월 8일 수불스님 (안국선원 주지)



12월 15일 법흥스님 (송광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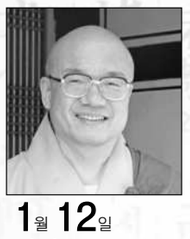
12월 23일 현묵스님 (송광사 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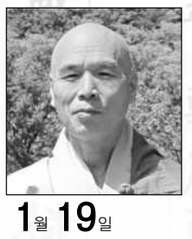
12월 29일 성관스님 (수원포교당 주지)



1월 5일 지현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1월 12일 지광스님 (능인선원 주지)



1월 19일 통광스님 (칠불사 주지)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8 / 원주실 061)755-5301

안목있는 납자라면 가시덤불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백장 선사께서 결제대중들에게 일렀습니다.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서 빨리 한마디 하거라."
그 때 위산영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장 선사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대에게 말해주기를 꺼리는 것은 아니나,
뒷날 우리 법손들을 다 죽일까봐 걱정된다."
그러자 오봉상관(五峰常觀)이 말했습니다.
"선사께서도 입을 다무십시오."
백장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대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 때 운암담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겠으니 화상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 선사가 다시 "목구멍과 입술을 닫고서 빨리 한 마디 하라"고 하니
운암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제십니까?"
백장 선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법손들은 다 죽었구나."



이 결제법문을 산승도 설함 없이 설했고 따라서 결제대중은 들음 없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종사가 납자를 지도하는 것은 못과 쐐기를 뽑아주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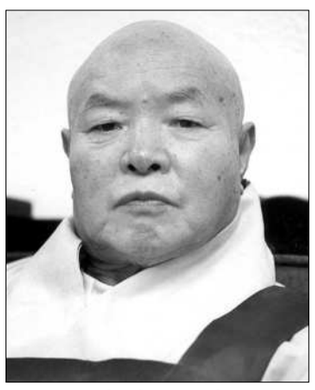
하지만 그 납자가 안목이 없으면 못과 쐐기를 뽑아주고 있는데도 못과 쐐기를 뽑아주는 것조차 모르고서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면서 또 다른 못과 쐐기를 뽑아주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문 선사는 이렇게 대갈일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평지에서 죽은 놈들이 수도 없다. 가시덤불을 지나갈 수 있는 놈이라야 제대로 된 놈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눈가죽이 제대로 뚫려있는 납자라야 가시덤불이라는 격외(格外)의 언구 속에서도 그 낙처(落處)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판한(擔板漢) 즉 외골수들은 말이라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제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안목이 있는 납자라면 칼을 두 손으로 움켜진 채 휘두름을 당하더라도 칼끝도 상하지 않게 하고 자기 손도 다치지 않는 법입니다.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걸려서도 그것조차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 누에고치처럼 가는 실에 뒤엉키게 되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살에 달라붙고 뼈에 달라붙어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주막도 없는 것처럼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결제대중은 그 답을 참으로 알고자 합니까?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있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동안거 한철 동안 입술과 목구멍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된 언어이전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목숨 걸고 참으로 간절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허공에 눈길 두면 알음알이 일으킨다

법은 가고 옴이 없고 움직이고 바뀜이 없다. 온갖 법이 다 한 곳에 또렷또렷한 형상이 있을 것이요, 온갖 법이 날 때에 비고비어 항상 적적하니라.

주장일타(柱杖一打)

(중략)

오늘 이 자리의 대중들은 일러보라,

납자(納子)의 생사(生死)와, 저 허공이 생(生)하고 멸(滅)함이 어떠한가!

양구(良久) 하신 후 납자(納子)의 생사(生死)는 그렇거니와, 허공은 제 자리를 여의지 않고 항상 조용하나 찾으려면 끝끝내 볼 수 없는데, 어찌 허공에 눈을 붙이게 하는가! 허공에다 눈길을 돌리면 지견(知見)과 알음알이를 일으키니라.

대중들이여! 옛도 없고 지금도 없는 묘한 본체는, 청정하고 공적(空寂)해서 온 세계가 모두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사라쌍수 아래서 특별히 두발을 보이셨고, 달마조사는 웅이산 마루에 외짝신만 남기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로써 반 토막의 뼈는 모두 흩어져도, 묘한 본체는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알겠는가!

주장일타(柱杖一打)(하략)

道 떨칠 이 그대니 최상승 관문 뚫어라

이 몸의 얻은 불법 알고 싶다면
법신이 있는 곳 따로 없나니
만물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고
그 모두가 우리 집 재물이로다
도를 떨쳐 빛낼 이 오직 그대이니
최상승의 관문을 바로 뚫으라
간파하라 간파하라 나는 누군가
전삼삼 후삼삼이로다

<벽암록(碧巖錄)>에 이르기를, 무착(無着)이 오대산에 갔을 때 일이다, 길을 잃어 곤경에 빠졌는데 마침 절이 눈에 띄어 거기서 잤다. 이 절은 문수보살이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나, 무착은 알 턱이 없었다. 이튿날 문수보살이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남방에서 옵니다."

"그래 그 곳 불법은 어떻습니까?"

"말법비구들이라 계율을 잘 안 지킵니다."

"스님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요?"

"절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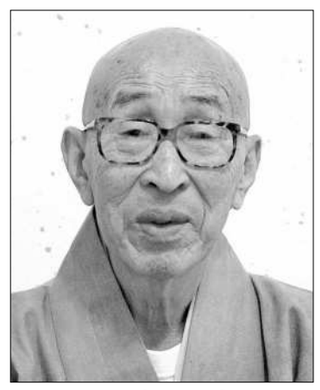
이번에는 무착이 묻는다.

"이곳의 불교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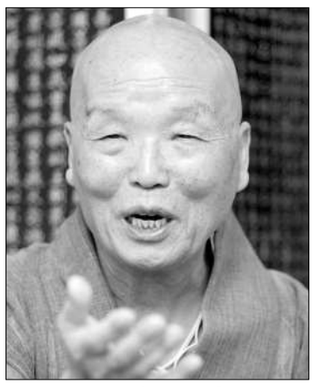
"범성(凡聖)이 동거하고 용사(龍蛇)가 뒤섞였지요."

"수효는 얼마나 되나요?"

"전삼삼(前三三) 후삼삼(後三三)!"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내년에도 새 가지 돋아 바람에 흔들리리라

(상략)

가을바람은 시절을 보내고 찬 서리 빛이 새 계절을 맞이하니,

옛 부처의 면목이 때를 따라 나타나고

조사의 가풍이 간 곳마다 언제나 새롭도다.

뜰 앞의 몇 그루 황국은 천하의 만추를 누설하고,

고개 위의 계수나무 차가운 그림자에 둥근달의 기백이 가득하도다.

운문 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묻기를 "나무가 마르고 잎이 다 떨어진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본체가 가을바람에 드러난다" 하였다.

대중들이여!

걸어갈 때에 앞뒤로 팔을 흔드는 것은 무방하지만,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라.

만약 눈앞에 잎새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간 곳마다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킬 것이요. 홀연히 찬 기러기 울음 한마디라도 듣게 된다면 모두가 캄캄한 귀신 굴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알겠는가.

내년에도 새 가지가 다시 돋아나
봄바람에 쉬지 않고 흔들리리라.

수행자는 요요적적 이치 터득해야 합니다

(상략) 시비(是非)와 흑백(黑白)을 논하고 자타를 구분하여 사물에 집착하는 분별심을 내는 것이 중생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이 환영임을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무애자재한 성품을 기르는 것 이것이 참부처의 경지입니다.(중략)

수행자는 의단(疑團)을 타파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요요적적(寥寥寂寂)의 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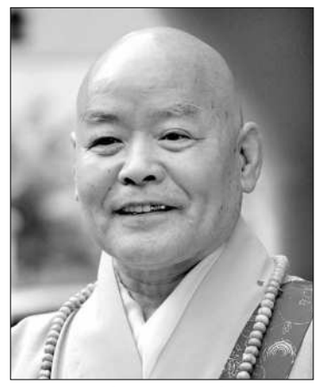
춘하추동 온냉한서(春夏秋冬 溫冷寒暑)가 그대로 진리요. 생로병사 희로애락(生老病死 喜怒哀樂)이 본래의 면목입니다.

(중략)

태고총림은 멀리는 개산조 도선국사가 계시고, 가까이에는 침굉 · 경운 · 선곡 같은 대선지식이 계셔서 해동의 선풍을 드날린 자랑스러운 육조의 고사입니다.

구자무불성, 정전백수자, 목마상김제(狗子無佛性, 庭前柏樹子, 木馬上金梯)등의 화두는 깨달은 이의 경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도장에서 이번 결제기간동안 역대조사스님의 번득이는 선지와 화두를 참구하여 일대사인연을 통철하는 본분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하략)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각 총림 을유년 동안거 결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제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음선원 불교 합창제

공심 공체 둘아닌 노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하는 한마음"
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회향하고자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한자리하시어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 후 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광주불교방송 · 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 시 간 : 2005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광주 5 · 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상무지구 KBS 건너편)



△ 지구환경문제를 주제로한 어린이 합창단 음악극 '반디의 여행'이 공연됩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062)373-8801~3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단법인 '동련'으로 도약

"불교교육연구소 발족해 어린이 포교 전문성 높일 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11월 11일 사단법인 '동련'이라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날로 침체돼가는 어린이 포교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포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 온지 3년만이다.

이로써 사단법인 동련은 지도자 양성과 교육을 전담해온 대한불교교사대학과 대불어를 부설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다. 특히 불교교육연구소를 발족시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심리, 미술 치료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 20여명을 연구원으로 모집, 불교교육연구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사단법인 동련은 대불어 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그동안 꾸준히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쏟아온 스님들로 이사 구성을 마쳤고 119명의 회원이 등록된 상태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1만원 구좌 후원회원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정의 안정이 곧 사업의 질적 향상과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원회 활성화로 재정확보

역사탐방·국제교류 등 추진

대불어의 사단법인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 포교 현실을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운영 중인 여러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포교의 파급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동련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외에도 불교관련 역사탐방, 국제 교류사업, 불교 포교를 위한 전문지도자 교육 및 양성, 불교현대화를 위한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 불교문화창달을 위한 연구 및 출판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또 각종 문화사업과 전국지도자연수회, 전국구연동화대회, 우수지도자 포상 등으로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내년을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원년으로 선포하는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를 기획중이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사단법인 설립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린이 포교에 열정적으로 임해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사단법인화는 미래불교의 빛이 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다진 것이니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포교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관세음보살 32응신도 현상모사 복원

영암군 · 도갑사, 국제학술대회 개최…10여 논문 발표



김범수 교수(사진 왼쪽)가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에게 현상모사 복원된 응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불교문화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현상모사 복원됐다.

범해문화재연구소(소장 김범수)는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모사복원하고 지난 11월 11일 전남영암문화원에서 일반에 첫 공개했다. (본지 551호 보도)

이날 김범수 소장은 "제작당시의 기법을 이용해 원형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현상모사복원은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확보하는 새로운 방안이다"고 말했다.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조선 인종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왕실에서 제작해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했으나 전란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일본 교토의 정토종 지은원(知恩院)에 소장돼 있다.

영암군과 도갑사의 노력으로 모사복원된 불화는 지난 3월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해 지은원 현지에서 색조견표를 만드는 등 8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새로 복원된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광주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용)는 32응신도 모사복원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에 나타난 산수화 양식', 김승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우메야마 히데유키(梅山秀幸) 일본 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교수의 '저주물(咀呪物)로 본 관세음보살32응신도' 등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글 · 사진/영암=이준엽 기자

"음성공양 통해 힘과 용기를"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불우청소년돕기 합창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합창제가 11월 27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합창제 모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제5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교합창제-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를 오는 11월 27일(일) 오후 3시 광주 5 · 18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합창제에는 혼성 합창단(단장 박순례)과 어린이 합창단(지도교사 이선안)이 출연해 '선법가(禪法歌)'와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음악극 '반디의 여행' 등을 공연한다.

혜월 스님은 "음성공양을 통해 평소 소외되고 외로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연으로 생긴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97년부터 4회에 걸쳐 소년소녀 가장 231명에게 5585만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062)373-8801

이준엽 기자

무등산 사찰들 생명나눔 실천

광주 무등산에 자리한 증심사(주지 진화)와 문빈정사(주지 석장), 무등예술봉사단이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헌혈증서를 화순전남대병원 환우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11월9일 생명나눔 이사 진화 스님과 임직원들은 성금 500만원과 헌혈증서 500매, 휠체어 1대를 강형근 원장에게 전달하고 투병중인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062)234-6602

이준엽 기자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 개원



11월 12일 열린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 개원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가 포항시 계원리 바닷가에 불자들을 위한 수련장을 마련하고 11월 12일 개원식을 거행했다.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은 불국사를 찾는 불자뿐 아니라 전국 모든 불자들이 수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은 지난 4월 포항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지 5000평, 건평 500평 규모의 2층 총6개 학급을 수용했던 폐교를 임대해 마련한 것. 계원분교수련원은 2층 3개 학급을 하나로 묶어 약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련장과 1층에 최신설비의 사워실을 갖추고 있다. (054)746-9912

배지선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술대회

석정학술상 수상자 발표도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범하)는 11월 11~12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석정학술상 첫 수상자를 발표 시상했다.

인간문화재 제48호 불모인 석정 스님, 통도사박물관장이자 불교미술사학회 학회장인 범하 스님을 비롯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범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학자들의 열린 사고가 돋보이는 학회에서 석정학술상까지 선정함으로써 불교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석정학술상 수장자로는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와 신용철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학예사가 선정됐으며 이 두 사람의 '의식집을 통해 본 오종법음집고찰'과 '밀양영안사지 승탑연구'가 공동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88년도부터 <한국의 불화> 편찬과 관련 사진작업에 꾸준히 동참해온 송천 스님이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11월 13일 여래선원에 농아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이 마련됐다.

여래선원, 농아위한 법당 마련

첫째 셋째 주 수화법회 진행

부산 여래선원(주지 도원)은 11월 13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농아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개원법회를 가진 여래선원은 해운대 썬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농아불자회 지도법사인 도원 스님이 주지를 맡았다. 주지 도원 스님은 "오늘 여래선원 개원은 그동안 법회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농아불자회가 '법회 공간 마련'이라는 숙원을 이룬 것"이라고 기뻐했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과 일반 불자, 농아 불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혜총 스님은 "내가 가진것들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래선원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 10시 농아불자들을 위한 수화법회를 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일반인 대상 수화 교실도 연다. (051)9393-114 천미희 기자

선각종, 재소자 독경대회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1월 3일 목포교도소 강당에서 제1회 목포교도소 수용자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600여명의 수용자가 지켜본 가운데 열린 이날 독경대회에는 12명의 수용자가 출연해 <반야심경><천수경> 등의 경전을 독송했다.

독경대회에 앞서 정암 스님은 법어에서 "업장은 참회로 소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독송하며 참회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암 스님은 독경대회 참가자와 수용자들에게 식용품을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교도소 법당을 새롭게 꾸미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대구불교계 노인복지 앞장

대구불교계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앞장서면서 고령사회 지역 노인복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이사장 경희)은 11월 15일 대구 수성구 상동에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인 화성전문요양원(원장 명범)을 개원했다. 일광욕실, 물리치료실 등의 최신설비를 갖춘 화성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75명을 모실 예정이다.

또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복지재단(이사장 박원곤)은 11월 12일 무료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을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남구 봉덕동 영남불교대학 옆 공사현장에서 열었다.

무료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은 대지 1139평에 건평 2,620평 지하2층, 지상 4층의 대규모로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리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 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EPA Est. Reg. No. 065975-TN-001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model:XL-15

model:Fresh Air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청정 동해, 불심도 맑아라

강원 강릉 · 동해 · 삼척

강릉, 연령별 신도회 활동 활발
동해, 기복불교 탈피 신행 활기
출 · 재가 망라 삼척사암련 창립


강릉 등명락가사 신도들이 10월 말 성지순례차 해인사를 참배하고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강원 영동지역의 대표적 포교도량의 하나인 등명락사가는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 강릉 율곡 신사임당 허균 김시습을 배출한 문화의 도시 강릉. 전통문화 도시답게 강릉은 다른 종교보다 불교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사실 강릉은 불심이 그리 강한편은 아니다. 기복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고정 신도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찰로는 등명락가사가 꼽힌다. 등명락가사는 청자로 조성한 오백나한을 모신 관음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활발한 포교 · 복지활동으로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강릉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생회, 청년회 등 7개의 신도회가 활발한 신행을 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경찰서 군부대 교도소 등에 대한 후원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매달 방생법회를 열고 있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합창단을 조직, 오는 12월 불우이웃돕기를 겸한 창단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등명락가사 다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찰은 성원사다. 성원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수련대회를 여는 한편, 강릉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여개 도시에 신행단체인 '갈앙회'를 조직해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스님들을 위한 선원을 건립, 내년부터 문을 열고 수행풍토 다지기에 나선다.

또 성원사는 도심과 떨어져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에 포교당(성정사)을 두고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 · 학생회 법회와 함께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불교교양대학과 시민선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전 성정사에 성원유치원을 열고 유아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등명락가사, 법왕사와 함께 강릉의 3대 사찰로 꼽히는 보현사 역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지역포교에 일조하고 있다. 가족법회를 열고 있는 보현사는 초하루법회를 가족법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행구도회를 결성해 생활 속 신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건립중인 지장선원이 완공되면 대중선방으로 활용,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음사는 강릉불교대학과 불교유치원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고, 과거에 비해 활동이 주춤한 백운사는 청 · 장년 법회를 설치해 포교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다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강릉의 사찰 수가 80여 곳에 이르는데도, 사암련 활동을 하는 사찰은 20여 곳이 채 되지 않는 등 활동이 미약하다. 강릉불교가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 동해 동해에는 지금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기복에 치우쳐 있던 불자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신행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전통사찰인 삼화사는 동해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화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다른 사찰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을 정도다.

동해불교의 변화를 몰고 온 삼화사 불교대학은 기본 · 전문반 외에 경전연구반으로 편성돼 있다. 이 밖에도 삼화사는 신도회, 보현회(자원봉사단체), 합창단, 거사회, 학생회 등이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바라밀유치원을 운영 어린이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템플스테이를 운영, 1천여 명이 삼화사를 거쳐 갔다. 최근에는 불교문화에도 관심을 두고 각종 전시회를 여는가 하면, 올해 처음으로 수륙재를 봉행했다.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복지에도 뛰어든다.

강릉불교에는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것이 있다. 바로 각 사찰 신도들의 모임인 신도단체연합회다. 20년 역사의 신도단체연합회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사암연합회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러나 사암련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동해는 최근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종교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동해불교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결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 삼척 삼척은 전형적인 농 · 어업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농 · 어업의 하향세가 뚜렷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아무리 봐도 불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게다가 불자들의 의식수준도 낮고, 사찰들의 활동도 미약하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그런 삼척에 최근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불교를 활성화시켜보자고 사찰들이 뜻을 모아 지난 10월 사암연합회를 창립한 것이다.

삼척 사암련은 삼척대교수불자회와 신도단체연합회까지 포함된 출 · 재가를 망라한 지역불교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불교 발전에 출 · 재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암련은 어업이 지역경제기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내년 출어기 때부터 용왕대재를 여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관공서의 불자회 창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영은사가 상조회 결성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을 계획이고, 삼장사는 불교유치원으로, 천은사는 기존의 신도조직으로 지역불교 활성화를 뒷받침할 태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신도들과 격의없이 대화

법안 스님 (강릉 백운사 주지)



법안 스님은 38년간 백운사를 지키며 강릉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전을 읽으며 참회기도를 하는 자비도량참법기도를 매년 빠뜨리지 않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피아노를 치며 신도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신도들에게 신망이 높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신도들과 함께 어울리길 좋아하며, 시도 때도 없는 신도들의 상담에도 기꺼이 응한다.

지역 노인들에게 염불기도처를 만들어주고, 학생과 청년법회를 신설해 젊은층 포교에도 나서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강릉불교발전의 핵심

청우 스님 (강릉 등명락가사 주지 · 강릉사암연합회장)



청우 스님이 강릉불교의 핵심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80년 주지를 맡은 이래 14개동의 전각을 세우고 다양한 포교활동을 통해 오늘의 강릉불교를 일궈냈다. 5년째 사암련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릉경찰서에 경승실을 만들고, 강릉교도소에 법당을 설치하는 등 신행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불우이웃, 교도소, 경찰서, 군부대 등에 정기적인 후원도 하고 있다.

불사현장서 궂은일 함께 해

정암 스님 (강릉 법왕사 주지)



35년간 강릉에서 포교활동을 했다. 대웅전, 천불전, 세심선원, 반야원 등 10여개의 전각을 세우고 오늘의 법왕사를 일궈냈다. 일꾼들과 함께 직접 불사현장에 동참했을 정도로 법왕사 곳곳엔 정암 스님의 손때가 묻어 있다.

정암 스님은 10여년 넘게 강릉사암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일했다.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강릉불교를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다.

신행문화 바꾸기 새바람

학명 스님 (강릉 보현사 주지)



3년 전 보현사 주지로 부임, 신행문화 바꾸기에 나서는 등 강릉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학명 스님은 신도들이 기복에서 벗어나 불교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

강릉경찰서 경승과 강릉교도소 교화위원을 맡아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후원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보현사가 위치한 성산면의 단체장 모임인 '명성회' 회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모범적인 지역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출소자 포교 15년 헌신

동화 스님 (동해 감추사 주지)



원주 원경사 주지 시절 출소자에게 직장을 얻어주고 합동결혼식도 해주는 등 15년 간 출소자 포교로 유명했던 동화 스님. 2002년 감추사로 온 이후 학생 · 청년 수련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명 등명 자립복지회'를 설립하고 강릉 등명해수욕장에 불교회관을 세워 지역 포교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불교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여름철에 수련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라오스 세안사와 자매결연

주경 스님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포교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확고하다. 강릉에 온 지 10년 만에 성원사를 강릉불교의 대표적인 포교사찰로 가꿨다. 시내에도 포교당을 설치, 유치원과 불교교양대학을 열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포교에 대한 신념 못지않게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의 세안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불교 알리기에도 나섰다.



국방부, 사법연수원, 사관학교 등지에서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는 등 한 달에 평균 7~8차례 외부 초청 법문을 할 정도로 바쁘다.

가족법회 운영…정법 전파

법장 스님 (삼척 감로사 주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법장 스님은 감로사 주지를 맡은 5년 동안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왔다. 그 결과 신도들은 정법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불교를 제대로 배우려는 젊은 신도들도 늘었다. 거사림회를 만들고 가족법회도 만들어 생활불교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근 경로당과 불우학생을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절 바로 아래에 무료 독거노인시설을 짓고, 어린이와 학생법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 · 교육 · 복지 도량 일궈

원명 스님 (동해 삼화사 주지 · 동해사암연합회장)



5년 만에 삼화사를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강원 최고의 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시내에 불교유치원을 설립하고, 분란을 겪던 신도회를 하나로 묶고, 템플스테이 등 각종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삼화사를 종합도량으로 발돋움시키면서 동해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원명 스님은 교육을 통해 기복에 치우친 신도들에게 올바른 불교를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명무실한 사암련 재건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삼척 대표 사찰로 발돋움

행담 스님 (삼척 영은사 주지)



일주문을 세우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전각을 보수하는 등 초라했던 영은사를 주지 부임 후 4년 만에 삼척의 대표사찰로 발돋움시켰다.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활동으로 삼척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삼척불교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0월 창립된 사암연합회를 발족시킨 주역으로, 사암련 기획실장을 맡아 삼척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02년 봄 영은사 바로 인근 산불 당시, 소방관도 포기한 영은사를 화마에서 구해낸 일화는 삼척에서 유명하다.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사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율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법 듣고 몰록 깨치니 일체중생 본래부처더라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6조 혜능 :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남화선사 광효사 국은사 대감사



남화선사 육조전에 모셔져 있는 6조 혜능 스님의 등신불. 시신에 옻칠하고 향을 발라 전신이 새까맣다. 스님의 육신불을 대하니 '육신보살, 인간부처, 중생이 곧 부처'라는, 6조스님이 살아 생전 누누히 강조한 가르침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듯 했다.



6조스님 생가터에 지어진 국은사. 6조스님은 여기서 입적했다.



인도승 지약삼장이 502년에 광효사(옛 법성사)에 심은 보리수. 6조가 이 나무 밑에서 삭발수계했다. 그옆의 탑은 혜능 스님의 삭발 머리카락을 보관하고 있는 삭발탑이다.

9월 12일, 6조혜능(六祖慧能 638~713) 스님의 30년 행화도량인 남화선사(南華禪寺)로 들어가는 길목에 낯익은 글씨가 자주 보였다. 바로 '조계(曹溪)'라는 두 글자다. 남화선사 앞 냇물 이름도 조계이고, 뒷산도 조계산이며, 남화선사 정문도 조계문이다.

순간 서울 조계사 주변에 서성거리며 서 있는 기분이다. 중국 선종 원류를 찾아 떠나온 답사길에서 우리나라로 흘러온 조계 시원(始原)을 만나는 순간이다.

'조계'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마을에 조(曹)씨들이 많이 살고, 동구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 하여 '조씨 집성촌의 시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조계마을에 건립된 남화선사에 혜능 스님이 오래 주석함으로써 스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이나 '조계사'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30년 머물며 법을 편 곳 남화사

혜능 스님이 가장 오래 머문 절이 남화선사다. 남화선사는 원래 보림사(寶林寺)라 하였고, 당대에는 흥천사(興泉寺)라고도 했다가 송나라 때부터 남화사로 불리고 있다. 남화사는 이번 순방 사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승려수도 12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원 대중도 40여 명이나 되어서 가장 감명깊었던 곳이다. 혜능 스님은 당 의봉 2년에 이 절의 주지가 되어 이후 30여 년간 법을 펴 남화사는 실질적인 육조 도량인 셈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 황금기인 당·송 시대의 사상적 지주였던 선불교의 사실상 진원지였고, 동아시아 선불교의 실질적인 중심지였다. 제일 유명한 선종조정(禪宗祖庭)으로 '영남제일 선사(禪寺)'라는 칭호가 붙은 남화선사는 한·중·일의 선승들이 평생 동안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고향같은 곳이다.

이곳에는 혜능 스님의 진신불이 모셔져있다. 원래는 대웅전 바로 뒤에 자리한 8면 5층의 전탑인 육조탑 1층에 육조진신상을 모셨는데 지금은 육조전으로 옮겨 봉안돼 있다.

육조탑을 참배하고 육조전에 오르니 앞기둥에 '조인운광남천불지(祖印雲光南天佛地)'라는 잘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서니 사진으로 많이 본 혜능 스님의 얼굴이 눈에 꽉 찼다. 진신의 얼굴은 새카맣게 옻칠된 상태였는데 화려한 좌대 위에 올려져 유리관 속에 잘 봉안돼 있었다.

스님의 진신을 대하니 온몸이 긴장하여 굳어지는 듯하더니 땀이 비오듯 하였다. 얼마 후 정색을 하고 예의를 갖추니 스님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이 용솟음쳤다. 스님의 시신을 그대로 불상처럼 모신 육신상을 대하는 짧은 순간, 가난한 나무꾼에서 5조의 법을 잇는 6조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법을 전하다 간 스님의 삶이 뇌리를 스쳐갔다.

혜능 스님은 서기 638년에 광동성(廣東省) 신주(薪州)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노(盧)씨이고 속명이 혜능(惠能)이었다. 스님이 태어난 이튿날 아침, 이름 모를 스님이 찾아와 '혜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혜(慧)라 함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 줌이요, 능(能)은 능히 불사 지음을 말함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 스님은 종적을 감추었다.

혜능 스님은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어렵게 자랐다. 천성이 어질고 착한데다 고향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다. 당시 조혼하던 풍습이 있었지만 대사는 24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땔감 나무를 팔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한 짐 지고 신주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 <금강경(金剛經)>을 읽는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고 마음에 곧 깨달음을 얻었다. 혜능은 겉으로는 나무 장사나 하던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선근(善根)이 있었다. 그 선근은 오조사를 찾아 홍인 스님을 만남으로써 뿌리깊은 거목이 되었고 뭇 중생을 먹이고도 남을 열매로 화했다.

오조사는 호북성 황매현에 있는 절로서 홍인 대사가 오랜 동안 주석하면서 동산법문(東山法門)을 펴기도 하고 열반에 든 곳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佛性)에야 어찌 남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선기 넘치는 말로 스승의 내밀한 인정을 받았던 혜능이 5조스님의 의발을 전수받아 6조가 된 도량이기도 하다.

'불성에야 어찌 남북이 있으랴'하는 이 말은 <열반경(涅槃經)>에서 말씀하신,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불교의 기본 사상인 불성평등론(佛性平等論)을 드러낸 말이다.

혜능은 후일 이와 같은 불성론을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원만구족한 자성(自性)으로 구체화시켜, 자성을 철견하면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돈오견성성(頓悟見性禪)을 꽃피우게 된다.

오조사에는 신수 스님과 혜능 스님의 게송이 붙었던 복도 벽이 조당(祖堂) 옆 요사채에 있다. 그 벽에 서니 혜능 스님의 게송이 눈앞에 있는 듯 선연히 떠오른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菩提本無樹)

밝은 거울도 그 받침이 없는 것(明鏡亦非臺)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本來無一物)

어디에 티끌이 있으랴(何處有塵埃)

혜능의 이 게송은 선종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남종선(南宗禪)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수 선사의 북종선(北宗禪)과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돈오돈수(頓悟頓修)냐, 돈오점수(頓悟漸修)냐 하는 논쟁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조사의 지위에도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선종사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5조의 법을 이어 6조가 되었지만 혜능 스님은 곧바로 법을 펴지 못한다. 혜능 스님에게 전해진 의발을 뺏기 위해 뒤를 쫓는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숨어들어 사냥꾼 무리 속에서 살며 인연이 무르익길 기다렸다.

이로부터 15년 후, 676년에 마침내 몸을 나타낸 곳이 광동성 광주에 있는, 현 광효사(光孝寺)인 법성사(法性寺)다.

혜능 스님이 법성사에 도착하니 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러자 젊은 학인들이 논쟁을 시작했다. "바람이 움직인다"는 주장과 "깃발이 움직인다"는 주장이 설왕설래했다.

이때 혜능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뿐이오"라고 하여 대중들이 감탄하였다. 이 풍번문답(風幡問答)을 한 곳이 바로 현재의 방장실 앞이라고 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풍번당이라는 정자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풍번문답을 지켜본 인종 법사는 혜능 스님을 상석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물은 뒤 오조의 법을 이었음을 알게되자, 삭발하고 스승으로 섬기는 예를 갖춘다.

정문에 들어서면 혜능 스님이 삭발한 머리카락을 보관중인 삭발탑이 단연 시선을 끈다. 8면 7층의 전탑으로 높이는 5.5m다. 당 의풍 원년(677년)에 건립하고, 송나라 때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탑 옆에는 수령이 1,500년인 보리수가 한 주 있다. 502년에 인도승(印度僧) 지약 삼장이 심은 것인데, 인도 스님이 중국에 심은 최초의 보리수다. 혜능 스님은 이 나무 밑에서 수계를 했다.

'돈오견성론' 주장 조사선 확립시켜 중국 모든 선종 사찰에 6조상 봉안

보리수 아래서 수계 의식을 마친 혜능 스님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법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오(悟)와 수(修), 정(定)과 혜(慧), 번뇌와 보리 등이 모두 자성(自性)일 뿐이라는 혁명적 사고를 일으키며 새로운 선종사의 흐름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혜능 스님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중생심(衆生心)의 관점에서 선(禪)을 바라보고 있는데 반해, 혜능 스님에 의하여 그 관점은 성심(聖心)으로 옮아가고 있다.

남종(南宗) 조사선(祖師禪)에 이르러서 전적으로 성심(聖心)의 입장에서 선(禪)을 바라보게 되는 첫 단추를 낀 셈이다. 혜능 스님 이전에는 진성(眞性)이 망상(妄想)에 덮혀 있다는 이원적(二元的) 중생심(衆生心)의 입장에서 사망귀진(捨妄歸眞)의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혜능 스님 이후 조사선 수행자들은 일심(一心)에 나타나는 일체개진(一切皆眞)이라는 불이일원적(不二一元的) 성심(聖心)의 입장에서 불오염(不汚染)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혜능 스님 이전에는 좌선수행을 통하여 사망귀진(捨妄歸眞)하여 견성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혜능 스님 이후에는 언하(言下)에 돈오(頓悟)하여 견성하고 바른 지견을 갖추어 어긋나지 말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혜능 스님은 광효사에 1년가량 머물며 학인들에게 심법(心法)을 설하고 있는데 위 자사가 그의 설법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감사로 모셔 관료들과 승려, 신도가 함께 법문을 들었다. <육조단경>은 대감사의 설법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대감사의 설법을 계기로 혜능 스님의 본격적인 행화가 36년간 펼쳐진 것이다. 대감사의 설법은 육조 대사의 법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법석(法席)이었다. 그 후 조계 남화선사로 돌아가 황폐해진 절을 중건하고 돈오의 선리(禪理)를 널리 펼치게 된다.

육조 대사는 712년, 30여 년 간의 남화사 시대를 마감한다. 광동성 신흥현 집성진 용산에 있는 생가 터에 건립한 국은사(國恩寺)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국은사는 스님의 출생 도량이면서 동시에 원적 사찰이 되었다.

국은사 입구에 도착하니 폐방에는 선종 성지(禪宗聖地)라는 네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국은사는 임제종 소속이고 상주 승려가 30명가량 생활하고 있었다.

대웅전에는 20 나한을 모시고 있었는데 중국 선종 사찰은 통상의 나한수를 바꾸고, 조사나 선사들의 상을 모시는 조사전이 대웅전보다 높은 곳에 있는 등 한국 사찰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파격을 느낄 수 있었다.

대웅전 뒤 육조전 기둥의 전불심인(傳佛心印)이라는 편액이 마음을 끌었다. 좌대에는 청대에 조성된 육조상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로는 혜능 대사의 핵심 선사상인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와 불생(不生), 불멸(不滅), 불천(不遷)을 큰 글씨로 붙여놓았다.

또 좌우면 벽에는 <육조단경>을 붓글씨로 써서 액자에 걸어 놓았다. 유물로는 스님이 사용했다는 옹기 발우와 물그릇, 당 측천무후의 성지(聖旨) 등을 진열해 놓았다. 국은사는 마치 혜능 스님의 기념관이나 박물관같은 느낌을 주었다.

스님은 713년 8월 3일, 75세로 열반에 든다. 스님은 원적에 앞서 자성이 곧 진불(眞佛)이며,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화신(化身)은 본래가 한 몸이라는 삼위일체론(三位一體論)을 골자로 임종게를 남기고 문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법문을 한다.

"오직 자신의 본심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잘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으며, 생도 사도 없으며, 가고 옴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가는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저녁 산책을 나서 뒷산 큰 바위 위에 휴식하는 것처럼 앉았다가 그대로 입적한다.

지난 2000년 1월 1일, 새로운 한 세기를 열면서 일본의 유명 언론사는 인류 역사상 세계를 움직인 100대 명저를 뽑았다. 불교계에서는 <불경(佛經)>과 <육조단경(六祖壇經)>이 선발되었다. 경(經)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책을 말하는데,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고승 대덕들이 쓴 어록(語錄)이나 저술이 무수히 많지만 '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경>뿐이다. 이 <단경>을 쓰고, 사실상 중국선불교의 종조이며, 돈오견성론(頓悟見性論)을 주장하여 조사선(祖師禪)을 확립한 분이 바로 6조 혜능 스님이다.

이러한 스님의 명성과 업적을 반증하듯 원적에 드신 지가 1,300년이 되었지만 선종 사찰 조사전에는 혜능 스님 조상이 빠짐없이 모셔져 있다. 스님이 아무리 큰 인물일지라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모셔지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다만 스님의 사상이 선양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중국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단경' 日세계 100대 명저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의 선종사찰을 순례하는 동안 남화사에서 마주한 혜능 스님의 육신상이 길잡이가 되었다. 신비감과 함께 경탄과 공경의 마음을 절로 일어나게 했던 육신상은 발심을 이끌어내는 원동력과도 같았다.

혜능 스님이 생전에 누누이 강조했던 '육신 보살, 인간 부처, 즉 중생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마치 살아 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듯 하였다. 도를 닦는 사람에게 있어 불성론과 돈오견성설은 금과옥조같은 성언(聖言)이다.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본래는 부처이다' '자기의 성품을 보아 몰록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은 특정 종교의 경지를 떠나 만고의 진리이고 시공을 초월한 대단한 법어인 것이다.

6조혜능 스님을 뵙고 떠나오는 길, 스님의 가르침이 조계의 물줄기를 따라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가길 다시금 발원했다. 그 깊고 도도한 흐름에 모든 사람들이 흠뻑 젖어 흘러가게 되기를…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6조 혜능 스님이 가장 오래 머물며 법을 편 남화선사 조계문 앞에서 기념촬영한 한국의 선원장 스님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무여 스님이다. '조계'라는 편액이 무엇보다 친근하다.

무여 스님은 1940년 경북 김천生.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망월사 등에서 오랫동안 수선 안거했으며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했다. 1987년부터 봉화 축서사에 주석하며 제방납자들을 지도하고 있고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11월16일 을유년 동안거 결제

대자암 무문관 입방하던 날

을유년 동안거 결제날인 11월16일 새벽 3시.

산사를 깨우는 도량석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계룡산 대자암(大慈庵)을 휘감아 돈다. 오늘이 무슨 날이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수행의 한 날. 입동이 지나 살얼음이 서린 수각에서 이빨이 시리도록 차디찬 물 한 모금을 삼킨다.

미명은 아직도 저산 너머에 숨어있다. 정신을 깨우려 냉수에 얼굴을 씻고 대중들과 같이하는 마지막 예불을 올리려 큰 법당에 들어섰다. 생사를 가르는 그날까지 쉼 없이 정진해 깨달음을 얻어 불타(佛陀)의 크나큰 자비(大慈)를 실천하겠노라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문 없는 문’으로 들어가다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無門關)에서 음력 시월 보름(11월 16일) 동안거 결제에 맞춰 구참수좌 25명이 3년 결사에 돌입했다.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무문관 3년 결사를 부처님께 고하는 동안거 결제법회가 시작됐다. 법회에는 결사를 시작하는 수좌들과 사중 스님 등 30여명, 그리고 신도 1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 말미에는 대자암 조실 정영 스님이 손수, 25명 수좌들이 일대사를 해결하고 3년 결사를 무사히 회향할 것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집전했다.

오후 2시, 수좌들은 시방당(十方堂)에서 결사에 들어가기 전, 방사 이용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대자암 삼매당(三昧堂)과 부여에 있는 제2무문관(옛 매화초등학교)으로 향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까지 오직 깨달음을 위해 일체 외부와 단절한 채, 새벽 3시 일어나면서부터 밤 10시 잠들때까지 쉼없이 정진한다. 정영 스님은 이튿날인 17일 오후부터 각 방사의 출입문을 밖에서 잠궜다. 스님은 3년간 수좌들 가운데 확철대오한 이가 나올때까지 ‘문 없는 문(無門關)’ 수행을 지도하고 점검해 줄 예정이다.

“반드시 생사고해 끊고 확철대오 할것”

이날 정영 스님은 수좌들에게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은 생사를 걸고 매달릴 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얻기 어렵다”며 “이번 2차 결사에 들어가는 스님들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어 온 세계에 불법을 널리 펼칠 명안종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지난 1차 결사에 이어 2차 결사에 다시 도전하는 서범 스님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생사고해를 끊고 본래면목을 확인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삼매당 3층에 입방한 비구니 석원 스님도 “부처님의 6년 고행과 달마 스님의 9년 면벽에 비하면 3년은 짧다”며 “반드시 3년 안에 깨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8세 비구부터 68세 비구니까지

대자암은 40년 전 서울 천축사에서부터 이어져 온 무문관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지난 8월 21일 정영 스님의 주관으로 결사에 들어갈 수좌 21명을 선발했었다. 그러나 선발에서 떨어진 입방 희망자들의 간절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제2무문관에 4칸의 방사를 더 마련해 25명이 입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결사 동참자들은 38세 비구부터 68세 비구니까지 평균 법랍 20년차 내외의 비구, 비구니 구참 수좌들로 대자암 삼매당에 12명, 부여 제2무문관에 13명이 입방한다. 이 가운데 8명은 2002년 시작한 제1차 3년 결사에도 참가했던 이들로, 서울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 수행을 회향한 관응 · 제선 스님의 뒤를 잇는다.

한편, 대자암은 무문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불자들의 후원 동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우체국, 310623-02-033475 문판오(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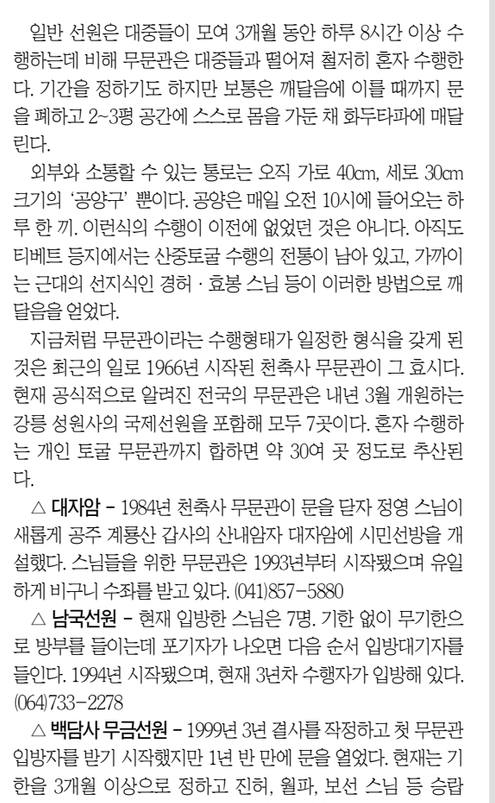
공주/글=조용수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오직 깨달음 뿐

대자암 무문관서 수좌 25명 생사 건 3년 결사 돌입
일체 외부와 단절한 채 하루 한끼식사 · 온종일 정진



2평 남짓한 무문관의 내부. 9년 면벽한 달마 스님을 앞에 모시고 오로지 정진할 뿐이다. 대자암 무문관 3년 결사에 들어간 한 수좌가 입방 첫날 정진하는 모습.



■ 전국 무문관 수행처

1966년 시작된 천축사 무문관이 효시
내년 개원할 국제선원 포함 전국 7곳

일반 선원은 대중들이 모여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수행하는데 비해 무문관은 대중들과 떨어져 철저히 혼자 수행한다. 기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문을 폐하고 2~3평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둔 채 화두타파에 매달린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공양구’ 뿐이다. 공양은 매일 오전 10시에 들어오는 하루 한 끼. 이런식의 수행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직도 티베트 등지에서는 산중토굴 수행의 전통이 남아 있고, 가까이는 근대의 선지식인 경허 · 효봉 스님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처럼 무문관이라는 수행형태가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1966년 시작된 천축사 무문관이 그 효시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국의 무문관은 내년 3월 개원하는 강릉 성원사의 국제선원을 포함해 모두 7곳이다. 혼자 수행하는 개인 토굴 무문관까지 합하면 약 3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 **대자암** – 1984년 천축사 무문관이 문을 닫자 정영 스님이 새롭게 공주 계룡산 갑사의 산내암자 대자암에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스님들을 위한 무문관은 1993년부터 시작됐으며 유일하게 비구니 수좌를 받고 있다. (041)857-5880

△ **남국선원** – 현재 입방한 스님은 7명. 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방부를 들이는데 포기자가 나오면 다음 순서 입방대기자를 들인다. 1994년 시작됐으며, 현재 3년차 수행자가 입방해 있다. (064)733-2278

△ **백담사 무금선원** – 1999년 3년 결사를 작정하고 첫 무문관 입방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문을 열었다. 현재는 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진허, 월파, 보선 스님 등 승랍 20~30년 이상 구참들만 받고 있다. 정원은 10명. (033)462-6969

△ **백련사 만덕선원** – 2002년 4월 방부를 받기 시작했고 욕실과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동안거 결제일 맞춰 3개월 단기로 안거 때만 운영하며 정원은 5명이다. 산철기간에는 재가자들도 7일정도의 무문관 정진이 가능하다. (061)432-0837

△ **천성산 조계암** – 2004년 5월에 10명의 스님이 첫 방부를 들였다. 현재는 8명의 수좌가 정진중이다. 하안거 3개월, 동안거 5개월 동안만 운영한다. (055)365-1578

△ **감포 영남불교대학 무일선원** – 올해 10월 개원한 영남불교대학 감포도량 무일선원도 16일부터 수좌 12명, 재가자 6명이 무문관 수행을 시작했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 무일선원은 법랍 10~20년차 비구 수좌들을 중심으로 입방했다. 재가자를 위해서도 동안거 3개월 단기 무문관을 진행하고 있다. (054)771-835

밀납양초(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야광 용초
뒷줄 6개 = 10-1 70中 × 35 cm
앞줄 5개 = 10-2 56中 × 26.5 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관세청 불자 '전국 연합조직' 띄우고 활기

11월 2일 대전 광수사서, 초대 회장에 피재기씨
체계적인 신행활동 · 공불련 활성화에 큰 기대

지난달 성윤갑 관세청장을 제4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회장으로 추대한 관세청 불자들이 전국 규모의 연합회를 결성, 공불련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 주목된다.

관세청 불자들은 11월 12일 대전 광수사에서 관세청 본청을 비롯해 6개 본부세관 소속 전국 30개 세관의 불자모임을 하나로 묶는 관세청불자연합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그동안 본청과 본부세관, 일반세관 등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관세청 불자회는 연대의 틀을 갖추고 신행활동을 비롯해 공동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성윤갑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진옥 대전광역시청 불자회장, 천홍욱 공불련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재기 동해세관장이 연합회를 이끌어갈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피재기 관세청불자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 불자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주도해 공불련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관세청은 공불련을 한층 발전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스스로 공불련내 중추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은 '도약하는 공불련'을 만들겠다는 성윤갑 공불련 회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관세청 불자들의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천홍욱 관세청 감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한 공불련 제4기 사무국을 측면 지원토록 하는 거시적인 플랜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공불련 활성화 기획단'과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이 구성 · 작성될 경우 공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다.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불자연합회는 탄탄한 조직구성과 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다지기에 나선다. 부산과 서울 등 일부세관을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산과 서울 본부세관 외에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등 본부세관을 신행조직의 거점으로 삼고 소속 세관의 신행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조직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관세청불자연합회가 창립됨에 따라 공불련 조직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11월 12일 대전 광수사에서 열린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법회 모습.

이종익 공불련 총무담당(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은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으로 관세청 불자들이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며 "여세를 몰아 관세청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불련 신행혁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강동수
운불련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장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며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리는 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수원지역회와 함께 경기남부 운불련을 이끌고 있는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올 8월 강동수(52 · 법천) 회장이 대표가 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전국 최고'가 되겠다는 강 회장의 원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불교 통합

"그동안의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찾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불우이웃 위한 차량 지원 등 봉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은 하나의 생활권인 안양과 과천, 의왕, 군포지역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4개 도시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스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 승낙을 얻어냈다. 12월쯤이면 광역신도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그만 신행단체가 광역신도회를 결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스님들은 걱정하면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스님들이 지역불교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가슴 뿌듯합니다."

강 회장의 발로 뛰는 노고 덕분에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의 활동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 장소에서 열리던 법회도 11월부터는 지역사찰을 순회하며 열기로 했다. 지역사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펼쳐온 자비행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대상이 다양하다. 안양 매화복지관에서 병원을 찾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양시노인복지센터에도 나들이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11월 22일에는 안양 명륜보육원 아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쉴 새 없이 바쁜 요즘 강 회장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들이다.

"100대의 가입차량을 200대로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불교를 심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봉영 기자

외국인근로자 무료 종합검진

선재의료회 · 한센협회 … 90% 진료비 지원도



선재마을의료회 등은 11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11월 1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봉사가 진행됐다. 매주 일요일 봉은사에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재마을의료회가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은 100여명은 네팔,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인 등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과 안산, 김포 등의 공장에서 근무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현장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타국살이의 설움이 진하게 배어났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적사항을 좀처럼 밝히려 하지 않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빨리 진료를 받고 돌아가기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여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는 "아무리 안심시켜도 행여 단속반이 들이닥칠까 노심초사하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오래전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겪어던 아픔이 전해져 왔다"며 "우리는 왜 좀 더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지 못하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를 위해 건강검진 차량 2대가 동원됐다. 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흉부 X-선 촬영과 피부질환 검진, 혈압측정, 혈액 검사, 전염성질환 검사, 소변 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에 온 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검진이었다.

진단 결과는 한달이 지난 후 나온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무료 검진을 실시한 선재의료회와 한센복지협회, 결핵협회 등은 병이 진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의 진료비를 지원, 치료해줄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법당 개원



신청사 준공으로 청주시 주성동 100번지로 자리를 옮긴 충북지방경찰청이 경승실 및 경찰법당을 새 단장, 문을 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도공)과 불교회(회장 조성호)는 11월 12일 충북지방경찰청 우암홀에서 경찰법당 봉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과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스님(청주 보현사 조실), 최석민 충북지방경찰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 청사, 새 법당에서 한없이 자비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 어려운 사정으로 경찰을 찾는 이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충북경찰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불교회는 경찰법당을 회원은 물론 청내 불자와 일반경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록 개방하는 한편, 불교회 활성화에 진력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회원배가 위해 진력

전력인불자련 김용사서 연합법회 봉행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불자들로 구성된 전력인불자들이 연합법회를 열고 모임활성화를 위한 회원배가를 위해 진력하기로 결의했다.

전력인불자연합회(공동회장 이인규 김영만)는 11월 12일 문경 김용사에서 '2005 가을 연합법회'를 열었다(사진).

성지순례와 병행해 열린 이날 법회는 본사반야회를 비롯해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반야회, 경주지점 서광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등 8개지회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불자모임이 없는 강원지사에서 대표단이 동참해 불자회 창립을 발원해 의미를 더했다.

박봉영 기자

대원불교대학 마포 불교방송 학사이전

경 축

총동문 초청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모교를 빛내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중불교의 원력으로 불자들과 함께해 온 대원불교대학이 마포 BBS 불교방송으로 학사를 이전합니다. 금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아래와 같이 총동문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힘을 복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불교대학 운영이사회장 송석구(전 동국대 총장) 대원불교대학 학 장 허경구

■ 운영이사

권기종(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성택(고려대 교수) 황수로(일맥문화재단 이사장)
이성언(불교방송 사장) 구자선(태우주택 회장) 이영숙(코모도호텔대표)
김인숙(불교여성계발원장) 송영근(예비역 중장) 최명준(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무순]

안 내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1월 26일 (토) 오후 5시
- 장 소 :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 문 의 : 대원불교대학 교무처 02)754-1613 / 773-9171

※ 새로이 동문회 명단을 작성코자 하오니 주소 및 연락처를 학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 가까운 동문들께 연락하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대원불교대학 학사 전경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중고차 보시할분
1톤 중고트럭을 보시해주실 소중한 인연 모십니다.
보시해주실 분께 벼락맞은 대추나무 원목을 드리겠습니다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함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빽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시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재	륙	시			전
식	49재	재	식	물	충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증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 제 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 49재 의식, 천도의식
2. 다라작법 3. 사물
055)381-1199
055)383-6676

정통 中國 六壬家의 소장비본
육임학 비법전수
- 평생운, 流年運, 인간사 吉凶의 정확한 예측법
- 육임 공부 후 課, 傳 해석이 안 되시는 분
- 타 지방 거주자 통신강의 가능
매월 2,4주 목요일 무료공개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 육임학 전문 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구 성 학
단지 숫자만으로 간단하게
길흉화복을 알수 있는 구성학
(역학)을 책임지도합니다
배우기 쉽고 활용하기 쉽습니다
019-446-4755
(출장지도 가능)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티벳진품만다라
(100×100cm)
표구 되어있음
인연 되시는 분
010-7157-0679

세계결혼기관
- 국내 : 초혼, 재혼
- 국제 :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사모집 시·군
0502-555-4242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 6,500만원/대불 모실때 3,000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2회 분할가능)
010-6512-12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공양주 보살님
사찰일 할 처사님
모십니다
(월보시 각 80만원)
▷경기도 파주
010-3070-3535

사찰 女사무원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한산성 국청사)
011-212-9810

공양주, 법당
기와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전북 고창
019-280-0093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도
011-9493-0002
011-378-222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32)684-5516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235-3511

각 지역에서 활동
하실 화주보살
모십니다
(불사현장 답사환영)
010-6753-1119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사찰 운영할 비구니스님
- 시설완비, 조건최상
- 50년 전통의 사찰
051)628-5079
010-7594-5079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78-0530

조용한 암자에서
성실하고 신심있는
비구스님, 행자승,
처사님을 모십니다
041)864-9143
011-392-6885

조계종사찰에서 본종 승려로 자기수행과 사원을 돌봐줄 수행이 청정한 30~40대의 비구나 비구니스님을 구함. 그리고 불심깊고 자기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후원을 관리할 40~50대 공양주를 구함. 공양주 방 욕실 완비.
054)653-1180
경북. 소백산 내원암

다마스 같은
오래된 경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11-850-0176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011-259-59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수원근교
031)352-734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415-55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탑사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여기는 산사 조용한 작은 암자 기도도량입니다.
지난 세월 한많은 인생살이에 지친 몸을 남은 생애 보장합니다. 속히 전화하세요. 생활력 있음.
일심·진심·불심이 강하고 진정 장난이 아닌 금전 욕심없이 조용히 남은생을 부처님 모시고 사실 분
50~60세까지. 용모단정하고 마음착한 독신여자분.
011-9577-4221 (경북 성주)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자 모 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관절염·신경통·오십견·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백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흑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 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가래·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자 료 제 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2. 5
월·화반, 수·목반(주·야간반 :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 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갈고 닦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능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긍정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뤄냅시다.
◆ 날 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촬신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경북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법당 : 20평 ● 법당 : 70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부지 : 430평 ● 부지 : 125평 ● 부지 : 33000평
● 가액 : 13억 ● 가액 : 1억8천 ● 가액 : 4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강원 평창군 사찰3만평-7억
2. 정릉 토굴 33평 올수리-2억

기도스님, 부전스님, 노전스님 수행처를 찾거나, 절관리, 운영스님, 공양주보살님, 법당보살님, 화주보살님,총무직, 운전직, 천도재 49재, 점안식 신속연결해드립

※ 사찰일자리소개전문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복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 안내

● 위치 : 가평 ● 위치 : 사천
● 대지 : 100평 ● 부지 :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6평 ● 요사 : 3동 52평
● 가액 : 1억 8천 ● 가액 : 2억 4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법당, 요사채3채, 총 760평
● 창고, 방4개,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 5천만원
011-562-9873
055)883-8846

사찰(급)안내

● 위치: 충남 부여 10분거리 큰도로 근접, 뒤는산, 정원양호
● 대지 200평 2층 골조 슬라브 2층법당 40평 대웅전, 산신각 1층 40평 요사채
● 가액: 9천 5백만원 하실분만연락바람
011-9805-6747
011-736-787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풍 IC에서 10분거리,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동, 남향 (사정상 급히 안내합니다)
● 가액 : 1억 3천만원
011-679-2178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 1개, 큰방 2개, 거실, 욕실, 도시가스(잘됨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 2단 복조각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700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 부지: 100평
● 법당: 40평(목조, 포집)
● 요사채: 50평
● 산세좋음, 역사깊음
● 양도가 10억

● 위치: 경기도 (서울에서 40분)
● 대지: 120평
● 법당 20평 요사 20평
● 교통요지이며 도심사찰임
● 양도가 4억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688-3521 / 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 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1-9527-3461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1161평 중 168평-전용허가 필, 바닥기초공사 완료, 주택 25평, 창고 15평, 건축허가 배산임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7천만원
017-585-4980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절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후불순금탱화 입체 10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산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자반 자신있게 깔끔도량임 왜냐햄
● 1층상가 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시여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김해, 마산, 밀양에서 (30분 거리) 구포에서 20분 거리.
● 건물은 법당 외 다수 (차량진입 가능) 산 높고 깊은 기도처
● 평수 3만3천평 (임야, 대지, 전)
● 가액 : 절충 ※ 비구니스님 원함
011-765-2757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원 안내

● 위치: 노원구 역세권. 상계역 3분거리 최적의 위치. 주거 밀집 지역
● 2,3층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100만원/월8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가능
● 2층-스님방, 종무소
3층-방3, 거실 겸 공양간, 세면실
02)952-8131

토굴터 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명당
● 대지 : 5000평 ● 건평 : 150평 (1층 100평 2층 대웅전 33평)
● 특징: 신축불사중 노인전문 요양원, 납골당시설운영가능 관광특구예정지 대구시내전역 40분거리
● 가액: 상담후결정 (꼭 뜻있는분만 전화요망)
● 중개인 절대전화사절
010-2775-040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요사채 30평
● 구조 : 법당 30평
● 가액: 1억8천만원 (절충가능)
은행융자 3천5백만원
011-9543-022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843-2403
051)554-240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요새의 도량
● 사찰 건립 60년된 평수 1천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종각 2평, 요사방6개, 주방시설완벽
● 주차 30대 시설완비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1층 요사채 80평, 2층 대웅전 35평
대웅전앞 반지하 70평
● 개인 위패반 및 부부 위패반 980단
● 가액: 13억5천만원
답사 절충 후 가능
011-9105-7240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충주
● 건물 : 약20평
● 방3개 부엌 화장실 (현재 산신당 모셔져 있음)
● 뒤는 산 앞은 강 강변에 위치한 별장 같은 토굴
● 가액 : 9백 5십만원
010-4460-7006
017-212-649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2동
● 대지 110평, 건평 155평
● 1층 법당, 2층 주지실 공양간, 3층 주택
● 가액 : 5억 9천만원
011-9335-9110
051)751-3400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사찰안내

● 위치: 정선군 임계면
● 전체 230평, 요사채30평, 대웅전20평,산신각5평, 행랑채,차고
● 산세좋은 소슬용궁
● 가액 : 상담후 결정
033)562-7053
011-9793-705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교촌동(시내)
● 대지 : 117평 ● 법당: 인법당 18평
● 시설 : 약사여래불,신중,지장,칠성, 산신,용왕당이 좋음
● 특징: 시외터미널인접. 포교당으로 적합 방6개(공양간,스님방)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답사후가액절충가)
011-595-73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
● 요사채 50평, 법당50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중심지
● 대지 : 175평, 법당 : 30평 요사채(2층 건물)
● 특징 :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건축 양식 산과 도심이 만나는 위치
● 가액 : 3억 3천만원
016-510-3455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간 석전 4리
● 대지 : 132평
● 조용한 토굴, 방3개
● 건평 25평
● 가액 : 5,200만원
054)974-0456
018-543-0108

사찰안내

● 위치: 익산 IC에서 10분거리. 도로 포장 완비
● 법당 :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씩(2동)
● 가액 : 2억(답사후 절충)
● 단청, 기와, 시설완비
011-463-8852
043)295-8220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산외면 회곡리 백용사
● 대지: 220평, 관리임야: 3400평
● 법당 23평, 칠성각 6평, 산신각 7평, 용왕당 6평, 석굴(기도) 3평, 요사채 3동(60평), 기도요사채 방5개(25평)
● 가액: 7억(절충가능)
055)352-6802
016-422-061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사찰안내

● 위치: 정선군 임계면
● 대웅전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 전체평수 2,100평
● 물이 솟을 용궁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9793-7052
033)562-7053

사찰안내

● 위치: 양산 시내 양산 IC 바로 옆
● 건평 250평
● 1,2층 찜질방, 단식원 3층 요사채, 4층 법당
● 최고급 시설
● 가액 : 7천만원(융자 3억)
011-857-3775
018-201-297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 평수 60평
● 건물 : 임법당겸 요사채 약40평
● 가액 : 7천만원
※ 삼존불, 탱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수관음보살 (전체 리모델링) 깨끗함.
※ 법당, 방3개, 목욕탕, 화장실, 실외 소각장
051)468-5657
017-566-4504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바닷가
● 대지 : 800평,건평 : 약 200평
● 100년 역사와 전통의 도량
● 대웅전 40평, 칠성각 20평
● 요사 2층 스라브, 방 다수 종각 만 입주분 기타
※ 사찰 및 사찰부지 다량 확보
부산 연산부동산(사찰전문업소)
051)863-6661
011-560-8522(직통)

포교원안내

● 위치: 4호선 한성대역
● 평수 : 40평(복합층)
● 법당, 방3개, 욕실2, 주방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즉시법회 가능
016-351-0148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 법당30평 대웅전30평 산신당, 용왕당 등
● 부지 2천평
● 가액 : 3억
010-8900-834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 곤지암 IC에서 10분거리, 이천 용인 각 10분거리
● 대지 약 300평, 법당50평, 요사채 32평, 차고 22평
● 용도 : 불상전시관, 납골당, 교육원시설, 보살님도 가능
● 가액 : 3억5천만원 (융자 8천포함)
031)638-9653
010-8274-411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20평, 등기상 623평, 실평수 1500여평

사찰(부지)안내

● 평수 : 1천여평
● 바닷가, 수행처 적합,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가액 : 3억 5천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달밭)
● 부지 1800평, 가옥 40평
● 가액 : 9천만원
● 특징 : 영봉 일월산 자락의 명당자리에 토굴. 시내 야경과 운무가 너무좋고 일월산이 바로 보임. 넓고 잘 가꾸어진 정원, 숲속의 토굴. 현지까지 도로포장 됨. 바로입주 가능.
017-522-096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함안군
● 대지 : 140평
● 건평 : 80평 이상
● 대웅전, 방4개, 창고3, 화장실 겸 샤워실2, 간이부엌10평, 마당주차가능
● 가액 : 1억3천
※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55)583-0804
010-9939-1151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적인가

불교학硏 학술대회, 불교계 첫 공론화… '생명체 여부'에 초점


김종욱 교수


김성철 교수


곽만연 교수

찬 vs 반


허남결 교수


조성택 교수


윤영해 교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성 논쟁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불교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대표적인 불교학회 가운데 하나인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11월 12일 동국대에서 '불교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성 문제가 공론화되기는 이번이 처음.

대회는 중진 불교학자 수십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래 보기드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생명윤리 현안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정리해온 조계종 또한 관계자를 파견할 정도로 학술대회는 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불교와 과학의 관계 설정 △일관성 있는 불교교리 해석의 필요성 △불교교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불교 교리 해석의 필요성 제기

이번 대회에는 김종욱 · 허남결 동국대 교수, 곽만연 동아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김성철 · 윤영해 동국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종욱 · 김성철 · 곽만연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했고, 허남결 · 조성택 · 윤영해 교수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먼저 찬성론의 근거를 살펴보면, 김종욱 · 곽만연 교수는 수정란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교수는 "불교에서 생명체는 유정(有情)"이라고 밝히며 "유정이란 감각적 수용능력을 갖고 맹목적 삶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 즉 감수성(精)과 의지성(行)과 행위성(業)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자"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감수성 · 의지성 · 행위성 없는 수정란은 본격적인 인간이 아니다"며 "불교에서 인간의 출발선은 입태라 할 수 있으며, 입태는 착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슈화 되던 무렵부터 꾸준하게 연구의 윤리성을 불교적 견지에서 옹호해 온 곽 교수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성철 교수는 "율장에 따르면 사인(似人)을 해치는 것도 살인으로 바라이죄가 된다"며 사인의 한 형태인 수정란을 사용하는 것이 율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제조법은 수정란이 아닌 난자와 체세포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향상된 기술"로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취해 김종욱 · 곽만연 교수와 차이를 보였다.

찬 감수성 · 의지성 없는 수정란, 인간 아니다

반 잠재적 생명체로 봐야… 불살생계 강조도

반대 입장에 선 허남결 교수는 "불교윤리의 기본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계목은 불살생계"라는 데서 논의를 전개했다. 즉 "불살생계가 전제되지 않은 대승보살도의 이타행은 궤변"이라는 것.

허 교수는 "초기경전에 따르면 인간생명의 시작은 부모의 성행위, 중음신의 하강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체세포핵이식 등을 통해 이 같은 조건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살생계의 윤리적 취지와 포괄적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 자리이타행의 선도 불살생의 원칙을 초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성택 교수는 불살생이 불교가 지켜야 할 최상위의 가치라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생명이란 연속 개념이며, 수정란이 무성생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탄생할 0.00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영해 동국대 교수는 토론하면서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경우. 윤 교수는 애초 황 교수의 연구가 체세포핵치환 기술을 이용한 무성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황 교수 연구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착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생명체로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윤 교수는 "붓다는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적극 금지했다"며 "식물이 있는 곳에는 으레 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서는 대소변을 보지도 말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했다. 윤원철 교수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통해소가 아니라 인욕이다"며 고통해소가 탐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민은 배아줄기세포연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치유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불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중표 전남대 교수는 부처님의 '무기(無記)'를 예로 들며 어디서부터 생명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배아줄기세포연구로 야기될 문명발전 방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는 과학이다, 아니다

토론에서는 불교적 관점 정리를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흥미를 끌었던 것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는 조성택 교수.

조 교수는 중유(中有)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중유가 결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음심(淫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험관 아기는 절대 태어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중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불교의 생명탄생 설명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과학만 말한다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한계를 불교가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산 스님도 "태내오위설에 나타난 태아에 대한 묘사가 1960년대 들어 밝혀진 것과 매우 유사하다"며 한 교수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 교수는 "그 같은 직관적 파악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특수한 경우만 강조하다보면 정작 불교의 특징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논의 본격화…12월 3일 종단 주최 세미나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조작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누구보다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불교적 견해 정립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느니 가치중립적이라는 식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불교적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12월 3일(11월 26일에서 변경됨) 열릴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 공개세미나를 기점으로 종단의 공식 입장정리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외국 학자 대거 몰려온다

2006년 4월 22 · 23일에 합천 해인사에서 열릴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 · 이하 결집대회)에 외국인 학자가 대거 발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번 결집대회는 명실상부한 국제불교학술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또한 조직위는 북한의 학자들도 초청할 방침이어서 불교학을 매개로 한 남북 학문 교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조직위(위원장 이중표)에 따르면 11월 15일 현재 논문발표 신청자는 127명.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59명이 외국인이다.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홍콩 포함, 13명), 인도(3명), 태국(2명) 순이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발표신청자도 각 1명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74명이 참가한 지난 2회 대회의 외국인 참가자 44명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으로, 조직위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권 불교학자 팀 구성이 성사될 경우 외국인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외국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항공료와 체재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고 보면, 모든 비용을 참가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면서까지 결집대회에 많은 외국학자가 몰리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특히 외국학자 57명 가운데 44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며,

발표 신청자 127명 중 59명이 외국인
北 학자 초청 계획… 국제 위상 높아져

교수도 31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결집대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대회조직위가 북한의 불교학자를 이번 결집대회에 초청하기로 한 점. 대회조직위는 지난 4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참여단체장 및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조직위는 불교가 남북한 공통의 정신적 뿌리라는 점에서 북한 측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쪽의 학자가 방북한 적은 많아도 북한의 학자가 방한해서 학술교류를 한 적은 거의 없다.

이처럼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반해 한국 학자의 참여 신청은 부진을 면치 못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한국인 발표신청자는 68명. 이 가운데 교수는 29명에 불과하다. 현재 학계에서 활동 중인 박사 취득자가 150여 명이며, 교수만도 70여명(불교관련분야 포함)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다.

조직위는 뒤늦게 발표신청 하는 이들이 많았던 예년의 사례에 비추어 신청접수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개별학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발표를 권고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는 사찰의 강원을 방문해서 학인 스님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이중표 교수는 "불교학자와 수행자가 불교학을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집대회가 해인사에서 열리는 만큼 불교학자와 수행자가 어우러져 불교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회부터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결집대회 우수논문상'을 제정 · 수여키로 했다.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박익순 기자

※ 기사 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 70만원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40만원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 1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 50만원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둥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둥으로 회원 검색기능
- 월령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 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장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임활용서
육임래정비법 (전1권) …… 15만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 2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전1권) …… 1만5천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좌정용 전12권) …… 50만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휴대용 전12권) …… 70만원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전12권) …… 100만원
육임신수비결 (전1권) …… 15만원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 5만원

■ 육임학습도서
육임강의록 (전12권) …… 20만원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 5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 5만원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 5만원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 : 이명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임연구반 모 집
■ 장 소 : 부산 영산대학교 서면 캠퍼스
■ 모집인원 : 육임 예측신과 (00명)
■ 강 사 : 공인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산지회장, 성민경
■ 문 의 : ☎ 051)556-8387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일주문



지구촌공생회 해외구호사업장 순례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은 12월 10~17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설립한 해외구호사업장 순례를 떠난다.(02)455-9596



은해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11월 16일 대웅전과 지장전에서 삼존불 및 지장보살 개금불사 점안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전국비구니회 임원연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1월 20~21일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비구니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인천시 우수농업인상' 수상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11월 9일 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 우수농업인상'을 받았다.



이현주 목사와 공동출판기념행사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1월 22일 서울 강남 영풍문고에서 이현주 목사와 함께 <붓다, 나를 흔들다> 공동출판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저소득가정 위한 '신나라 한국인'

서울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11월 5~6일 가평 현대도예문화원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신나라 한국인' 행사를 개최했다.



AUF 총장연례회의 참석

위덕대학교 한재숙 총장은 11월 15~18일 중국 북경시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대학연합(AUF) 총장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예술의 전당서 개인전

담원 김창배 화백은 11월 22~30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필묵 예…차(茶)' 주제 개인전을 갖는다.(02)736-7445

(재)일붕선교종 4세 종정에 붕해 스님 추대



(재)일붕선교종 4세 종정에 붕해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재)일붕선교종은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4일 인천 호불사에서 종정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붕해 스님은 이날 "세계에 남아있는 서경보 스님의 발자취를 이어가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자"는 법어를 내렸다. 1932년 태어난 붕해 스님은 88년 (재)일붕선교종 2대 총무원장, 97년 (제)일붕선교종 2세 종정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11월 11일 입적

남북 불교교류 등 국제활동의 '대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을 26년간 이끌어 온 박태화 위원장(사진)이 11월 11일 입적했다. 향년 86세.

1979년부터 조불련을 이끌어 온 박태화 위원장은 '현대 북한불교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1919년 10월 15일 함경북도 길주군 덕산면에서 출생해 1935년 묘향산 보현사로 출가했다. 41년까지 강원에서 공부해 '정식' 스님이 됐으며 백운사와 보현사에서 수도 정진했다.

59~69년 조불련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 70~79년 조불련 부위원장을 역임한 박 위원장은 79년부터 조불련 위원장을 맡아 북한 불교계를 움직여 왔다.

위원장을 맡은 후 84년에는 조불련 대표단장으로 인도 원탁회의에 참가했으며, 86년부터는 조(朝)·스리랑카 불교친선협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제불교교류의 전면에 나섰다.

80년대 말부터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법타 스님 등과 다양한 교류 방안을 논의한 박 위원장은 이후 월주, 지선, 진관 스님 등과도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담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만나 남북불교교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다양한 활동 때문이었는지 북한 당국은 11월 12일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부고를 내고 "박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노선과 조국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해내외 불교도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위해 모든 정력을 바쳐 사업했다"고 추모했다.

박 위원장과 10여 차례 이상 만나 남북불교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던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 "평소 아버지처럼 대해주셨던 분"이라며 "불교번영과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이 남달랐던 박태화 위원장의 입적은 남북불교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계종과 진각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박태화 대선사는 남북불교 단합과 상호발전을 위해 큰 원력으로 평생을 일관되게 수행정진했고 중생의 이고득락을 위해 불철주야 힘썼던 우리 민족 불교의 큰 어른이었다"며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평불협은 조만간 조불련과 실무회담을 진행해 박 위원장 49재를 남북합동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화합·신행 배가 위해 뛸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새회장 신연섭 교사



"전임 회장님이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 싹을 틔우고 8년간 잘 키워 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불교교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이하 교사불자련)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제5대 교사불자련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대구 덕원중학교 신연섭 교사(사진)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교사불자련이 창립한 이후 8년 만에 처음 가진 회장선출이며, 2기 집행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신연섭 교사는 "막중한 소임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각오를 드러냈다.

신 회장은 "곳곳에 숨어 있는 교사불자들을 찾아다니며 만남을 이어가다보면, 교사불자들의 화합도 깊어지고 신행활동도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힘닿는 데까지 전국을 뛰어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신회장은 98년 교사불자련 대구지부 창립 당시부터 활동을 시작해 감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지부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경전강독법회와 주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대구교사불자회원의 증가와 활성화에 힘써왔다.

또 파라미타 대구지부 구성에도 큰 역할을 한 신 회장은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청소년 교화에도 적극적이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대불청 부산지구 새 회장에 손정현씨



"침체된 청년불교의 분위기를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소림사 청년회관에서 제 27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으로 추대된 손정현(40·사진) 회장은 조직 확장,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청년 불교운동의 새틀을 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청년 조직이 우려할 만큼 침체돼 있다"고 지적한 손회장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스님, 재가자, 청년들이 허심탄회하게 타결책을 찾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회장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대불청 재정확보를 위한 기부보험 제도를 도입해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전국불청대회를 부산에 유치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담 스님 34주기 추모재



청담 스님 열반 34주기 추모재와 청담 스님 사리탑 주변 3천 지장보살 봉안법회가 11월 14일 서울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동광 스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오늘 법회가 선망부모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은사, 석주 스님 추모기념 경로잔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11월 12일 석주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기념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석주 스님이 생전 설립 운영한 노인복지원 보문사 안양원의 어르신들과 봉은사 연화대학 어르신, 지역독거노인 등 50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울산 정토사 창건 17주년 기념 예술제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창건 17주년 기념 종합예술제가 11월 11~18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토사 창건 17주년을 기념한 설법전 준공법회 및 봉불 점안법회, 각종 전시회와 음악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날 준공법회에는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 부주지 태봉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학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과 동산반야회는 11월 12일 동산불교대학 강당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무진장 스님의 기념 법어와 우수회원 표창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김재일 법사, 붓다클럽 총재 안동일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곰두리네집 개관 5주년 기념식



의정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곰두리네집(원장 엄성봉)이 개관 5주년을 맞아 '곰두리네집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전국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심달금 회장 등과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천장지비 歷法과 元法으로 생노병사의 일체 베일을 벗기는 루진통 대법회 | 역법은 탄생과 과학문명이고 원법은 괴멸과 죽엄을 제촉하는 법이다

생노병사 근본은 태식배꼽에 있고, 대자연의 생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고, 진공묘유, 허공청정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삼시구충을 제도하며 생노병사 해탈하는 경신 도통 대 법회



天用眞人·泰日大師 作品

역대 그 누구도 괴멸과 죽엄에 대해서 언급한바 없는 천장비법을 달마조사 면벽구년 이외는 없는 것을 공개 하노라.

정신의 병, 육신의 병에 걸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인 것이다.

만병은 태식 건강 비법에 천하의 건강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태식법을 아십니까? 도통의 최고의 비밀인것이며
-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수련하여 도통하는법인 것이다.
- 치료해도 안되는 모든병, 잡신에 빙의 된 모든 병을 제도 해탈하여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경신 수행법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을유년 12월 1~2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에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법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는다.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인 것을 경신일 하늘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베일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대운받고 도통하여 업장소멸 하소서.

특히 이번 루진통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과 얼굴의 간판인 광대뼈가 나와서 고민하는 분들은 동참하시어 해탈하시고 미인 되소서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천안통경과 루진통경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을유년 하늘이 열리는 진광대도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경신수행으로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천안통과 루진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루진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이 수행법은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줄 수있고 자아완성은 물론 생노병사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자신의 운명과 수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인 경신입문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도술, 의술, 침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을유년 12월 1~2일이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정신과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세포와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여 큰 부자 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특별 생노병사 해탈법 및 태식법과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 입제 : 양력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12월 2일 금요일 (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불자 세상보기

곽 만 연
동아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황박사와 연구윤리의 '숙제'

황우석 박사는 2005년도 봄에 세계적인 업적을 발표했다. 정자가 아닌 체세포를 이식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여러 환자들의 체세포를 사용해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큰 벽인 면역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줄기세포 허브를 설치하는 등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줄기세포 연구자 중 한 명인 새튼 박사는 황 교수와 1년여 동안 호흡을 맞추며 세계줄기세포 허브 출범에 기여 했지만 돌연 황 교수가 연구에 사용한 난자 취득과정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를 선언했다. 그것도 11월 12일 워싱턴 포스트라는 자국의 미디어를 이용한 일방적 통보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원한 우정은 없는 것인지 아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복제연구의 선구자였던 새튼은 황 교수를 세계 학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던 인물로, 황교수 역시 2004년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연구업적을 발표 할 때 새튼을 공동저자로 올려 명예에 기여했다.

그런데 갑자기 결별을 선언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명분으로 내세운 난자출처문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문제라면 지난해 한국의 생명의료윤리학계에서 난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을 때 이미 결별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때문에 새튼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구의 주도권과 줄기세포 허브의 설치장소 문제 등 다른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조심해야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와 과학기사를 쓰는 기자에게는 국경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외신을 보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아쉽다.

그리고 황교수도 이번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작년부터 생명의료 윤리학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생명의료윤리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질병치료 목적의 배아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치료용 배아 복제는 언제나 복제된 배아에 대한 연구를 필연적으로 함의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인간 복제의 위험이나 인간의 난자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나아가 생명자체를 존중하는 마음까지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윤리학자와 시민 단체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다행히 이 법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인간 배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더불어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 차원의 치료용 배아복제 등의 연구문제는 그 연구의 입안과정 전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서의 확인과 연구절차를 확립하고, 연구기준에서도 공개적인 논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폭넓고 심도 있는 전 국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된 뒤 반드시 수행돼야한다.

이럴때라야만 배아연구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배아연구 문제를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우석박사도 이제 생명의료윤리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와 사회'…. 연기설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불교의 사회화'라는 것이 아직도 불교계의 커다란 화두로 던져져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불교와 사회 사이에 있는 현실적 거리가 크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번에 창립과 더불어 세미나를 여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지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거리를 메꾸어보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 새로운 시작에는 이미 이루어져 왔던 비슷한 시도들과 차별성을 갖을 수 있는 몇가지 요소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내세우면서 시작하여 불교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적당주의적 태도를 철저히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지성들이 주제선정부터 문제의 파악, 해결책의 제시까지 전문가로서의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에 거는 기대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하는 과감한 시도는 바람직하겠지만, 불교적인 측면에서, 또 각 분야의 전문영역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감수하여 점차 다듬어가겠다는 열린 자세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한번의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열기 위해서 몇배의 시간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비로서 불교계로부터도, 사회문제의 각 영역으로부터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포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불교는 이렇게 위대하며 사회문제를 이렇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외쳤던 많은 시도들이 한갓 공허한 외침으로 스러졌던 예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포럼이 헤쳐가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 포럼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불교계의 충만한 열망 또한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시대의 공통된 화두를 잘 선정하여, 집약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 나간다면, 열린 무대 위에 사명감 지닌 불자 지성들이 모여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하는' 기풍이 떨쳐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불교와 사회' 포럼의 성실한 노력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하나의 흐름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도청과 반성

악업을 저질렀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하고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악업보응경〉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상황논리'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핑계를 대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 논란'에서도 이런 모습은 다시 확인된다.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바 없다"라는 뻔한 대답에 "결백을 확신한다"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며 감옥으로 갔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당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당 시절에 행했던 '원조범죄'에 비하면 김대중 정부의 도청은 '관습범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도청은 거대 국가권력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이며 도청 결과가 어떻게 쓰였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음모"라며 한 술 더 뜬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련자들의 뻔뻔스러움이다. 거의 후안무치 수준이다. 누구하나 "권력유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청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나 정당은 없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참회하고 반성하면 자연스럽게 용서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부처님께서도 잘못을 반성하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쌀쌀한 요즘 세상이다.

■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출가, 연령 높인 만큼 교육질도 높여야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이 최근 50세로 완화됐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승단도 사회 속에 공존하는 엄연한 조직체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조직체는 질서가 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경쟁사회에 뒤지지 않고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작금에 불교가 타종교에 밀린 이유도 따지고 보면 과거 조직이 엉성하고 구성원들의 교육과 수행의 질이 저하된 탓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이 단지 30~40년 만에 세계 최대 기독교국으로 성장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소갈머리가 작아 남의 종교를 비교해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남의 떡이 먹음직스러우면 시기하지 말고 나도 만들어 먹으면 된다.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자 국회의원 숫자가 타 종교에 비해 적고, 불자 정부 고위 공직자 숫자 역시 마찬가지다.

소위 사회 엘리트 그룹들의 종교 영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출가 연령을 50세로 상향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승려 숫자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양질의 교육과 세련된 훈련을 통해 승단 조직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불교가 다시 이 땅에서 융성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재세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꿈을 실현하자(붓다뉴스)**

동국대 불교대, 변해야 산다

'현대불교' 552호에 실린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의 공청회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불교학계 내부의 기득권 지키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여실히 지켜봤다.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3개과 체제에서 학부제로 변경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은 한국불교의 동량을 키워낸 현대교육의 요람이었다.

그러나 100여년의 전통이 무색할 만큼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분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현재의 3개과 체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수행의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 문사수(聞思修)를 본뜬 가장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는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의 3단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문학의 세계적 추세와 급변하는 대학의 현실이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한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불교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 수십 명이 배출되는데도 이들이 배운 것을 어디서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옳은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대학에 이론뿐만 아니라 포교, 사회복지, 종무행정, 문화재 등 실용학문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그러나 막상 11월 11일 공청회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에 불교대학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그러한 식의 대응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불교대학 인사들에게 쏟아진 비판과 우려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교대학 교수들은 한국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학문적 성과에서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기득권에만 얽매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윤주영 (서울 광진구 중곡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佛
眞如聖地巡禮
www.sact.co.kr
02) 2076-9511~3
※해외여행 안내원 모집
(영어,중국어,일어 능통자 우대)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4인이상 월,목,일요일 항시 출발 가능(참가비용+5만원) ▪항공:인도항공 ▪차량:승용차 혹은 밴

초특가 1,990,000 9일
▸12/1, 8, 22, 29 1/5, 12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특전 : 특급 및 일급 호텔,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나란다 대학,룸비니,쿠쉬나가르,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 등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2,190,000 11일 초특가
▸12/4, 18, 25 1/1, 8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특전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룸비니,쿠쉬나가르,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죽림정사,다멕스토파,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등

전세계 할인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JAL 일본항공(JAL) CX(케세이퍼시픽)
일본/중국/동남아/미주
유럽/호주/뉴질랜드
TEL:2076-9535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출발일 ▸11/29 12/6,13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죠잔케(1)-삿포로-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후키다시약숫물,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온천호텔 4인1실 기준 (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남큐슈,가고시마,미야자키 729,000 4일
출발일 ▸12/4,11,18
*여정 : 인천-가고시마 이브스키(1)-미야자키(1)-기리시마(1)-가고시마-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특급 온천 호텔 사용, 이브스키 검은 모래 찜질, 기리시마 유황온천욕, 훼리편으로 사쿠라지마 활화산 관광, 아리무라 용암 전망대, 사무라이 마을, 괴물뱀장어 관광

中國 서안 북경 불교 문화 탐방 849,000 5일
출발일 ▸12/3,10,17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북경 영광사 및 벽운사
*여정 : 인천-북경(2)-서안(2)-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적립 OK)
*특전
- 서안 법문사 지하궁,병마용,진시황릉,화청지
- 북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 순례
-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순례
- 북경:만리장성,명13릉,천안문 광장,자금성 천안공원,이화원 등 순례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99,000 4일
출발일 ▸11/29 12/6,12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 관람,영은사,한산사,졸정원,발맛사지 체험,서호 유람,동방명주탑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일
출발일 ▸11/29 12/6,13,20,27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적립 OK)
*특전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색랍사,철봉사,포촬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백거사,얌또흐 순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불교 문화탐방 999,000 5일
출발일 ▸12/9,16,23
*여정 : 인천-씨엠립(3)-기내-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전 : 앙코르와트, 톨루오스 유적지,반띠아이스 레이 사원, 바프온 사원, 타프톰 사원, 톤레삽 호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 www.sact.co.kr / 관광사업등록 종로구청 제26002-1999-000045호
공통사항: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신부님 동행,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마일리지 적립)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팁 불포함, 〈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 〉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26일 노숙인 인권문화제

"노숙인 지원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숙인은 부랑인이 아닙니다."

11월 21일 열린 서울 노숙인인권문화제에 이어 26일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도 노숙인인권문화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한국종교사회복지연합회(회장 김광수, 이하 한종사협)가 주최하는 것으로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노숙인 문제를 다함께 생각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종사협은 이번 행사의 뮤지컬,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해 노숙인들의 고통과 실상을 알리고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02)734-8643 김강진 기자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부다피아
심영애 하동규
남세영 이창환
박미숙 서현숙
조순금 서동욱 서상원 등 185,430원

총누적금액 44,247,480원

부산 불자 하나되어 "민수야 힘내"



맑은 웃음의 민수. 아프다는 것 말고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장난꾸러기다. 민수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며 부산 대원정사 불자들이 12월4일 '새생명의 환희' 행사를 연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민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본지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 환아 민수(4)를 위해 부산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가 나섰다. 본지가 처음 민수 돕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뒤에서 묵묵히 후원의 손길을 전해온 대원정사 불자들이 민수를 위해 두 팔을 걷은 것이다.

부산 대원정사 · 대원불교대학 개원 1주년인 12월 4일,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 민수를 향한 나눔 손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행사의 이름은 '새 생명의 환희'. 대원정사는 이 행사에서 민수와 같은 소아암 환자들의 실태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새 생명의 환희'는 1부 행사인 '나누면 하나'와 2부 행사 '하나된 기쁨'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의 문을 여는 것을 타악연주로 유명한 하유 스님의 법고소리다. 장중한 법고 소리 이후에는 통도사 어린이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정법 스님의 '수화무'가 펼쳐지면서 행사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게 된다.

1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다. 바로 민수 어머니의 발원문 낭독이다. 현재 투병중인 민수를 뒷바라지 하는 민수 어머니가 모든 소아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대원정사 측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2부 '하나된 기쁨'은 대원정사 푸른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아카펠라, 스님가수 지연 스님의 공연, 가수 추가열씨의 콘서트, 대동놀이 등으로 꾸며진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민수돕기 모금함이 설치되며, 이는 행사가 끝난 즉시 개봉돼 민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대원정사 총신도회와 대원불교대학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다.

대원정사는 이미 올해 부처님오신날 '생명 등 달기'를 전개해 마련된 500만원을 민수에게 1차 치료비로 전달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본지의 민수돕기 모금에도 대원정사 신도들은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행사를 기획한 대원정사 김범준 법사는 "난치병 어린이가 나을 때까지, 끝까지 돕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며 "앞으로 민수 이후에도 꾸준히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원정사, 12월4일 모금 행사
발원문 낭독 · 콘서트 등 열기로

한편 민수는 11월 초순, 6차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암세포가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가 전했다.

민수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은 병이 나아서 병원을 떠나는데 우리 아이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민수가 계속되는 약물치료에도 잘 견디고 있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051)583-7811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항상 즐겁게 산다는 금화사 신도들. 나눔마을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기에 무료급식을 시행하면서도 즐겁다고 말한다.

나눔마을 봉사자 금화사 신도들

"무료급식 시작했어요"

서울 고덕동 시장골목에는 '나눔마을 무료급식소'가 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나눔을 실천하던 나눔마을(대표이사 각현)이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이제 급식을 시작한지 사흘째인 11월 16일. 급식 메뉴는 볶음밥에 쇠고기국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금화사 보살들이다.

사실 그동안 나눔마을을 지켜온 사람은 박왕호 이사다. 그러나 박 이사 혼자의 힘만으로 무료급식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 항상 든든하게 옆을 지켜줬던 금화사(주지 수증) 신도들이 있었기에 나눔마을 무료급식소가 탄생할 수 있었다.

금화사 신도들은 2003년부터 박 이사를 돕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싸는데 주부의 정성과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화사 보살들은 몇 해 동안 같이 해온 박왕호 이사와 허물없이 모든 살림을 공유한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살들도 박 이사도 나눔마을의 곳곳을 꼼꼼하게 챙긴다.

금화사 신도들이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화안애어(和顔愛語)'라는 그림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한 금화사 주지 수증 스님이 이들에게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라 한다. 사실 이번 무료급식을 시작하기에는 수증 스님의 그림을 판매한 수익금이 큰 보탬이 됐다.

이렇게 인연 맺은 '나눔마을'을 찾은 금화사 보살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다. 봉사자들 사이도 친자매처럼 보일 정도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이 차가 많다. 그럼에도 서로 웃으면서 즐거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신행도 봉사도 항상 같이 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웃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금화사 보살들이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소신만큼은 확고하다.

"절대로 빠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없어도' 봉사 활동은 꿋꿋이 나와야 해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이런 금화사 신도들에게 배우는 팁 한 가지. 봉사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주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봉사활동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봉사활동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난로 · 쌀 후원해 주세요

나눔마을이 무료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도 춥지 않도록 난방기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금화사 신도들은 "후원자가 좀 더 늘어나서 항상 쌀 등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식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2)429-1517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 세미나
-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

창립취지문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삶의 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 템포는 정신문화의 물줄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함으로써 각종 병폐를 낳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륜 등 세부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현대사회는 발전과 변화의 표피적인 긍정성보다 혼돈과 가치 실종의 부정적인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결함은 곧 전체적인 부실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시대 흐름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선과 악, 앞서가는 것과 뒤따르는 것, 도전과 응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왔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의 혼돈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역사는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요구와 그에 참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축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불교는 무엇인가?
이는 불자지성인들이 우리 사회와 불교계를 향해 던져야 할 가장 절절한 질문이다. 지성인들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교를 바르게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 변화를 명징하게 응시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삶도 최상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 지성인이 스스로 불교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으로 불교를 바꾸려는 원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지혜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불자 지성인들의 사명이 있다.
불교라는 위없는 가르침과 사회라는 변화무쌍한 유기체를 날카로운 지성의 잣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혜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자 지성인들은 함께 모여 사회의 변화를 응시하며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드는 일에 소홀해 왔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 지성인들이 확고한 불제자로서의 신념과 명철한 지성의 사명감으로 만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혜안을 모으는 그릇이기를 발원한다. 많은 이슈를 내세워 요란하게 떠들기 보다는 우리 시대 공통의 화두를 엄선하여 깊게 논의하고, 거대한 목표를 세워 공허한 주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틀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와 사회' 포럼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이 없으되 방만하지 않고 추구하는 이념은 포괄적이되 산만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의 이 같은 발원은 사회의 변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둘일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변화 속에서 진리를 읽어내고 진리를 원동력으로 인류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는 지성공동체의 결실을 거둬 내는 뜻 깊은 여정이 될 것이다.

불교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이평래 김광삼 김규칠 김용표 성태용 합장

● 일시 : 2005년 11월 23일 (수) 오후 2시 ~ 6시
● 장소 :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 주최 : 불교와 사회 포럼 http://forum.buddhapia.com

식 순

■ 제 1부 : 창립선언 • 개회사 • 인사말씀 • 창립 선언 • 축사
■ 제 2부 : 주제발표 및 논평 • 사회 : 한형조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 1주제 : 불교와 현대사회 • 발표 : 조성택 교수 (고려대학교) • 논평 : 김종욱 교수 (동국대학교)
제 2주제 : 불교와 정치 • 발표 : 박세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논평 : 이각범 교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제 3주제 : 불교와 경영 • 발표 : 노부호 교수 (서강대학교) • 논평 : 손기원 소장 (지혜경영연구소)
■ 제 3부 : 토론 • 진행 : 한형조 교수 • 토론자 및 방식 : 청중 전체 자유토론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교 · 불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큰 발원 아래 불교로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적 담론의 장을 마련, 대안을 제시하는 불교와 사회 포럼은 사회 각계의 불자 지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사회 포럼은 정기적인 포럼과 수시 포럼, 좌담회 혹은 각계인사 초청 토론회 등으로 활발한 토론 문화를 열어 갈 것입니다. 각계 제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원 가입 안내

■ 정회원은…
불교와 사회 포럼의 정회원은 포럼 운영의 전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포럼 및 수시 포럼의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주체적인 동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 격 불교와 사회 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모든 분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회 비 2006년부터 소정의 연회비 납부
■ 정회원 특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계간 '불교평론'을 1년간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불교평론 1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CD를 무료로 드립니다. 정회원에게는 본 포럼이 개최하는 조찬간담회 등 행사의 할인혜택(최대 50%)을 드립니다.
■ 가입안내 불교와 사회 포럼 사무국 02)2004-82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 307호
• 전자우편 : mian1@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forum.buddhapia.com



자비의 선율 전하는 또 하나의 '법당'

타다남은 낙산사 목재로 첼로 바이올린 제작해 기증

원통보전 고목 이용…의상기념관에 전시중

"돈 생각하는 순간 명기는 사치품 돼죠"

40년 동안 수공예 악기 제작에 한평생

어려운 음대 장학생들에 무료 보시 계획

임창호씨는 좋은 나무판을 얻기 위해 숙성시키는 수년간의 기다림, 농현(弄絃)을 통해 표현되는 섬세한 소리를 잡아내는 정밀함, 뼈를 깎는 듯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는 명기가 탄생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임씨가 낙산사에서 가져온 타다남은 고목으로 첼로를 만들고 있다.

산문밖의 桼

임창호

악기 장인



지난 4월 불타다 남은 낙산사 목재들. 현재 임창호씨의 작업실에 보관돼 있다.

지난 4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가 화마(火魔)로 잿더미가 됐다. 이 불로 보물 479호인 동종과 법당 등 건물 21채가 불탔다. 하지만 낙산사 원통보전 일부는 한 장인(匠人)의 손을 거쳐 서양 현악기로 다시 태어났다. 그 장인이 바로 강릉에서 40년 넘게 수공예 악기를 제작해온 임창호씨(71 · 서진악기사 대표)다.

"불자는 아니지만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아 사찰 참배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중 고향의 인근 지역 수백년된 고찰이 한 순간에 재로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요. 그 허망함을 어떻게 위로해줄까 고심했어요. 처음에는 낙산사 전각들을 축소해 모형으로 만들어 보시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사찰 건축물들이 정교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군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 불사에 보탤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마침내 생각한 것이 타다남은 목재를 활용한 악기 제작이었지요."

이런 생각이 확고해지자 임씨는 지난 6월 황급히 낙산사를 찾았다. 그리고 주지 정념 스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임씨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한 스님은 타다 남은 나무들을 전부 가져 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서양 현악기의 경우 대부분 가문비 나무와 단풍나무로 제작하지만 국산 소나무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명기(名器)를 만들 수 있다고 임씨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낙산사 원통보전 대들보는 고목(古木)인 데다 오랜 기간 건조돼 뒤틀림이 없어 악기 재료로는 최상의 조건이었다.

두달동안 무더위도 잊은채 하루 10여시간씩 강행군을 했다. 이런 고행 끝에 하마터면 아무쓸모 없이 버려질뻔한 타다남은 법당의 목재들을 명기로 바꾸어 놓았다. 만든 즉시 이 악기들은 낙산사로 옮겨져 현재는 의상기념관에 전시 보관중이다. 재질이 뛰어나고 소리도 아주 좋아 첼로는 최소 3천여만원, 바이얼린은 1천5백여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임씨는 귀띔한다.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음악가적인 섬세한 귀와 심성을 가져야 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심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번잡함을 없애고 몰두해 악기와 하나가 돼야 따뜻한 음, 차가운 음 등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품은 명기가 탄생됩니다."

임씨가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서라벌 예술대학 공예과(중앙대의 전신)를 졸업하면서 부터다. 원래 임씨는 초등학교 음악교사인 아버지의 지도로 5살때부터 바이얼린을 배웠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음악적인 재능보다는 손재주가 뛰어남을 안 주위 음악 선생님들의 권유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엔 서양 악기 만드는 곳이 거의 없어 수십개의 현악기를 구입해 그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독학으로 악기 만드는 법을 익혔다.

옛 방법을 존중하며 나아가 자신이 새롭게 창조하고 개발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묵묵히 실천해온 그에게 정밀한 소리를 되찾겠다는 일념(一念)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는 아무리 편한 기계가 세상에 있다손 치더라도 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중심에 놓으면 고집을 지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선연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악기에 쓸 나무만큼은 고집스럽고 까다롭게 골랐지요. 그런데 이젠 나무 걱정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낙산사에서 가져온 나무들이 크레인차 두 대 분량이거든요. 전각들은 비록 사라졌지만 악기로라도 남아 아름다운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게 바로 또하나의 법당 아니겠어요. 그런 사명감으로 요즘은 다른 어느때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 낙산사 목재로 악기를 만듭니다."

제조 과정은 긴 인내를 요하지만 악기가 훌륭한 음악가의 손에서 최상의 빛을 발하며 연주될 때 악기 장인으로서는 최고의 보람이 아니겠냐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실제로 모두 수제품인 그의 악기는 우리나라보다도 외국 음악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비결은 대나무 숯가루를 섞은 옻칠에 있다. 흔히 세계적인 명기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넬리 등은 알코올 바니쉬로 겉칠을 하는데 비해 임씨는 자신의 악기에 습기와 해충에 강하며 광택과 소리가 좋아지는 옻칠을 한다. 하지만 옻칠은 대부분의 악기 제조공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시간과 노력이 몇십배로 들기 때문에 기피한다. 임씨가 고작해야 1년에 3~4개 정도 밖에 악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그만의 심혈을 기울인 제작 과정때문이다.

그만큼 임씨는 자신의 악기에 공과 혼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악기 상표도 자신의 이름 석자 '임창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돈을 생각하고 악기를 만들면 그 악기는 태어나는 순간 명기가 아니라 사치품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칼로 나무를 다듬는 수만번의 손놀림을 할때 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내 악기가 시방세계로 나가 대중들에게 불협화음이 아닌 화합과 평화와 자비를 가득 실은 선율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고희를 넘긴 지금, 그는 세인들의 관심으로 주목받는 삶은 아니었지만 서양 악기를 오히려 한국의 전통 혼이 들어간 악기로 재창조해 본고장인 유럽 전역으로 역수출한다는 긍지에 나이도 잊는다.

이런 그에게 요즘 인생을 가치있게 회향하기 위한 꿈이 하나 생겼다. 가난하지만 재능있는 연주자들의 손에 자신의 악기를 쥐어 주는 보살행의 실천이다. 임씨는 현재 강릉지역에서 유치하고 있는 음악 경연 대회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고가(高價)의 악기를 보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강릉/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적멸보궁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화엄산림법회는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에 담긴 뜻을 되새기고, '화엄경'속에 나타난 우주법계의 무한한 생명을 불자들에게 가르쳐 주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입재 : 2005년 12월 2일 금요일 (음, 11월 1일) 10:00
● 회향 : 2005년 12월 30일 금요일 (음, 11월 29일) 10:00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회 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 (비표배부)
반산림 : 50,000원 / 영가 동참비 : 1위당 10,000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 화엄전 055)381-1288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09:00) 본사차량 및 한솔고속관광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0) - 우정지하도(07:30) → 구/고속터미널(07:30) - 공업R(07:30) - 무거R(07:30)- 통도사(부성고속관광)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2005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 사	법문하실 품
11/1	12/2	금	방 장 초우스님 전계사 혜남스님	입재법문 현담
2	3	토	성본스님	세주묘엄품
3	4	일	자광스님	여래현상품
4	5	월	재문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6	화	정무스님	화장세계품
6	7	수	인환스님	비로자나품
7	8	목	인환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9	금	성열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정행품
9	10	토	수진스님	오전법문생략/현수품
10	11	일	중선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정상게찬품/십주품
11	12	월	종진스님	범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13	화	보광스님	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게찬품/십행품
13	14	수	법산스님	십무진장품
14	15	목	우진스님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게찬품
15	16	금	약산스님	십회향품 제5까지
16	17	토	진철스님	십회향품 제6~제10
17	18	일	정우스님	십지품
18	19	월	기후스님	십정품
19	20	화	무관스님	십통품/십인품
20	21	수	종광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22	목	성림스님	제보살주처품/불부사의품
22	23	금	철우스님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
23	24	토	각성스님	보현행품
24	25	일	지관스님	여래출현품
25	26	월	종범스님	오전법문 생략/아세간품
26	27	화	종범스님	입법계품(7) 휴사우바니까지
27	28	수	월파스님	입법계품8 비목구산선인-31바산사연주야신
28	29	목	향과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야신/40구바녀
29	30	금	전계사 혜남스님	입법계품(41마야부인-50유덕동녀-51미륵보살) 회향법문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나의 수행법

실상관법(實像觀法) 수행체험기 - 김혜경 (中)



우곡의 실상관법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으로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구차스런 행위가 일체 없다. 실상관법 가르침을 이해하고 스스로 증득하는 가운데 망상분별이 줄고 단순하고 명쾌한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뿐이다.

천천히 날숨으로 호흡을 내리며 선기공체조로 몸을 풀어 준 다음 실상관법으로 좌선에 드는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법회 때마다 있는 야단법석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계를 점검함으로써 넘지 못할 경계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몸과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렵다는 참선공부에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천천히 날숨으로 호흡을 내리며 선기공체조로 몸 풀고 좌선 돌입

실상관법을 접하게 되면서 욕망의 노예에서 놓여 넓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이럴까 저럴까' 번민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다.

우곡선원의 실상관법은 말 그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觀)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붉고 둥근 석양을 단전에 가득히 함으로써 번뇌가 줄고 근원적이고 순수한 마음의 힘이 길러짐을 경험했다. 내 안에 가득한 태양으로 온 몸에 열기가 전해지면 무명 중생의 어둡고 축축한 습기(濕氣)를 말려주는 이치라고 할까? 다시 말하면 젖어 있는 빨래가 맑은 날 햇살아래에서 뽀송뽀송 기분 좋게 말려지는 것처럼 실상관법은 그런 것이었다.

처음 실상관법을 할 때는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붉은 태양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그 열기가 내 몸에 전해질까에 대한 의문으로 몰입이 쉽지 않았다. 망상분별이 들끓을 때는 태양을 눈으로만 이미지화 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실상관인줄만 알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이미지도 잘 잡히지 않아 좌절감만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창밖을 우연히 내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밝은 햇살이 부서져 내려 그 빛이 나뭇잎이며 운동장, 화단의 풀과 꽃잎, 생기 있게 웃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 그대로 퍼져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아! 자연과 내가 하나인데, 내가 바로 자연의 피조물인데'라는 생각이 들던 중 태양의 빛이 관해지기 시작했다. 그대로 창가에 서서 따로 가부좌를 하지 않았는데도 맑은 햇살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돌면서 한동안 그 열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날 이 후 운동장에 있는 나무들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성주괴공하고 생주이멸하는 자연의 정직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니 우리 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와 닿기 시작했다.

1978년에 개교한 우리 학교는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로 교정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자연의 소리보다는 주로 교실에서만 생활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가까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이 찬란하고 따사로운 빛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마감하곤 한다. (계속)

■부산 주례여중 교장

신심·의심·분심 내 읽어라

기획 인터뷰 / 선학자 현각 스님에게 듣는 선어록 공부

"세 가지 마음으로 선어록을 읽어야 한다. 신심(信心)으로 읽고, 의심(疑心)으로 뜻을 헤아리며, 분심(忿心)으로 '조사의 뜻을 왜 모르는가'를 늘 경책해야 한다."

초조 달마부터 조주까지의 중국 조사 24명과 고려 혜심 국사부터 최근의 금오 스님에 이르는 한국 선사 27명의 어록을 묶어 <선어록 산책>을 펴낸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선어록 공부 자세를 이렇게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2000년에 한국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온라인(on-line) 선어록강좌'를 개설하는 등 선어록 공부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선사들이 깨닫기까지의 수행과정과 깨닫는 순간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 그 선사들의 발자취를 언어·문화·시대·지역을 초월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할까?



"조사들의 선어록 언구(言句) 어디에서도 깨달음의 기연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현각 스님.

▲선어록 공부가 왜 필요한가?

-역설적으로 선에서는 문자를 활용하지 말라 했다. 하지만 경전도 조사어록도 문자로 돼있다. 왜 그런가? 구전으로 이어지면, 사(邪)가 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은 공부 경지를 부득이 문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본인만 알고 끝났다면, 그것은 역사와 진리의 단절이 되는 것이다.

선어록은 역대 조사들의 수행창고이기에 후학들에게 수행의 나침반이 된다. 마치 길을 가본 사람이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초행자는, 지역은 알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길을 가야할지 모른다. 이처럼 선어록은 공부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다.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절대 필요하다.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강조한다. 이런 수행정서에서 문자로 된 선어록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석가모니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 역대 조사들은 기연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소리로써 깨달았다. 육조혜능 스님도 <금강경>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란 글귀를 소리로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보조 스님은 선어록을 낭독하다가 깨달았다. 그래서 누구든 조사들의 선어록 언구(言句) 어디에서도 모두 깨달음의 기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선어록에 등장하는 선사들의 말은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평상심, 자성, 본래 면목 등의 키워드로 선어록을 파고들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도 있는데.

-조주의 무(無)자 화두든 '이뭣고'란 공안이든, 몇 개의 공안이 선어록 이해의 키워드가 된다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중생의 근기가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몇 개의 공안으로 선어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를 한곳에 묶어 두는 것이 된다.

선어록 공부에서 개념설명에 치중하면, 도식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소위 '핵심언구'에 천착하면 치열한 수행의 결과인 어록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선어록 공부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조사 입장되어 몰입해 들어가야

▲선어록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록을 쓴 조사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보고 읽어야 한다. 세속의 잣대와 지적 욕구 충족 차원에서 선어록의 책장을 넘기면, 공부 의미가 없다. 조사스님들의 정신세계부터 이해하고, 그 세계에 몰입해 그 어록과 동체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선어록은 선사들의 대화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과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자기화해서 읽는 것이다. 진여연기론에 입각한 불성사상은 모든 사람의 본성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됐는데, 이런 본성이 번뇌와 욕심에 뒤덮여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번뇌나 욕심은 실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 허망함을 자각해 무심하게 그 본성에 내맡겨 그 본성을 따르면 그것이 깨달은 이의 삶이다. 선사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조사스님들의 직접 체험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느 선어록을 보더라도 깨달음이란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그것도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선객의 질문에, "호떡!"이라 대답한 조주선사의 말이 있다. 이 말은 호떡으로 상대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부처 내지는 깨달음의 문제는 남의 입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니, 입 닥치라는 호령이다.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선어록은 역대 조사들의 수행창고 당사자의 직접적 체험 강조 선종史 이해 필수…반복해 읽어야

▲선어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수행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체험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해, 그 표현과 체험이 일치하는가를 늘 관조해야 한다. 이렇게 해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또 활구(活句)를 터득해야 한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이는 문자를 떠난 교외별전의 이야기다. 이것이 활구다. 사구(死句)는 경전 등을 통해 구절구절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혜종고는 스승의 <벽암록>을 불살라 버리면서 문자선(文字禪) 해오선(解悟禪)을 경계했다.

▲선어록을 간경수행처럼 해도 공덕이 되는가?

-간경은 경전의 소중한 가치에 호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무량공덕이 된다. 그럼 선어록을 읽으면 공덕이 될까? 그렇지 않다. 한 구절 알고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버리거나, 또 조금 내용이 눈에 보인다고 까불면 안 된다. 내용을 모르면 '그 말에 뜻이 있을 턴데' 하고 자꾸 참구하는 자세가 돼야 공덕이 된다.

▲실제적인 노력은 어떻게?

-우선 선종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을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어떤 조사들이 법을 폈는지 개괄적이라고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핵심을 꿰뚫는 안목이 갖출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한자 공부가 필요하다. 물론 한자가 어려우면, 한글로 된 선어록을 먼저 읽어도 된다. 만약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한문 원문을 볼 경우, 뜻을 쉽게 알게 된다. 또 수시로 조사 어록을 써보고 외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록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르는 낱말 뜻이 있으면, 수시로 사전도 뒤져봐야 한다.

▲선어록 공부에 있어 주의할 점은?

-선어록만 보고 선을 이해하면 안 된다. 무임편승하는 것과 같다. 또 선수행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선어록을 보지 않고, '혼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면 안 된다. 특히 좀 앞서 간다고 지적 받은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자기 공부에 용맹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용맹심을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어록 한 권씩 읽어나가면서, 수행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치우쳤구나', '내가 너무 풀어놓고 살았구나' 하고 자신을 늘 반성해야 한다.

자기체험 언어로 표현해보고 점검을

▲<선어록 산책>에서 재가불자들의 공부에 유익한 몇 구절을 소개해 주신다면?

-요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분별심을 내, 덜 가진 것에 불만을 갖는다. 수행에서 이 분별심은 가장 큰 장애다.

보조 스님 제자인 혜심 선사의 <혜심어록>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겠다. 혜심 선사 상당법문 어록에 의하면, "평등이란 산을 깎아 연못을 메운다든가 학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긴 것은 길게, 짧은 것은 짧게, 높은 것은 높게 해 모든 법이 그런 줄 알면 저절로 서로가 평등해진다"고 돼 있다.

불법에서 평등의 의미를 일러주는 대목이다. 평등의 불교적 이름이 평상심이다. 마음의 굴곡이 없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말한다. 평등의 본래 면목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다.

일상에서 평상심을 실천하기 위한 어록을 더 소개하기로 한다. 조주 스님의 <조주록>에서 나오는 말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도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자, 남전 스님이 "평소의 마음 그대로가 곧 도"라고 답한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는 법이다. 그와 달리 참된 부처는 오직 자신 속에 앉아 있을 뿐이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진불이 있다는 말이다. 수행을 통해 닦고 닦으면 진불이 내 몸에 내재돼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

자기 터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음을 일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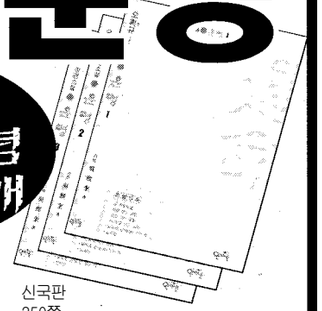
글·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 책의 주요내용
1. 무명(無明)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
2. 무명(無明)을 없애는 것은 밝은 광명(光明)이다.
3. 광명(光明)은 법신불의 지혜가 근본이 된다.
4. 성불은 사람의 지혜와 법신불의 지혜가 합쳐져야 완성된다.
5. 따라서 선가의 견성은 성불이 아니다.
6. 아함경에 서술된 사람 수명 팔만사천세와 말세의 대병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저자직강 053)653-9124





<법화경> 사경과 참선정진.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敎)과 마음(禪)을 수행을 통해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⑱ -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불법 외우고 새겨 여래 보리라

"경산은 대구 옆에 위치한 작은 위성도시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제대로 알려지기 보다는 일본에서 왜곡돼 전해진 기복 신앙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은 곳이지요. 따라서 그 어느 곳보다 정법수행 도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배우라고 일러준 부처님의 수행법에 따른 정법수행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우기 위해 <법화경> 바른수행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경산시 옥산동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에는 주지 대륜 스님의 설명처럼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장이 열린다. 도량 문을 연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수행 잘 하기로 유명한 도심수행처다. 모든 불자들이 직접 도량을 가꾸며 24시간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법화경 사경·독송→참선→법문 이어져

11월 14일 오후 2시, <법화경> 사경노트를 챙겨들고 불자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30여 불자들이 2층 법당을 가득 메웠다. 법당 앞 화이트보드에는 2시간가량 진행될 수행계획이 시간대별로 적힌 글이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가짐을 살필 것을 종용한다.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최태숙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의식이 끝나자 불자들은 1시간 동안 <법화경> 사경에 몰입했다. 목탁과 죽비가 수행의 길잡이가 될 뿐, 외부의 어떤 잡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고요 속에 잠겼다. <법화경>의 뜻을 머리로 알기보다 온몸과 마음으로 체득코자 한 획 한 자에 정성을 쏟는 불자들은 그대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다.

3시 10분, 세 번의 죽비소리가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살피게 만들고 불자들은 일제히 <법화경> 제17 '분별공덕품'을 한 목소리로 독송했다. 법당에는 <법화경> 독송소리만이 가득하고, 보여 지는 상(相)들을 하나로 집어삼켰다. 10여분간의 독송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은 불자들은 다시 참선삼매에 몰입했다. 어느 틈에 들어온 주지 대륜스님이 바른 수행과 정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탰다. 30분쯤 흘렀을까? 스님의 죽비 삼성이 참선삼매를 깨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전하는 법문이 이어졌다.

"법당(法堂)은 진리(법)가 있는 곳이지, 부처님만 계신 불당(佛堂)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생심을 들어내고 원래 불성자리를 끄집어내야지, 내 자식 내 남편에만 집착하면 불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로 꽉차있던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가 어떻게 <법화경>을 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붓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재밌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이만큼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류정숙(66 · 경산 옥산 1지구)씨는 이제 <법화경> 사경을 매일 500자, 1독 1배를 500배 한다. 일곱 권으로 된 <법화경> 사경노트를 세 번 썼다는 류씨는 정성껏 사경한 <법화경> 한 질을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관속에 넣어드렸다며 뿌듯해했다.

갑상선 치료약을 먹으면 늘 병과 싸웠다는 김정희(48 · 경산시 정평동)씨는 어느덧 약을 먹지 않아도 피곤함을 못 느끼게 됐다며 자랑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집, 부모, 자식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앉아도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24시간 마트를 운영하는 천재국(39 · 경산 옥산동)씨는 절에 나온 지 9개월 남짓된 병아리 불자다. 늘 불안해 술을 마시고 수시로 화를 냈다는 천씨. 절을 하고 사경을 하다보니 어느덧 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고 한다.

정반화(54 · 대구 시지동)씨는 처음 사경을 시작할 때 끔찍했다고 토로했다. 삼천 배 오천 배 절은 해도, 도저히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전 한 자를 쓰는 것이 어려웠다는 정씨. 이제는 찜통더위도 잊을 만큼 수행삼매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며 그저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미소 지었다.

'법화경' 바른수행모임을 이끄는 최태숙(45 · 대구 매호동)회장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발원하던 어느 날, <법화경> 전법만한 도움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늘 <법화경> 전법을 발원하게 됐다"고 한다. <법화경> 수행은 매일 한 자를 쓰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꾸준히 일념으로 수행을 이어가다보면 수행의 묘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권했다. (053)811-0337

글 · 사진/경산=배지선 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대륜 스님 일문일답

한 글자 한 글자 통해 부처님과 하나되는 과정



▲<법화경>을 강조하는 까닭은?

-<법화경>은 부처님이 49년여 동안 설하신 경전 중에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설해진 경전이다. 가장 완숙된 경지에서 최정점의 진리를 설한 것이다.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고도 하는데, 연꽃이 사바세계에 뿌리를 내려도 불성은 물들지 않듯 결국 누구든 언젠가는 모두 성불한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경에 많이 활용되었던 <법화경>은 수지 독송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에 알맞은 경전이다.

▲<법화경> 사경의 마음가짐은?

-사경은 <법화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체득하는 과정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다. 뜻을 이해한다면 더 좋겠지만 시작을 하는 취지가 중요하다.

▲수시로 오는 경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언뜻 수행의 처음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도 느끼고 기쁨도 온다. 그러나 곧 나태함 등의 경계가 찾아온다. 깊이 누적돼 있는 마음의 때를 제거해야 하는데 어렵다. 하지만 초발심으로 계속한다면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게 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4> 첩자와 자객

결제 때는 보름마다 포살을 한다. 비구계(사미계)와 보살계 포살을 번갈아가며 한다. 보살계는 6부대중이 모두 함께 모여서 포살을 해도 무방하지만 비구계 포살은 사부대중을 엄격히 나누어서 실시한다. 또 계목이 대외비(?)인 까닭에 포살을 하는 법당(혹은 큰방) 앞에는 죽비를 비껴 매고서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소임자를 반드시 세워놓는다. 사실 비구(니)율장은 비구(니) 외에는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요즈음은 율문까지 개방화된 시대인지라 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그 보안의식은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부처님을 개금하거나 가사를 만들 때도 근처구역에는 반드시 줄을 치고 '금란방(禁亂榜)'이라고 써 붙여놓는 것도 부정한 사람과 나쁜 기운의 개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훔쳐갈 대상이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자산까지 넓혀졌다. 불법(佛法)도 마찬가지다.

당나라 육조혜능 선사의 법은 당시 선종의 근간을 뒤흔드는 획기적인 이론이었다. 따라서 그 법을 훔쳐가려는 시도가 더러 있었다. 훔쳐간다기보다 그 이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기존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반대파에서 선사의 몸에 위해를 가해 교세를 꺾으려는 사건들이 <단경은 물론 그외 여러 어록에 나온다. 그때도 지적소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세력팽창의 경쟁 와중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더불어 첩자와 자객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남종선 사상의 독자성과 창조성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 지적 자산임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보아야겠다.

기득권자인 '점수(漸修)' 교단의 오너인 신수대사는 어느 날 남방에서 기라성같이 등장한 '벤처선사' 혜능의 '단박에 깨친다'는 돈오(頓悟)의 신이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자 지성(至誠)을 잠입시킨다.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도록 해라. 혜능의 처소에 가서 그의 설법을 잘 듣기만 하라. 내가 그대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그의 설법을 듣고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해서 돌아와 내게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 속히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해 나의 이러한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라."

첩자는 우선 재발라야 한다. 그래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게다가 신속성이 생명이다. 꼬리가 길면 그 흔적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는 말도 잊지않고 있다. 또 첩자로 인해 파견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첩자 지성은 '돈오'의 가르침을 듣다가 거기에 매료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귀화해 버린다. 그때 혜능 선사는 '첩자'라는 말로써 지성을 평가한다.

독창적인 '돈오' 사상으로 선종史 바꾼 혜능
첩자와 자객마저 감동시켜 제자로 만들어

"그대가 신수 선사의 처소에서 왔다면 분명히 첩자(細作)임에 틀림 없으렸다."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첩자가 '세작(細作)'으로 되어 있다. 엄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 하는 셈이다.

지성이 세작(정보원)이라면 지통(至通)은 자객에 가깝다. <전등록> 5권에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둘 다 나중에는 혜능의 십대제자 명단에 포함된다. 그는 북종선 선승인 보적선사의 부탁을 받고서 칼을 품고 혜능 선사의 방으로 침입한다. 선사를 해치려고 칼을 세 번이나 내리쳤지만 선사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이에 감동한 나머지 마음을 돌이켜 출가해 혜능의 제자가 된다.

선지식의 법력은 정보원과 테러리스트까지도 감동시켜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7강 무엇이 그리도 희유(稀有)한가

부처님의 몸은 왜 우리와 다를까

2장은 수보리가 예를 갖추어 붓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혜능은 제자가 선생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는, 지금 수보리처럼 다섯 가지 의식(儀式)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자리에서 일어나, 2) 옷차림을 수습하고, 3) 오른쪽 어깨 죽지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면서 4) 손을 모으고, 우러러보되, 스승에게 눈을 떼지 말며, 5) '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질문을 드린다." (弟子請益, 先行五種儀. 一者從座而起. 二者端整衣服 三者偏袒右肩, 右膝著地. 四者合掌瞻仰尊顔, 目不暫捨. 五者一心恭敬, 以伸問辭.)

오늘 강의는 단어 두 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로'라는 말의 곡절이고, 다른 하나는 '희유'라는 말의 함축입니다.

'장로'라는 말의 곡절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장로(長老)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 기독교 용어를 불교도 쓰고 있었단 말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희은의 "일곱 송이 수선화"가 우리 곡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브라더스 포(The Brothers Four)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야, 얼마나 유명하길래 미국 애들이 번안해서 부르냐" 하고 감탄했다가, 한바탕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강경>에서 분명하듯이, 장로는 본시 불교용어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을 뜻하는 팔리어의 '테라', 혹은 산스크리트어의 '스타비라'를 중국어로 옮길 때 채택한 것입니다. 육조 혜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라 했는가. 덕이 높고 나이도 드셨기에 장로라고 부른다(何名長老, 德尊年高, 故名長老.)"

불교사를 좀 짚어볼까요. 붓다 입멸후 약 100년이 지나서 교단이 최초로 분열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는 계율에 유연하고 재가와의 유대를 더 강화시키려는 젊은 부류들의 혈기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붓다 이래 내려온 승가의 전통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어르신네들의 고집이 부닥쳤습니다. 이 중에서 젊은 집단을 이름 그대로 대중부(大衆部 Mahasanghika), 나이든 집단을 장로부(長老部 Theravada, Sthaviravada)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장로부 대신에, 같은 어르신을 뜻하는 말인 상좌부(上座部)를 쓰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승은 대중부로부터 발전했습니다. 다른 쪽 장로부 혹은 상좌부는 실론 등 남방에서 전승되었기에 실론상좌부라고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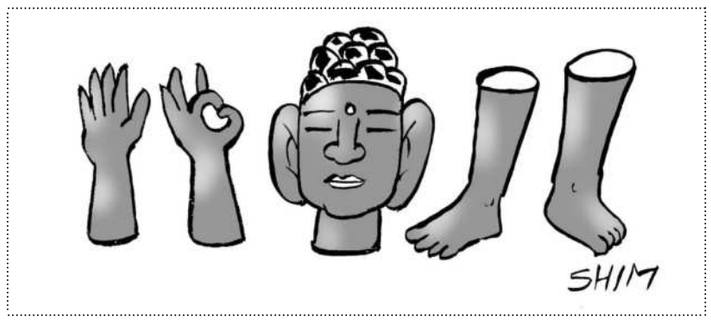
어쨌거나 지금 <어르신네>를 뜻하는 장로와 상좌, 이 두 이름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말았지요. 장로는 아무래도 기독교에 넘겨준 듯하고, 그리고 상좌는 불교의 전유물이기는 하지만, 뜻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상좌는 원래 '윗자리(上席)'를 차지하고 계신 어르신인데, 지금은 특정 원로스님의 제자, 혹은 초심자의 뜻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상황에 따라 말의 의미는 진화하고 변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거꾸로(?) 선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달라진 의미와 용법이 못마땅하다하여 되돌려 놓을 생각일랑 아예 마십시오. 언어는 생명체 같은 것이라 쓰는 대중이 곧 판정자입니다. 지금 불교가 기독교에게 '장로'라는 용어를 도로 내놓으라고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겠고, 또 상좌라는 말도 이제 그만 원래의 원로격을 되찾아주자고 캠페인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현행'입니다. 언어에 관한 한, 우리는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판관에 무조건 복종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티즌들이 쓰는 어지러운 말을 어떡할 것이냐에서, 그리고 최근 분란이 되었던 불교용어 표준화 또한 이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그러나, 용어들의 기원을 캐고, 역사를 짚으며, 중첩된 의미의 지층을 탐색하는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의미의 역사적 지층과 현재적 지배 사이, 그 차이와 엇갈림의 '노님'에서 새로운 지식과 학습이 태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희유'한가



수보리는 "희귀합니다"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본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세존의 "대체 무엇이 그리도 희귀하냐"에 대해, 혜능은 다음 세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希有略說三義. 第一希有, 能捨金輪王位. 第二希有身長丈六, 紫磨金容, 三十二相, 八十種好, 三界無比. 第三希有, 性能舍吐八萬四千法, 三身圓備, 以具上三義, 故云希有也."

하나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 붓다가 왕궁의 지위와 안락함을 내버린 것. "금 바퀴를 굴리는 왕의 지위를 능히 버리시고 출가하다." 모든 코드가 지위와 재물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네 혈안에 견주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햄릿의 어법으로는 '존재의 여부'에, 불교식으로는 '생사의 비밀'에 유성출가(踰城出家), 길을 나선 것은 진정 희귀하고도 희귀한 일입니다.

2) 붓다의 특이한 신체와 모습. 이 점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강경>은 '붓다의 여러 가지 몸'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절간에서 보는 부처님들은 우리와는 닮지 않았지요. 대웅전이나 적광전이나 원통전이나 무량수전이나, 거기 계신 부처님들이 사람 몸보다 훨씬 크고, 또 색깔은 금색이며, 머리는 흑인들처럼 짧고 꼬불꼬불 말려있고, 이마에 혹(?)도 하나 나 있고, 또 보통 사람들보다 몸피가 좋고, 또 자세히 보십시오. 옷 주름 뒤 성기는 전혀 도드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는 둥그런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붓다의 자연적 신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빛나는 몸' 혹은 '영광에 싸인 몸'을 그려낸 것입니다. 혜능은 이 영광의 몸이 "삼계(三界)에는 비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신수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사람의 몸의 특징이 바뀐다는 것은 인도의 오랜 전통적 인식이었고, 불교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특징들'은 크게 32개, 그리고 다른 세세한 것들이 80개 있다고 합니다. '32상(相) 80종호(種好)'로 불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3) 무엇이 세번째로 희귀할까요. 첫 번째 희귀한 것은 '결단'이고, 두 번째 것은 '모습(위의)'이니, 마지막 것은 당연히 '덕성'이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혜능의 표현이 좀 까다롭습니다. 번역해보면, "세 번째 희유는, 성(性)이 능히 팔만사천 법을 함토(含吐)하고, 삼신(三身)이 원비(圓備)하였기, 그래서 희유하다고 했다."

이 말은 "붓다의 덕성과 지혜가 팔만 사천의 법문을 자유자재로 설파할 만큼 되었고, 또 그로 하여 인간으로서 완전한 영적 성숙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붓다의 몸은 그리하여 육신(色身)이면서 영적 성숙과 축복으로 빛나며(報身), 나아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세상의 진리를 전파해주게까지(化身)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희귀한 중의 희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시없는 사건, 기독교의 어법으로 하자면 '굿 뉴스(福音)'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㉝ 백운경한 선사의 '고향'

조태호



백운경한(白雲景閑 : 1299~1375): 고려말 스님. 1351년 원나라에 가서 석옥청공(石屋淸珙) 스님의 법을 이음. 백운 스님에 대한 현전 자료로 <백운화상어록>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말세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건가요?"

문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때 우리는 흔히 "말세(末世)야 말세"라고 중얼거립니다. 일반인들에게 말세라는 의미는 반도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세보살)

답 1 : 지하철역이나 버스 승강장 등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세를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말세는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말세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말세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가지를 말세라고 부르지요. 불교에서의 말세는 원래 불교의 삼시(三時)에서 나왔습니다.

삼시란 부처님께 입멸하신 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가르침이 여법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 시대를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설과 그 실천과 결과가 모두 갖추어진 시기를 정법시라하며 교설과 실천의 시기를 상법시 그리고 교설만 있는 시기를 말법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삼시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 입멸 후 1천년 혹은 5백년을 정법시 그 다음 천년을 상법의 시기 그다음 만년을 말법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사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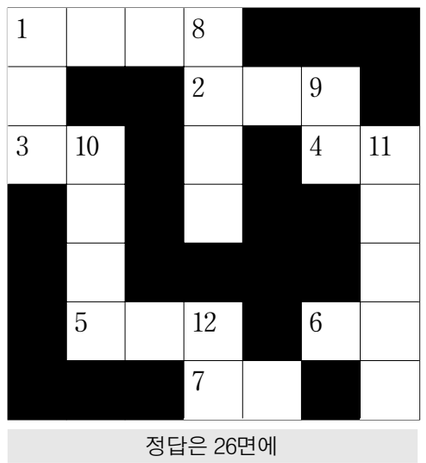
답 2 : 중국에서는 북제시대부터 말세사상이 성행에 신행선사의 삼세교 선도의 정토교 등에서 스스로 종지가 말세에 적합한 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교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자들아 말세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라. 이제 너희들은 친히 보고 친히 들으니 일찍이 여러 겁에 걸쳐 배우고 수행한 사람들임을 알겠다. 한 번 들은 다음에는 다시 물러섬이 없거라."

말세란 궁극적인 의미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의 범주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을 넘어가면서 또한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극심한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숭배사상과 결합된 극심한 정신적 혼돈은 우리를 충분히 말세의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잘살아보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와 영화 2. 자연의 경치를 주제로 그린 동양화 3. 오대산과 인연이 깊은 보살 4. 중요한 비밀 5. 왼손은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 끝은 땅을 가리키는 자세, 항마○○○ 6. 프랑스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유명한 도둑. 7. 파도의 높이.

세로

1. 국보 제1호 문화재 8. 원나라 스님 몽산화상이 설한 법어를 모은 책을 줄여서 부르는 말 9. 불화 한쪽 구석에 그린 이, 시주자 등을 기록한 것 10. 지심귀명례 영산당시 ○○○○ 십대제자 11. 그리스인 국왕 밀린다(Milinda)와 나가세나존자의 대화를 기록한 경전, 밀린다왕문경 12. 사람이 많음을 파도에 비유한 말.



북카페 '피스 오브 마인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종헌 · 이형숙 부부. 이들 부부는 3년전 홍천에서 베이커리 북카페를 열고 인생 제2막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다.

마흔에 시작하는 13가지 결심

Home Sweet Home 따뜻한 가정 만들기
Heart 일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기
Human Relation
인연을 살려가며 상생의 삶 살아가기
Humble & Simple Life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기
Hand 즐겁게 평생을 노동하기
Health 건강하기
Human Depreciation
육체적 정신적 감가상각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Hope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발원하고 기도하며 살기
Hobby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살기
Habit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습관 갖기
Honesty 정직하고 성실하며 바르게 살기
Hostship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기
Happiness 행복에 이르는 길 찾기

억대 연봉 CEO에서 카페주인으로

"10년 후를 고민해 보세요"



남자나이 마흔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
김종헌 지음
정신세계원 펴냄 | 9천8백원

억대 연봉을 받던 CEO에서 홍천의 베이커리 북카페(피스오브 마인드) 주인으로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연 김종헌 씨(58 · 前 비비안 사장).

그는 26세 때 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7세에 결혼을 했고 동시대 사람이 그러하듯이 30여년간을 오로지 '회사형 인간'으로 충실히 살았다. 그래서인지 회사생활은 성공적이었다. 38세 되던 해에 그는 공개상장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흔이 되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 말이 좋아 전문경영인이지 결국은 월급쟁이에 불과한 자신의 신세를 직시하자 '10년 후에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때부터 밤잠조차 오지 않았다. 인정받는 회사 중역 자리도 마흔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마흔 무렵 마침내 그는 결심을 했고,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은 15년 뒤 북카페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자신의 방황과 결단, 그리고 은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김종헌 씨의 <남자 나이 마흔에는 결심을 해야 한다>가 신간으로 나왔다. 그는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베이커리 북카페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홉 봉우리의 공작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의 카페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마흔 무렵의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년 후'를 걱정하며 자문을 구했다.

그중 IT업계에 19년 종사하다 45세 되던해 사표를 낸 이성열씨가 무척 인상에 남았다고 한다. 현악기에 취미가 있었던 이씨는 이탈리아로 유학가 현악기를 제작하는 '장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굳건한 의지도 다질겸 김씨의 카페를 찾았다. 물론 김씨는 이씨의 등을 두드리며 쉽지 않은 결단에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2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시작했다.

"마흔은 방황을 할 나이가 아니고 꿈을 꿀 나이입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할 좋은 나이이지요"라고 말이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것이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스스로의 삶을 다시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은이가 주장하는 '마흔에 시작하는 13가지 결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꿈과 계획이 세워졌으면 자신의 몸값 관리를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창업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인터넷을 잘 활용할 것 ▲인맥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 10년 목표로 영어에 다시 도전할 것 ▲건강 지도를 그릴 것 ▲틈날 때마다 아내와 노후를 계획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은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은 소박 단순하게 꿈꿔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꼭 하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의 소박하고 단순한 일을 찾아 전심전력을 다해 연구하고 시도하라고 권한다. 만일 경험부족으로 실패를 했어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외에도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종교를 갖고 인격수양에 나설 것도 40대 이후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독실한 불교 신자인 지은이 부부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운전할 때에도 독경 테이프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내면을 맑은 세계로 이끌고 언행을 일치시키며 사는데 큰 힘이 된다고 털어놓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3
-적은 것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
피에르 상소 지음 | 김주경 옮김
동문선 펴냄 | 7천원

책의 서두에 인용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라는 파스칼의 문장은 이 책의 지은이인 프랑스 철학자 상소가 즐겨 되뇌곤 하던 구절이다. 일찍이 밀란 쿤데라도,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고 간파한 바 있다.

상소 또한 멈추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느림의 미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한가롭게 거닐기, 듣기, 꿈꾸기, 기다리기, 마음의 고향을 떠올리기, 글쓰기, 포도주 마시기, 모데라토 칸타빌레(절도를 가지고 아끼기).

실천 방안들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소한 행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게으름, 굼뜸, 무능력으로 치부되던 느림의 지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 시대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효율성과 속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잊고 지낸 느림의 미학

'빠름'은 '더 빠름'을 부르고 급기야 태풍의 눈처럼 인간을 삼켜버릴 뿐이다. 최대의 속도로 스스로를 몰아가며 정체불명의 열정에 휩싸인 사람들에 대한 지은이의 질타는 아프고 때로 통쾌하다.

그리하여 상소는 이렇게 묻고 있다. 최대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속도가 과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그래서 행복한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은 속도와 거기서 파생된 일에 끌려다닌 노예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 '절대로 지칠 줄 모르는',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책에서 느림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두가지로 제시된다. 일단 한가로이 거닐어 볼 것. 아무 생각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걷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사색하는 행위는 그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본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상대방에게 몰입함으로써 오히려 삶은 윤택해진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 급하게 대화를 몰아가려는 생각을 접어두고 죽은 시간들과 침묵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킨다.

이러한 경험들은 느림이 개인의 성격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은이는, 느리게 살아보라는 말은 노스탤지어에 빠져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인 '나는 누구였던가'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은 없었는가' '어떤 신념을 배반한 일은 없었던가' '언제부터 나는 내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가'라는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의미이다.

■**홍희선**(강원대 철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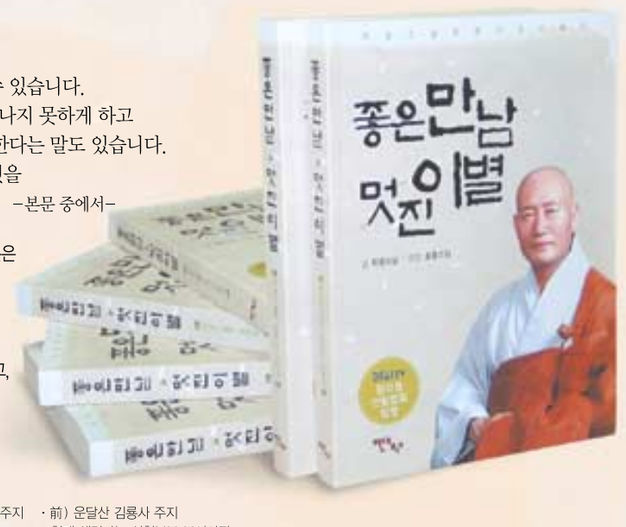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변형국판 240페이지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깨달음의 노래) 출판(근간)

현대불수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청화 스님을 소설로 읽는다



청화 큰스님
남지심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전2권 | 각권 8천5백원

스승을 만나는 것은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게다가 그 스승이 일평생 칼날보다 치열하게 수행에 매진했던 사람이라면 후학의 정신적 성장은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넓고 깊어질 것이다.

하루 한 끼 공양하며 일생을 철저히 수행에 몰두했던 청화 스님(1923~2003 · 사진)처럼 말이다.

소설가 남지심씨는 40여 년간 치열한 구도의 삶을 살았던 청화 스님을 <청화 큰스님>이라는 장편 소설로 그려냈다. 남씨는 소설 속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준'이란 인물과 함께 청화 스님의 생가와 출가 사찰, 수행처 등을 답사하며 스님의 생애를 복원해내고 있다.

우선, 소설에서 그려진 스님의 생애를 잠시 짚어보자. 일제강점기인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사재를 털어 망운중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펼쳤다. 이어 동서양 철학을 공부하던 중 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화상을 스승으로 출가했으며, 이후 40여 년간 진불암 상원암 백장암 벽송사 사성암 등의 토굴에서 묵언(默言)과 하루 한 끼 식사, 장좌불와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 토굴생활을 끝낸 스님은 85년부터 10여 년간 폐찰이 되어가던 전남 화순 태안사를 중창하고 그곳에 주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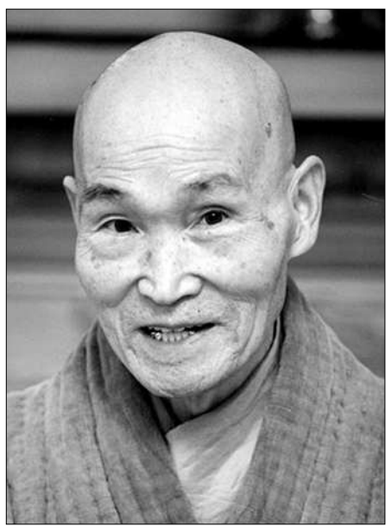
남씨가 청화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태안사 시절이었다. 청화 스님을 처음 만난 날 남씨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고, 10여년 가까이 스승을 찾아 헤매던 방황을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도(道)가 실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이후 20여 년간 스님을 가까이서 뵈며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남씨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인간이 육신을 갖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에 모아진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청화 큰스님의 모습에서 도의 실체를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화 스님의 생애를 통해 도의 보편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소설속 주인공, 스님 생가 · 수행처 찾아
한치 빈틈 없었던 생애 생생히 복원

남씨 스스로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까닭일까. 소설에는 손수 불 때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정진했던 모습이나, 누룽지와 된장국 · 물김치 외엔 상에 올리지 않았던 스님의 밥상, 열반에 들기 전 40kg이 넘지 않는 몸으로 확대경까지 이용해 <육조단경>을 번역하는 모습까지 눈에 보일 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외도'로 치부됐던 염불선(念佛禪)을 체계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냈던 스님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애와 치열한 구도정신을 간직한 성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때문에 이 책을 덮고 나면 "불교 집안의 어른이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이라거나 "수행자의 교본 같은 분"(실상사 前 주지 도법 스님)이라는 후세의 평가가 무조건적 찬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헌사(獻詞)임을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예술이 된 깨달음의 열망



불교의 향기, 그 다섯 아름다움
정동주
다른세상
1만5천원

우리가 불교 미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 속에 담겨진 '깨달음에의 열망'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가(佛家)에서 문(門) 하나를 세울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진리만을 생각하며 들어서야 한다는 뜻의 일주문과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사천왕문, 분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불이문을 잇달아 세워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이치다.

소설가 정동주씨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불교의 아름다움을 사찰 문(門)과 꽃, 불상의 미소, 미륵불, 나한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 <불교의 향기, 그 다섯 아름다움>에서 정씨는 이 다섯 가지가 "한국인을 아름다움에 귀의하게 만든 불교 신앙의 몇 가지 특별한 정신과 예술과 기도의 자취"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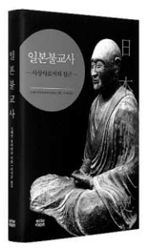
그렇다면 화려함의 상징인 꽃은 불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법신(法身)의 행(行)과 덕(德)을 칭송하고 장엄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꽃은 대좌의 장식이나 법당의 천장 그림, 창문 장식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이러한 꽃 장식은 정씨의 눈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중생들이 미묘한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로 비쳐진다.

또한 정씨는 아미타부처님의 미소에서 '목숨을 걸고 찾으면 틀림없이 대답해 주겠다'는 약속과 믿음을 읽고, 미륵부처님의 미소에서는 돌멩이에 혼을 불어넣어 새긴 희망을 느끼며, 다양한 나한의 얼굴에서는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깨달음으로 발견한 불교의 아름다움과 불교가 우리 민족에 던진 희망을 찾아봄으로써 이 시대 불교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절에 들기 위해서는 문(門)을 지나야 한다. 문은 다른 세계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의 천왕문.

일본불교 발달 · 토착화 배경



일본불교사
스에키 후미히코 지음
뿌리와이파리
2만2천원

집집마다 불단을 두고, 조상을 위해 일정한 시기마다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는 일본인. 일본인에게 있어 불교는 정신세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538년 백제 성왕이 불상과 불경을 전해주면서부터 시작된 일본 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 불교학의 권위자인 스에키 후미히코 교수(도쿄대학 문학부)가 지은 <일본불교사>은 사상사를 중심으로 일본불교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문서다. 기존 일본불교사 관련서들이 종파사(宗派史)나 인물사 위주였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정토(淨土) 선(禪) 니치렌(日蓮)계 등의 영향과 반발을 아우르며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부처 숭배가 중심이 되고, 현세의 이익과 사자(死者) 공양 위주, 전통적인 신 숭배와 일체화된다는 점을 일본 불교의 특징으로 꼽으며, 불교가 일본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토착화'와 '풍화'란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곧 일본불교가 인도와 중국, 한반도로부터 전해지는 새로운 동향을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인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그로 인해 불교가 완전히 일본화되어 가는 긴장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일본'이라는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 불교사의 모습을 파악하려했던 지은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는 "일본불교사를 일본인의 마음의 소원, 번민, 해결이라는 복잡한 경과로서 사상자적으로 명쾌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이 책을 평했다.

'축구 · 해병대 · 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는?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
김흥국 지음
보고사 | 9천8백원

축구, 해병대 그리고 불교. 가수 김흥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다.

최근 출간된 <김흥국의 우끼는 어록>에는 김씨가 이 세 가지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부터 연예계에 데뷔 시절, 길고 지난했던 무명 시절 그리고 2002년 대선과 월드컵에 얽힌 이야기까지 그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대한불자가수회 회장과 팔만대장경 동판 홍보대사, 생명나눔실천회 홍보대사 등을 맡아 불법(佛法) 홍포에 앞장서고, '무상 보시'를 좌우명으로 삼아 자선공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에서 '천상 불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김씨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방송사고'에 가까운 실수담이다. UCLA 대학을 '우크라 대학'으로 읽거나 게스트에게 '시간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하려다 '시간이 아깝다'고 말해버리는 등 SBS FM 라디오 '김흥국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 쇼'를 진행하면서 남긴 에피소드들은 이제 그의 '어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 자칫 고의적인 실수나 악의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실수들도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소 모습 덕분에 유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불교 원류를 찾아서



다르마 로드
조병활 지음
작은박물관
전2권
각권 3만2천원

조병활 불교신문 기자가 1700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의 원류를 찾아 인도와 네팔을 시작으로 9개국 250여 개 불교 유적지를 탐방한 후 그 기록을 <다르마 로드>란 책으로 펴냈다. '다르마 로드(Dharma Road · 진리의 길)'는 지은이가 문명의 전래 경로인 실크로드에 빗대 불교가 전래된 길을 지칭한 말이다.

지은이는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2002년 3~5월(네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같은 해 9~10월(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2003년 9월 2일(북한 개성), 같은 달 15~23일(묘향산, 평양, 구월산)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불교성지를 답사했다.

책을 읽다 보면 '오늘날에도 불교가 유효한가'라는 화두가 답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불교의 탄생지이지만 정작 불교 쇠퇴의 길을 걸었던 인도는 암베드카르(1891~1956) 박사로 인해 다시 불교중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문화혁명 이후 쇠락했던 중국 불교 역시 오늘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반야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①~⑩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대강백 무비 스님과 경북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싣고 있다.
① 지장경 218쪽/ 7,000원
② 관음경 94쪽/ 5,500원
③ 불유교경 108쪽/ 6,000원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5,500원
⑤ 금강경 194쪽/ 6,500원
⑥ 아미타경 90쪽/ 5,000원
⑦ 보현행원품 190쪽/ 6,500원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5,500원
⑨ 일반법회 120쪽/ 5,500원
⑩ 매일법회 96쪽/ 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출판부 02)926-8361 총판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문화 전달하는 핵심 코드

한국불교문학 번역 얼마나?

"원더풀! 원더풀!"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선어록 <직지>를 접한 현지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에 놀랐고, 직지가 담고 있는 불교사상에 감동받았다. 당시 세계인들이 보여준 영문판 선어록 <직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은 한국 불교문학의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2005년, 한국불교문학의 해외진출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또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준비해야할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2001년까지 해외진출 총 640종 중 불교 작품 60여 종

90년대 이후 동양 사상 · 선불교 열풍 일며 해외서 관심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어로 번역 · 출간된 해외 저작물은 1만88종으로 전체 신간의 28.5%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해외 저작물들이 국내에 번역되는데 반해 한국문학이 외국에 소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지원하는 대산문화재단에 따르면 2001년까지 외국어로 번역돼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은 총 640종이다. 순수문학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번역돼 해당언어권에서 출판된 것만을 집계한 수치이다.

이중 불교문학 작품은 60여 종 정도밖에 안된다. 만해 한용운 · 미당 서정주 · 고은 시인 등 시집이 주류이다. 1970년대까지의 한국문학 번역은 고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사명감이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만중의 <구운몽>, 제망매가 등 향가가 담긴 <한국시가집>, '님의 침묵' 등을 수록한 <한국시선> 등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선보였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미국에서만 세 차례씩이나 출간돼 주목을 끌었던 80년대로 넘어오면서도 번역 문학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주로 현지에서 출판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부실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보급에도 대부분 실패해 현지인들이 번역 작품을 받아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이에 비해 90년대는 김성동 장편소설 <만다라>가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등 프랑스와 독일에서 불교문학이 크게 주목받은 시기였다. 특히 고은 시인의 <조국의 별>은 독일 최고 출판사인 주어캄프에서 1994년 출판된 이래 올해 <주어캄프 세계시인총서: 세상의 바람>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재발간되는 영광을 누렸다. <주어캄프 세계시인총서: 세상의 바람>은 20세기 저명 작가들의 작품 1300여점을 수록한 <주어캄프총서>중 주요 시인들의 시집을 별도로 소개하는 시리즈이다.

올해 8월 첫 선을 보인 이 10인의 작품집에는 고은 시인을 비롯해 사무엘 베케트, 87년 노벨상 수상자 요세프 브로드스키, 파울 첼란, 독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되는 두어스 그륀바인, 9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비슬라바 쉼보르스카 등이 포함돼 있어 고은 시인의 독일 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문학 전문가들은 고은 시인의 선시(禪詩)가 유럽에 불고 있는 선불교 열풍과 맞물려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한다. 고은 시인의 작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불교 붐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은의 작품은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등지에서도 현지언어로 번역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미당 서정주 시인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신경림 시인은 미국 독일 일본, 오세영 시인은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시집이 번역 출간됐다. 또 1999년 프랑스에서 <유형의 땅>으로 첫발을 내디딘 소설가 조정래씨는 독일에서 호응을 얻어 올해 신간 <불놀이>를 출간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05 독일 프랑크프루트 국제도서전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문학번역서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문학은 한 민족의 삶과 사상, 역사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문학은 가장 효과적으로 한 집단의 문화를 다른 집단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민족의 삶에 녹아 있는 독특한 불교문화를 담고 있는 불교문학도 외국인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포교 매개체 구실을 한다.

그렇다면 불교 사상과 소재를 다룬 시와 소설 등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문번역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불교문학의 번역 현실은 종교에 상관없이 몇몇 번역가가 여러 종교의 작품을 두루 번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교적인 사상이나 교리 ·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번역하거나 오역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설상가상으로 국가나 종단 차원의 전문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2003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작된 외국인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참가자 수가 16명 정도 밖에 안돼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번역가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은 공신력 없는 민간 기관의 자격증 교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 번역 자격증 제도의 시행을 연구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본격적으로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도 좀더 다양한 불교문학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전문번역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은 11월 11~20일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부산 BEXCO에서 '한국문학을 세계와 함께'라는 주제의 도서전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문학번역원

종단이나 불교출판문화협회 차원에서 인재양성과 함께 고려할 것이 우수 불교문학작품의 선정이다.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와 한국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표작을 선별해야 한다. 현지 수용가능성도 적극 타진해야 한다고 번역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종단 차원에서 우수 불교문학작품들을 선별 · 번역해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교출판문화상이나 저자상을 만들어 작가와 번역자들을 격려하는 등 종단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불교문학이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곽효환 팀장도 번역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번역 · 출판 지원 정책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 집중번역 및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 ▲영어권 번역의 활성화 ▲신진 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보급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 ▲한국문학 번역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전문 행정인력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교리 · 용어 이해 못하는 오역 많아…전문 번역가 양성 절실

종단 차원서 우수 작품 선별 통한 문화 알리기에 앞장 서야

■ 한국불교문학 해외출간 리스트
(대산문화재단 2001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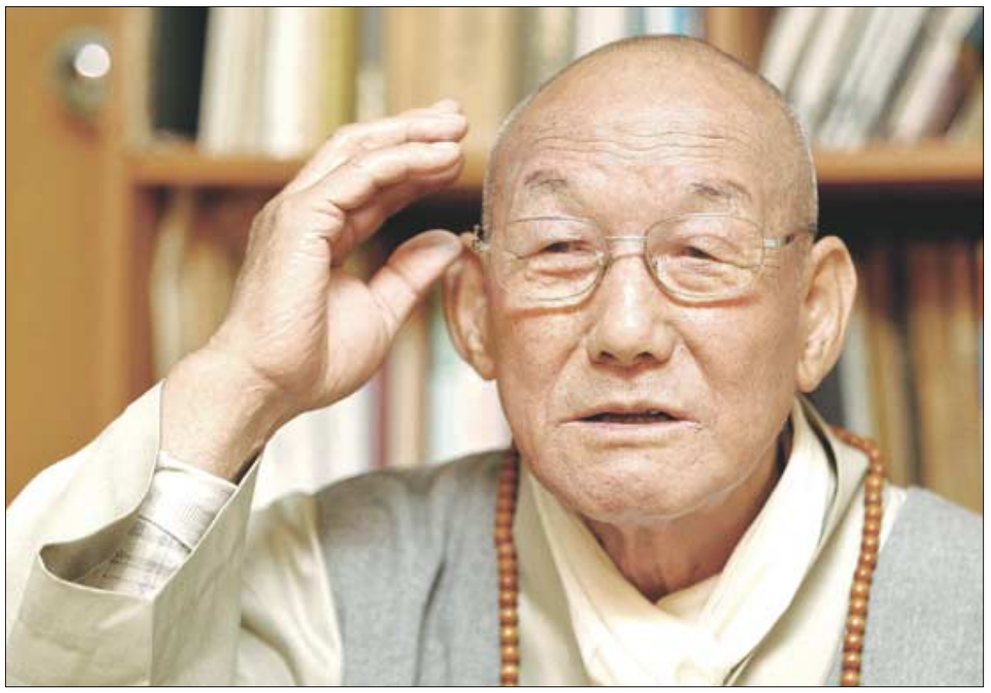
김만중의 <구운몽> 1922년 영국,
1961년 러시아, 1986년 중국, 1992년 체코
<한국시가집>(향가 고려가요 시조 현대시등) 1960년 영국
<한국시가집>(신라 고려 조선 20세기) 1964년 미국
<김지하 시선> 1978년 미국, 1980년 미국,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1980년 미국, 1984년 미국, 1986년 미국,
1996년 프랑스, 연대미상 일본, 1996년 체코
<외국시인 합본시집-서정주> 1981년 미국,
서정주 시선 <동천> 1981 미국,
미당 시선 <안 잊히는 일들> 1986년 미국,
조지훈 등 4인 시선집 <바람과 파도> 1989 미국
미당 서정주 초기시선집 <미당> 1993년 영국
한용운 등 <한국현대시선> 1994년 미국
서정주 시선 <떠돌이의 시> 1987년 프랑스,
1995년 아일랜드, 2000년 스페인
고은 선시집 <자아를 넘어서> 1997년 미국
서정주 초기 시선 <밤이 깊으면> 1998년 미국
<김지하 시선집> 1998년 미국
신경림 김수영 이시영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 2001년 미국
한용운 등 <한국시선> 1972년 프랑스
잡지 <유럽> 85년 10월호
'한국현대시 28인선' (한용운 등) 1985년 프랑스
김성동의 장편소설 <만다라> 1992년 프랑스
조정래 소설집 <유형의 땅> 1999년 프랑스
시계간지 <포에지> 한국시특집호(고은 등) 1999년 프랑스
조정래 <불놀이> 2000년 프랑스
고은 선시집 <이뭣고> 2000년 프랑스
신라 월명대사 등 <한국고전시가집> 1959년 독일
<김지하 작품선>1976년 독일
김지하 시선 <황토> 1983년 독일
신경림 김지하 등 <한국문학선집> 1985년 독일
서정주 시선 <석류> 1988년 독일
고은 등 현대문학사화집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는 목소리> 1989년 오스트리아
한용운 등 현대시선집 <바람과 풀> 1991년 독일
고은 시집 <조국의 별> 1996년 독일, 1989년 일본
한승원 등 한국현대중단편선 <새끼무당> 1998년 독일
오세영 시선집 <먼 그대> 1999년 독일
김지하 등 <한국의 마당극-정치풍자극 7편 선집> 2000년 독일
서정주 시선집 <국화 옆에서> 1988년 스페인
서정주 등 <한국현대시선> 1991년 멕시코
<서정주 시선> 1995년 스페인, 1997년 스페인
오세영 시집 <신의 하늘에도 어둠은 있다> 1997년 멕시코
고은 시선집 <불타는 샘>
고은 선시집 <두들판 경계의 돌> 1999년 멕시코
잡지 <외국문학> 중 김지하 시선 1978년 러시아
<신경림 시집> 1977년 일본
<김지하 시집> 1978년 일본
<미당 시선> 1982년 일본
김지하 신경림 등 <마침내 시인이여>
1984년 일본, 1989년 일본
서정주 등 <한국의 현대문학 V-시> 1991년 일본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 1999년 일본
한용운 등 <한국시선> 1994년 중국
한용운 등 한국현대시선 <내가 돌이 되면> 1996년 체코
한용운 등 <한국현대시선집> 1997년 마케도니아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전국 불교 용품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등) 발냄새 무좀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원목 아메존 사용가능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6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업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banggat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본래면목을 잊어야 본래면목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일우 스님. 스님은 그 방법으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일상사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지상 백고좌

일우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일상을 허덕이게 한다. 지지고 볶고, 세간의 고단한 삶 역시 자신을 옭아매기는 매한가지다. 산중의 출가사문은 그런 불자에게 "수행해라" "놓으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고 놓으란 말인가.

노사(老師)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물었다. '도대체 재가불자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했다. '노동을 선으로 삼으면 노동선(勞動禪)이고, 염불로 여기면 노동염불이다'였다.

11월 11일, 경북 청도 보현사 고불당(古佛堂)에서 세수 79세의 일우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의장)을 뵈었다.

신심은 수행의 모체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면 돼. 비유를 들어볼까. 팔만대장경은 곡식과 같아. 쌀 보리 조 팥 콩 같은 것이 팔만대장경에 다 들어있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쌀이든 콩이든 손에 움켜쥐어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모두 다 손에 쥘 생각은 하지마. 물론 몸에 다 이로운 것들이지만, 하나를 잡아야 해. 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염불을,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간경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사실 백천 가지 모두가 방편문인데,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이 있겠어. 걸어가든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가든 성불이란 목적은 같아. 온갖 곡식은 다양한 불교 수행법이 되는 거고, 근기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안다는 의미지."

이번엔 간화선 수행에 대해 물었다. "신심, 의심, 분심이 간화선 수행에서 중요합니다. 재가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집니까?"

"행복을 구하면서도 행복을 손에 쥘 줄 몰라. 좋은 것을 구하면서도 좋은 것을 찾으려는 방편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야. 행복을 가져오는 방편에는 참선, 염불, 간경, 절 같은 수행법들이 많이 있어. 그 가운데 뭐든지 하나를 잡아야 해. 그래야만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염불이든 참선이든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씩 하루 일과로 잡아야 해. 그렇게 생활화가 되면 신심이 굳건해져. 죽을 때까지 믈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무슨 수행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스님에게 다시 여쭸다.

신심이 수행의 모체

"첫째가 신심이야. 신심이 없으면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되는 것이 없어. 신심을 잘 내려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야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붙어. 실력이 붙지 않으면 잡념이 일어나지. 신심이 굳건하면 수행이 순조롭게 이어져 나가. 신심이 수행의 모체이니, 이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럼, 불교의 핵심이 되는 연기법 수행을 일상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스님은 수행을 잘 하면 인과를 초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말씀이다.

"인과를 해탈해야지, 인과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런데, 심성(心性)이 심상(心相)에 잊고 있어. 심성을 깨닫은 불자는 인과가 진공묘유(眞空妙有)임을 알게 돼. 인연을 받고 안 받을 수 없는 진공묘유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지. 부처 행세를 하면 부처가 되고, 개 행세를 하면 개가 되는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인과법은 이처럼 진공묘유에서 나와. 바로 본심(本心)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본심도 인연도 여읜 자리가 염불삼매요, 참선에서의 의단독로(疑團獨露)야. 넘어서는 것, 인연도 참선도 석가도 조사도 해탈도 모두 다 뛰어넘어서야 하는 거지."

최근 재가불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는 계율수행에 대한 질문도 했다.

"출가든 재가든 계율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승보살계에는 48계목이 있는데, 이것 모두를 지키려면 한걸음도 걸을 수 없을 거야. 걸을 때 발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0>



수능시험에서 풀려난 아이들에게

"가서 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여라."

어머니 야소다라가 이 말만 하지 않았다면 라훌라는 스님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훌라에게 출가생활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형벌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정반왕의 손자, 석가모니부처님의 외아들….

자기 이름 앞에 붙은 이런 수식어만 보더라도 자신이 저 여타의 볼품없는 수행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심하게 반항하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청소년들도 사춘기 시절에는 곱게 자라주지 않는 법인데 저는 라훌라의 그 뾰족한 심보가 십분 이해됩니다.

왕자였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빈 밥그릇을 들고 아침마다 밥을 빌러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자기 앞에서 허리를 굽혔는데 이제는 하루 먼저 출가하였다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사리불 존자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응석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철모르고 반항하던, 엉덩이에 뽈난 송아지 한 마리가 가사를 걸치고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라훌라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후 얼마나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수행을 이어갔던지 그에게는 '밀행(密行)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붙었습니다. 구태를 벗어버린 라훌라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담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숫타니파타>를 보면 부처님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라훌라에게 주고 계십니다.

"라훌라여, 어진 이와 늘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어진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존재이다. 너는 그런 이를 존경하고 있느냐?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일상의 일들은 너무나 자극적이다. 네 자신의 눈과 귀, 코와 혀와 몸을 잘 단속하여라.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시끄러운 곳을 떠나 고요한 곳을 자주 찾아라.

음식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옷이나 음식, 그리고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세상의 일들에 쓸데없는 미련을 품지 말라.

'수험생의 특권'이라는 묵은 먼지 털어내길
그래야 멋진 가르침 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좀처럼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라훌라는 마음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졌고 경전을 보면 이런 라훌라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런 라훌라를, 발을 씻은 대야를 가지고서 일깨워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발 씻은 물이 담겼던 대야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향긋한 밥을 담으려면 대야를 깨끗하게 씻고 또 씻어야 한다."

라훌라는 그런 아버지의 따끔한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내 마음은 결국 더러운 물이 담겼던 대야에 불과했단 말인가. 내 마음이 그렇다면 결국 내 자신도 그런 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나는 이전에는 왕자였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내온 결과 지금 자신이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반왕의 손자는 이제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외아들도 이젠 없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네 몸을 항상 살펴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육체의 포장을 열어서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내용을 잘 살피면 외양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으리라.

네 마음을 나무 타는 원숭이처럼 내버려두지 말고 한 가지 대상에 집중시켜라.

네 마음에 오만이 도사리고 있거든 어서 털어버려라. 오만을 없애면 너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

수험생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의 손에 닿을 즈음이면 그 지옥 같던 대입시험이 끝나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는 신분은 '형벌'이기도 했지만 온갖 인간적인 의무와 도리에서는 '면책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상 위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의 '수험생의 특권'이라는 먼지도 어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털어내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위한 더 멋진 가르침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철부지 왕자님에서 인격이 완성된 한 사람의 멋진 청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찰에서 정통 '중국어' 회화 강좌!!

중국 정통 표준어(북경어의 진수) 중국 통일 언어정책의 선두 기수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출신강사!

중국어를 공부하시려는 분,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
중국에서 발음이 가장 표준어에 가까우며 커리큘럼이 좋기로 유명한 흑룡강성 하얼빈사범대를 아시는가?
이 대학출신들이 전 중국방송계에서 천하의 중국 언어를 표준발음으로 통일 시키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가?
여기, 이 대학 출신으로 20년 교단경험의 강사가 정통 중국어회화 강좌를 펼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열의 있는 성인 수강생만 선착순으로 모집(20명)합니다.

▶ 강좌시작 : 제1기 2005년 12월 5일(월)
3개월 과정 : 매주 (월 · 금요일) 2회
시간대 : 18:30 - 19:30(60분)
▶ 장 소 : 아미타사 (종로 3가, 비원 앞)
▶ 강 사 : 조송자 교수
▶ 수 강 료 : 월 5만원(교재대 포함)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3일(토) 18:00
▶ 문 의 : 아미타사

원어민 전문강사의 전문교재활용으로 중국어 명문교육!!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⑦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151,162,171,172,272,1012,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변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슈퍼 옆 아미타사(☎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산사 033)374-8007, 9007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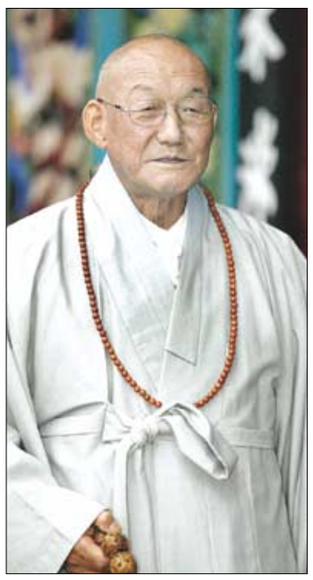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수행' 으로 인과에서 벗어나라



'이해와 인욕' 이 재가불자의 생활실천덕목이라고 말하는 일우 스님.

밑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거지. 계의 근본은 청정 본심으로 돌아가려는 데 있어.

가령 '술을 마시지 말라' 는 계목의 경우,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 방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목이야. 사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야. 계율의 근본은 청정심을 배양하는 거야. 청정심만 길러지면 자연히 계는 완성되는 거지."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계를 지키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계의 근본은 청정심 회복

"삿된 마음을 버려야 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고 생활에 지장이 와. 거짓말을 잘못했다가는 쇠고랑 차고 형무소로 가기 십상이지.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모든 것이 나빠지는 원인이 돼. 청정한 마음, 청정한 계를 지킴으로써 모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불교수행의 고갱이는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일우 스님. 지계행의 의미에 대해 스님에게 다시 물었다.

"지계행이 없으면 청정해질 수 없어. 물이 탁할 때 바람이 불면 안 돼. 바람이 가만히 있어야 흙탕물이 가라앉아 물이 청정해져. 욕심바람, 성내는 바람, 거짓말 바람, 사치 바람 같은 팔풍(八風)은 사람을 유혹하는 나쁜 조건을 만들어 내거든. 유혹이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파도가 돼 흙탕물을 만드는 거지. 계율은 잡념을 잠재우는 도구야. '화경청정지묵(和敬淸淨之默:화합과 공경으로 청정해지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진다)' 은 계율이 모든 행위의 지침이라는 것을 일러주지."

"본래면목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본래면목을 잊어야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어. 본래면목에 집착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평상시심도심(平常心是道心)' 를 얻을 수 있어. 본래면목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아난 존자고 내가 가섭 존자야. 대화하는 그대로가 본래면목인 거지.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은 까닭이 여기에 있어. 본래면목은 가도 옴이 없어."

'진리비동실상이언(眞理非動實相離言:진리는 움직이지 않고, 실상은 말이 없는 말이다)' 이었다. 말 자체는 말이지 진리가 아니기에 말 없는 것이 진리라고 했다.

"돌이 진리요 바위가 진리요 산이 진리야.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꽃이 떨어지는 것도 진리야. 산하대지 모두, 진리 아닌 것이 없어. 법문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자네가 온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전부가 진리야."

"재가불자들이 '평상심시도' 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우치지 말고 살아야 해. 평상심시도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인욕' 을 갖게 하는 힘이 돼. 가정에서는 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힘이 되지.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면, 언제라도 투쟁과 갈등이 생기지. 재가불자들은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 그러면서 생활화 해야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

'두두물물이 법문' 알아야

스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의심이 툭 올라왔다. '그럼 깊이 잠들었을 때, 평상심은 어디에 있을까. 또 잠 잘 때에는 화두든 염불이든 마음자리를 어떻게 챙겨야 할까?'

스님은 본래면목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했다.

"잠 잘 때에도 본래면목은 그 속에 숨어 있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체가 본래면목이야. 본래면목은 이 방안에도 가득 차 있어. 잠 잘 때에도, 죽을 때에도, 자네한테도 , 나한테도 있어. 본래면목은 저 생과 이생에 죽고 사는데 있는 게 아니야. 없는 데가 없이, 이 우주에 꽉 차 있어."

스님과 대화를 나눈 지 두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은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참선과 경전 공부를 함께 하라는 것이었다.

"참선만 하면 마음은 움직이나 말은 제대로 못하게 돼. 또 경전만 읽으면 입은 있으나 마음이 움직이질 않게 돼. '선불심(禪佛心) 교불언(敎佛言)' 이란 말이 있어. '말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말 없다' 는 얘기지. 선은 교를, 교는 선을 아우를 줄 알아야. 이처럼 재가불자들도 일과 수행을 둘로 보면 안 돼. 함께 닦는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

청도/글=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노동선 수행 60년…청도불교 터줏대감

일우 스님은

늦은 오후, 스님은 박스에 감을 연신 담고 있었다. 올 가을 농사지은 감을 신도 30세대에 손수 싸서 보내기 위해서였다. 마치 결혼시킨 자식들 집에 선물을 보내는 아버지처럼, 주섬주섬 감을 싸고 있었다.

그리곤 스님은 곧장 보현사 텃밭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 배추, 고추 등을 손수 심어놓은 밭에서 호미질을 했다. 상좌 혜묵 스님은, "스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지 벌써 60년째"라고 귀띔했다.

일우 스님은 농삿일을 통한 '노동선(勞動禪)' 수행을 강조한다. 스님이 16살에 적천사로 출가한 이후로, 신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온 까닭이 이 때문이다.

스님의 지역불교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청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스님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지역불교계에서는 일우 스님을 '청도불교의 터줏대감' 이라고 부른다. 청도에서 태어났고, 청도에서 1950년부터 살고 있어, '일우 스님이 청도불교의 역사'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우 스님은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43년 적천사에서 동명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동화사 도솔암, 통도사 극락암 등에서 수행했으며, 보현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의회 의원,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을 거쳐 1998년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태고종 원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해공 스님

인생을 축약해 보면 사람의 상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겠고, 따라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인연이요 복인 것을 알겠다. 출세간의 길을 걷는 스님들의 인연법이나 복이라는 것도 세속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모든 소유로부터 벗어나 출가를 했으니,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큰 인연이요 복이다.

그런데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탁마해 줄 수 있는 도반까지 없다면 얼마나 박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좋은 스승이나 도반이 없다고 낙담할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올바른 수행관이 중요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만 있다면 도반을 대신해 탁마를 받게 될 것이고, 선지식을 만날 좋은 인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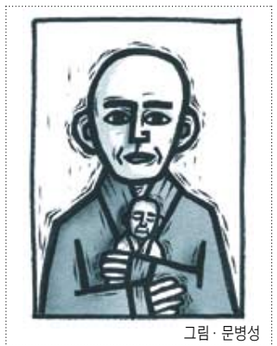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몇 년 전 나는 해공 스님과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다. 젊지만 FM으로 중노릇을 하는 스님이다. 보통 외출을 할때 사중이나 다른 스님의 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해공 스님은 자신을 위해 나왔다 되돌아 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거부하며,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걷는다.

그렇다고 답답한 친구는 아니다. 대중과 쉽게 어울리며, 또 우스개 소리가 나올 때도 선문답하듯 잘 받아 넘겨 대중 화합에 있어서 그저 '만점' 인 그런 스님이다.

당시 대중중에 암에 걸린 스님이 있었다.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에 상당히 전이되어 수술을 포기했는데 항암 치료라도 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한동안 통원치료를 다녔다.

그러나 본인은 암을 제거하고, 수술 경과가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대중은 병자에게 최선을 다하자며 항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녹차를 준비하고, 기공(氣功)을 권했지만, 투병스님의 컨디션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우울해 했었다.

이렇게 모든 대중이 힘들었지만, 투병 스님 옆방에 있던 해공 스님의 수고는 가장 헌신적이고 대단했다.

투병 스님은 항암치료를 받고 후유증이나 진통으로 괴로우면, 그러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굳이 보이고 싶지 않다며 애써 피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간병하는 해공 스님이 몹시 마음 아파했다. 해공 스님은, 항상 병자의 자존심이 상할까 조심스러워했다.

밤에라도 옆방에서 무슨 기척이라도 들리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상태를 묻고 마사지를 해주곤 했다. 법당에서 기도할 때는 하염없이 절을 하며 투병하는 스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부처님께 발원했다. 해공 스님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어느날 새벽, 병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같아 들어가 보니,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앉혀 주었더니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 해공 스님은 "스님, 힘내세요" 위로를 하면서 새벽 내내 마사지를 해주다 어느 덧 잠이 들었단다. 그러다 깨어보니 자신의 품속에서 투병 스님이 입적해 있었다고 한다.

암투병 도반 지극히 간병 늘 타인 배려…신망 두터워

이후, 자신은 생사라는 것이, 한 호흡지간이란 선지식의 말씀이 생생한 화두가 되었고, 더욱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한번은 보살 한분이 찾아와 남편이 빙의로 고생하고 있다며 구병시식을 해달라 하여 해공 스님이 큰 곤욕을 치렀다.

느지막한 시간, 명부전에 시식단을 차려놓고 처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같이 염불을 하는데 2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뒤를 돌러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해괴망칙한 얼굴모습을 보였다. 기분은 좋을리 없지만 구병시식을 중간에 마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처사가 갑자기 시식단에 있는 촛대를 휘두르며 벌떡 일어섰다.

해공 스님도 일어나 처사의 행동을 제지하며, 마치 한판의 씨름판이 벌어지듯 엎치락뒤치락하였다. 나도 뛰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탁으로 처사의 엉덩이를 몇 차례 때리면서 구병시식을 간신히 마쳤던 적이 있었다.

남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해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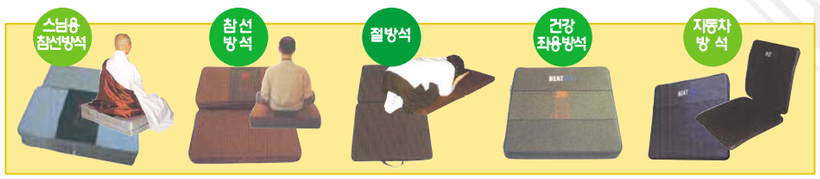
해공 스님의 외모는 부드럽고 심성 또한 어질다. 그러나 구병시식을 할 때 대담하게 대처하는 자세며, 암투병 스님을 위한 성실한 간병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력있는 수행자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남양주 무량사 주지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신화기를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남양주 봉선사와 남양주사암연합회는 봉선사 경내에서 11월 13~18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기간동안 담근 김장김치는 10~20kg들이 쌀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 500여가구에 전달됐다. 사진은 17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왼쪽 두번째)과 남양주사암련 소속 스님, 신도들이 배추에 속을 넣는 모습. 봉선사=고영배 기자

아싹아싹~

김장도 담그고 이웃도 돕고

겨울이 시작될 즈음 동네잔치처럼 이뤄지던 김장. 배추며 파, 무 등을 깨끗이 김치를 담근 뒤, 이웃사람들과 김치포기를 나누었다. 배추를 다듬는 어머니 곁에서 김치 속을 얻어먹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다. 중국산 납김치와 기생충 알 검출 파동까지 더해, 사먹는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우며 가족애를 확인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가족 구성원이 직접 준비하면서 사랑도 더 깊어질 것이다.

곳곳서 열리는 김장축제

●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 '2005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가 11월 19~27일 전주시 교동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사랑의 김장 나눔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가져가거나 선물할 수도 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후 1~3시 풍남헌에서 '전통김장 담그기 시연'이 펼쳐진다.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락원과 양사재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비 3000원을 내고 반포기(1kg)의 김장을 담가 가져갈 수 있다. 유치원 생은 1000원에 500g을 담글 수 있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김치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반포기가 아니라 아예 김장을 다 끝내고 싶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집 김장담그기'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사전에 주문하면 20kg의 김치재료를 준비해줄 뿐 아니라 무, 고들빼기, 파김치 등을 담글 수 있다.

또 동락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김장을 담가 보내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선물하세요' 행사가 마련돼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낼 수 있다. 택배와 포장, 사진 포함해서 5kg에 2만 5000원이다.(063)284-1126

● **실상사 유기농김장축제** 주말동안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김치를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 하룻밤 템플스테이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들려 있을 것이다.

남원 실상사에서는 11월 26~27일 '실상사 유기농김장축제 템플스테이'를 연다. 지리산 자락에서 키워낸 깨끗한 무공해 유기농 배추, 무, 파, 마늘 등으로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첫날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을 갖고, 사찰음식전문가 대안 스님의 '마음의 살까지 빼주는 사찰음식' 강연을 듣는다. 또 깊어가는 가을 밤, 가족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아 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와 먹거리들을 다듬는다.

다음날에는 새벽예불과 춤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 뒤, 전날 미리 준비해둔 양념으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한다.

김장축제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가족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가족당 방배정을 해야하기 때문. 배추 가격은 5kg당 4만원이며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각자 준비해야 한다.(063)636-5399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담근 자비김치'를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12월 2~4일 개최한다.

광주지원은 매년 신도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재료들로 김치를 담가 광주서구청과 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왔다. 올해는 신도회가 해남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1000 포기, 파, 마늘, 무와 나주 공산 토굴에서 기른 고추 등으로 김치를 담근다. 2일~4일 매일 아침 10시 예불을 보고 대중이 모두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기 시작하며 행사기간 동안에는 점심과 저녁이 제공된다.



광주지원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앞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합창제 '공심공체 둘아닌 노래'를 11월 27일 오후 3시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 민주홀에서 열 예정이다. 합창제 수익금은 김장김치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062)373-8801~3

● **'여주 팜스테이마을' 김장김치 담그기** 서울에서 1시간 반 남짓 떨어진 여주 팜스테이마을은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여주 팜스테이마을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김장을 담그고자 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1인당 2만원이며 양념김치 한 포기에 1만원이 추가된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여주 팜스테이마을 사이트(farmstay.invil.org)로 문의하면 된다. 010-3158-8901

이밖에도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오후 5시 평택 수도사에서 **전통사찰김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김치는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와 고기, 젓갈,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내고 건강에 좋다.

이번 작품전시회에는 콩잎김치, 깻잎김치, 갓김치, 씀바귀김치, 고추잎석박지김치, 죽순김치 등 총 30여점의 전통사찰김치와 사찰김치를 응용한 김치오색전병말이, 김치잎군만두 등의 별미요리 10여점이 전시된다. 또 행사장에서는 사찰두부, 인절미 등을 만들거나 숯불에 고구마를 구워 김치와 함께 먹는 시식행사가 열린다.(031)682-3169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이영화 어때요?

시골노총각의 우여곡절 맞선여행

나의 결혼원정기 감독: 황병국 출연: 수애, 정재영, 유준상 장르: 휴먼 드라마 상영시간: 120분 등급: 12세 이상

농촌을 소재로 하면 뜬다? 동시대의 농촌풍경을 그린 드라마 '전원일기'는 저녁 시간 온 가족을 안방으로 모이게 했고 순박한 농촌총각의 사랑을 노래한 영화 '너는 내 운명' 또한 영화팬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런 대세의 바통을 이은 '나의 결혼원정기'는 시골노총각들의 우즈베키스탄 맞선여행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는 국제결혼이라는 소재를 살아있는 에피소드와 흥미로운 캐릭터로 그려낸다.

서른여덟이 되도록 여자 한번 변변히 사귀어 보지 못한 노총각 농사꾼 만택과 바람둥이처럼 굴지만 첫사랑의 아픔을 가진 친구 희철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난다.

희철은 능수능란하게 여자들에게 다가가지만 만택은 여자 얼굴도 마주보기 힘들다. 만택은 서서히 통역을 맡은 라라(수애 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라라 또한 순수한 만택이 마음에 들지만 탈북자라는 처지로 마음을 열지 못한다.



맞선 행사가 현지에서 분란을 일으키자 한국정부는 '참가자들 모두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택과 라라의 기약 없는 이별은 시작되는데….

낯선 문화와 언어장벽을 감수하고 국제결혼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 맞선 여행을 떠난 두 남자의 사연을 영화적 웃음과 감동으로 치부하기엔 여전히 2% 부족하지 않을까.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동방대학원대학 수강생 모집 서울 동방대학원대학은 서화문예학과, 불교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1년부터 4년과정까지 있다. (02)745-2141

대불어 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1월 26일~27일 김천 경북청소년수련관에서 '초발심으로 다시 서는 어린이 포교' 어린이 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또 주5일제 수업에 맞춘 사찰포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051)864-4569

'아자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대한가족생활놀이연구소 '아자학교'에서는 사회통합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11월 27일 청성면 산계뜰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제6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당일 행사에는 친환경유기농쌀로 만든 떡과 술, 떡국이 제공된다.(050)5924-6007



비로자나 스키캠프 진각종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2006년 1월 2일~4일까지 현대 성우 리조트에서 '하얀마음 하얀세상' 스키캠프를 개최한다(사진). 종단 지방교구 및 지부 심인당 중고등학교 청소년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심인당 주교의 추천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참가비 14만원.(02)942-0635~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남	가	일	몽			
대			산	수	화	
문	수		법		기	밀
	불		어			린
	부					다
	촉	지	인		루	팡
			파	고		하

전시

고승진영과 함께 하는 벽화 등불

무형문화재 단청 전수조교 양선희씨 개인전



양선희 作 '지눌 스님'.

'고려불화를 보는듯 하지만 고려불화도 조선불화도 아닌 것' '무거우면서도 밝은 것'. 11월 23~29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 전수조교 양선희씨의 작품은 이렇게 묘사된다.

양씨의 두 번째 개인전 '고승 진영과 함께 하는 벽화 등불전'에는 원효 의상 지눌 보우 사명 스님 등 큰스님들의 진영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여래도 수유부처도 봉황나무 등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전통은 아니다. 전통을 빌려 작가는 부처님과 고승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통의 틀 속에서 현대적인 색채 감각을 표현해 냈다. 배경도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문양도안을 사용해 그렸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전통과 현대의 두 극단적인 요소의 조화는 작가의 염원을 표현하고 대중의 바람을 담아내 위로해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양선희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과 삶을 조화시키려는 더 나아가 조화의 이상적인 모델을 불교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 자체"라고 평했다.

한편, 전시에 참여하는 관객들이 직접 염원을 담아 등불에 채색을 해 벽화를 완성해 가는 작업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02)733-5322 강지연 기자

공연

능인 스님 음성공양 心香

11월 27일 종묘 국악정



10월 15일 종묘 국악정에서 개최한 '心香' 3번째 공연.

서울 행복사 능인 스님이 11월 27일 대중과 함께 어울림 공연마당을 펼친다.

서울 종묘 국악정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향기-心香(심향)'의 4번째 공연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대중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어 웃으면서 삽시다'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대중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스님은 '그리운 어머니' '방생을 합시다' 등으로 음성공양할 계획이다.

능인 스님은 "앞으로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대중으로 위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018-202-1748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1일 14:05 낭만라디오
22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3일 10:05 BBS신행상담실
24일 09:05 행복한 미소
25일 21:05 영화음악실
26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7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1일 21:10 한국의 명찰
22일 02:40 불교TV스페셜
23일 15:50 열린마당
24일 19:30 TV법회
25일 08:20 산중대담
26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27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24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국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티베트·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26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수공예 조각 죽비

선원에서 참선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대중의 선을 지도할 때, 스님들의 공양 때에 쓰이는 죽비. 통대나무의 두 쪽을 갈라서 손바닥으로 치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죽비는 수행자들이 지도할 때 사용하는 법구다.

이번에 소개하는 죽비는 최고급 살구나무로 제작된 수공예 조각 죽비다. 대, 중, 소 세가지 크기가 있으며 몸체에는 옴자와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특히 75cm 길이의 대형 죽비 손잡이 부분은 용무늬가 조각돼있어 품격을 더한다. 가격은 16만원. (02)732-1520

불교는 내 인생의 동력

남열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처님 가르침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현실이다. 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처자식 부부 등으로 형성되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준점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역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바꾸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도 숙명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긴다. 만약 불교가 내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면, 스님들의 법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도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초하루와 사월 초파일 사찰에 다녔다. 그때는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색등이 너무 아름답고 목탁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는 재미로 따라다녔다.

평소에 건성으로 불교를 대하고 접하던 어느 날 고요한 사찰에서 무심코 절을 하던 중 스님의 목탁소리와 독경 소리에 내 몸과 마음에 전율이 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문제로 상경해 서울에서 성동강철회사에 다니면서 제대하고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잘 살았고 일요일이면 부천 석왕사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이후 직원 몇 명을 거느리는 자그마한 개인 사업도 하게 됐고 아이들도 말썽없이 단란하게 살았다.

그러다 10여 년 전 내 나이 45세때 큰 시련을 맞았다. 그때까지도 처자식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희망이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소박하지만 행복했다. 그런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 한 번의 부도에 완전히 빈손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친한 친구의 빚보증을 잘 못 서는 바람에 살던 집도 경매로 날아가게 됐다.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자 온 세상이 끝인 것만 같았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행복하게 보였다. 정말 이런 시련에 빠져보지 않고는 이 서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 실패 후 주야로 독경하며 마음 다져
업장 녹이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성공
이 모든 고통은 지혜 얻는 과정 깨달아

게다가 완전 맨손이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주위 친지에게조차도 나는 내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망망대해에서 한 조각 의지할 곳은 오직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계가 조실 고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으며 석왕사 유마회 간부로 활동하며 큰스님 법문에 의지해 내 마음 하나 다잡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도 미약한 존재임을 뼈로 가슴으로 새기고 또 새겼다.

매일 저녁 <금강경>을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월세방에 혼자 살 때도 매일 <금강경>을 주야로 독경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일심(一心)으로 기도했다.

"그래! 빈손으로 왔는데 얻을 게 무엇이고 남을 게 무엇인가?"

큰스님 법문에 태산이 무너져도 마음만 다잡으면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나는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해 겨울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춥고 배고픔을 실감했다.

내 일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세상 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질 때 불교를 믿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싶다. 살얼음을 밟는 듯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위대함과 스님의 큰 가르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불교는 허물을 감추는 새옷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실천을 말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처음 겪어보는 이 큰 어려움을, 내 두터운 업장을 녹이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이겨내고자 했다. 마음을 다잡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앗!'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처럼 온몸을 다 바쳐 영업을 시작했다.

닥치는대로 뛰고 뛰던 중에 새로운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났고 열심히 일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니 이제는 집도 마련하고 조그만 사업도 하게 됐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도 함께 지내게 됐다.

나는 감히 말한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깊은 불구덩이에 빠져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부족한 내가 신행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삼독심 중에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우치(愚癡) 즉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요 지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번뇌의 기운을 끊을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망상을 다스려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물 중에는 어리석음보다 촘촘한 그물이 없다고 한다. 냄새 맡는 것은 코에 속기 쉽고 먹는 것은 입에 속기 쉽고 소리 듣는 것은 귀에 속기 쉽기에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속고도 속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나의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잘 다스려 지혜와 선정으로 마음을 밝게 해 참된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

또한 시간나는 대로 꾸준히 <금강경> <화엄경>을 염불하고 아침마다 독경을 하며 지혜와 자비를 방편으로 삼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장드린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증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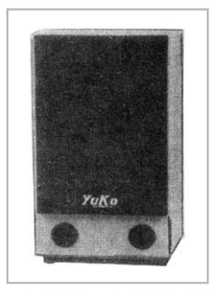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겸,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겉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북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타이완 차 문화 답사
2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①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③ 타이완 차문화에서 배운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안전성' 확보



타이완 난토우 지역의 리산에 자리잡은 연합다원의 차 공장. 이곳은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인증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차 생산과정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완 오룡차는 연간 2,20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10% 정도만 타이완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고품질의 차로 세계 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를 살피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난토우(南投) 지역의 리산(梨山)이다. 최근 국내에도 적지 않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리산차는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간직하고 있어 차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해발 1700m에 자리 잡고 있는 대만연합다업유한공사(台灣聯合茶業有限公司)의 '연합다원(聯合茶園)'은 리산 지역의 다원을 직 · 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다창(茶倉)이다.

발효도 20% 전후의 경발효차를 주로 생산하는 이곳은 차 자체의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차의 안전성 확보는 세계 차 시장 진출의 초석이다.



'자연지미 다업유한공사'는 2006년까지 아시아 차 시장을 개척 ·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차계 역시 타이완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작업장 환경, 생산 전 과정 꼼꼼히 기록
국제규격 ISO에 따른 철저한 위생 관리
기술력 앞세운 차기업들 세계 석권 노려

다창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곳곳에 붙어 있는 위생 기준표와 안내 문구다. 시간 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청결도 등을 체크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다원에서 채취한 찻잎이 다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은 꼼꼼히 일지로 기록된다. 찻잎을 딴 다원의 이름과 무게 뿐 아니라 햇볕이나 실내에서 널어 말리는 과정인 위조와 찻잎 속의 효소 작용을 막는 살청, 찻잎에 생채기를 내는 유념 등의 각 과정 틈틈이 찻잎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날의 기록과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또 하나, 연합다원 다창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으니 바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이다. 이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해씁(HACCP) 인증에 따른 것으로, 연합다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 9001:2000 관리 체계 인증을 받는 한편, 해씁(HACCP) 인증까지 받아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을 쌓았다. 특히 '안전성(safety)'을 우선으로 하는 유럽과 일본의 차 시장을 겨냥해 농약 잔류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6개 나라에서는 1000만 타이완 달러의 생산의 무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ISO 9001은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것으로, 기업의 품질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씁(HACCP)은 위해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이라는 단어의 머리글자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할 수 있다. 즉, 해씁(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인 것이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는 대만연합다업유한공사는 1996년 설립된 이래, 2002년 전 세계 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증자를 하고 '자연지미다업유한공사(Natural Flavor Tea Co., Ltd)'라는 자회사를 발족하기도 했다. '자연지미'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일본 한국 등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확대를 발판으로 2015년에는 상장회사로 키워 세계 차 시장을 석권한다는 거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연지미' 대표이자 대만성다상업동업공회연합회(台灣省茶商業同業公會聯合會) 이사장인 여지강 대표는 "타이완은 비록 국토는 작지만 제다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엄격한 생산관리와 제다 · 품평 기술 발전, 기술공유를 통해 타이완 차를 세계 제일의 차로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연지미뿐 아니라 타이완 내에 60여개 점포망을 갖추고 있는 다상(茶商)인 천인 · 천복그룹 등도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차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타이완 차의 발전이 그야말로 괄목상대할만 하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차 행사인 국제차엽품평대회가 타이완에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해 타이완 차문화가 세계 차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사진/타이완=여수령 기자

中 예위칭촨 '공부차' 펴내
오룡차 종류, 바른 포차법 소개



우리가 흔히 '오룡차(烏龍茶)' '우롱차'로 부르는 것은 반 발효차를 일컫는 말로, 중국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그리고 타이완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러한 오룡차를 즐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양이 요구된다하여 이를 '공부차(工夫茶)'라 부르기도 한다.

<다서집성> <보이차심원> 등의 책을 펴내며 차문화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위칭촨이 최선 선보인 <공부차>(한솜미디어 刊)는 오룡차의 정의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유명한 오룡차의 종류와 특징, 올바른 포차법(泡茶法) 등을 소개하는 책이다.

특히 지은이는 '공부차'의 표기법이 '工夫'인지 '功夫'인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 <관화휘해편람>과 <속다경> <접계외사> 등의 고전을 예로 들며 '工夫'가 맞는 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차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송(北宋)설과 청나라 함풍(咸豊)년간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출발지가 푸젠 지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 차문화의 기원과 전개 등을 두루 살피고 있어 차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값 1만3천원

조선시대 ㉖



개화기 맞으며 파티 형태의 다화회 생겨
정부, 차 장려책으로 <농정신편> 배포

우리 차의 전통은 사찰과 궁중의 다례(茶禮)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의 문물과 함께 다속(茶俗)이 소개됐다. 우리의 전통적인 다풍(茶風)에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럿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새로 생긴 다화회(茶話會)는 사람수도 많을 뿐 아니라 간단한 파티 형태의 모임이었다. 다화회는 일종의 당대 문화의 첨단 유행이었다. 정부에서는 차 장려책으로 1885년 <농정신편>을 배포하기도 했다.

중국은 차에 관한 서적도 계속 출간됐고 차산업의 근대화에 대한 열의가 짙게 보인다. 일본의 차는 퇴조하는 가운데 기계가 도입되었고 차에 관한 홍보도 진행된다.

① 김범부(1897~1966): 불교철학에 심취한 차인으로 시를 잘 지었다.

② 최익현(1833~1906): 상소 중에 외국에서 들여온 차나 과일을 왕이 들지 않도록 하는 대목이 있다.

③ <해동죽지>에 최영년의 글에 장성의 죽로차가 맛과 향이 좋다는 기록이 있다.

④ 경운당에서 열린 명현태후 망팔(望八) 행사를 기록한 진연의궤가 있다. 또 이 해부터 내의원에서 관장하던 차를 태의원으로 옮겼다.

⑤ 장지연이 정약용의 <강역고>를 증보(增補)한 책이다.

⑥ 차를 파는 집이 더러 있어서 외국인들이 사서 마셨다. 독일인 분쉬 박사는 당시 찻값을 6전이라 했다.

⑦ 안종수(安宗洙)가 쓴 농서로 차에 관한 기술이 많이 실려 있다. 청(淸)나라 호병추의 <다무첨재(茶務僉裁)>를 옮겨 적은 것이다.

⑧ 각부 대신들이 용산 인쇄국에서 다화회를 열었다.

⑨ 여주 여흥학교(驪興學校) 개교식에서 다례를 거행했다.

⑩ 차 마시는 얘기가 나온다.

⑪ 내각과 중추원 고문들이 4월 24일 처음 합동 다화회를 민병석의 집에서 열었다. 1909년에는 이준용이 용산 이지용의 강정(江亭)에서 다화회를 가지는 등 상류사회에 다화회가 유행했다.

⑫ 살영액이 쓴 책으로 우리 백산차(白山茶)를 소개했다. 청의 건륭황제는 백산차를 공물로 요구하기도 했다.

⑬ 하윤생: 무원차에 관한 자세한 분류와 그에 따른 세금의 부과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⑭ 중국 역대의 중요한 다서를 합해서 간행한 책.

⑮ <다설>을 찬술해 자기 세계를 구현했다.

⑯ <무군농산고략(撫郡農産考略)>에서 차종, 지리 등에 관해 썼다.

⑰ 서세창(1855~1939): 차를 좋아해 다시를 많이 남겼다.

시세결(1858~1923): 대만의 차인으로 최초로 '공부차(工夫茶)'를 즐긴 사람이다.

⑱ 강창각삼(岡倉覺三)이 미국에서 쓴 차에 관한 책으로 차의 정신에 대해 피력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97 김범부(金凡父)의 출생 ① 1898 최익현(崔益鉉)의 상소 ② @ <해동죽지(海東竹枝)> ③ 1900 별다례(別茶禮)–경효전(景孝殿) 1901 진연의궤 ④ 1903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⑤ @ 찻집 ⑥ 1905 <농정신편(農政新編)> 배포 ⑦ 1906 다화회를 열다 ⑧ 다례 거행 ⑨ 〈구례칠의각기(求禮七義閣記)〉 ⑩ 1908 다화회 ⑪ @다화회 성행	청대	1895 <길림외기(吉林外記)> ⑫ 1896 하윤생(何潤生)의 활동 ⑬ 1897 <서합(書合)> ⑭ @ <다설(茶說)> ⑮ 1903 하강덕(何剛德) ⑯ 1905 수뇌인물들이 인도와 국내 차산지 시찰 @서세창(徐世昌) 시사결(施士潔) ⑰	강호시대	1897 유념기 발명 1907 <차의 책(The Book of Tea)> ⑱ 1908 다도월보(茶道月報)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사진 · 하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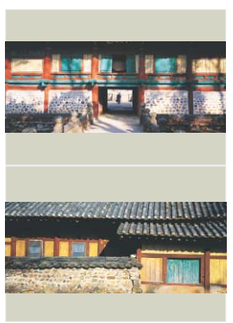
탑
크기 | 30.5cm×30.5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500원



2006 CALENDAR
불기 2550년 | 단기 4339년 | 丙戌年

부수 / 달력명	100~500부	501~1000부	1000부이상
탑	1,800원	1,700원	1,600원
색	1,600원	1,500원	1,400원

주문대상 : 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 문 처 : 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 : 02)420 – 3200
팩시전화 : 02)420 – 3400
다량 주문은 다음과 같은할인혜택과 함께 달력 하단에 사찰 및 단체의 홍보 문구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색



사진 · 이겸
크기 | 30.5cm×22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000원

월간 불광 · 불광문화사업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http://www.bulkwang.or.kr E – mail webmaster@bulkwang.or.kr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해야!

아침 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나지만 우리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실감나죠.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일종의,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작용을 쉴 사이 없이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날은 생각지 않죠.

요새 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해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천차만별의 사생들,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천차만별의 사생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어인가, 은어인가? 하여튼 왜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는,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먹히고 먹고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알아도 그것은 아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 · 현재 · 미래를 한 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도력이 어디서 생기나. 마음이 폭넓고, 폭넓은 그 무리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어느 부부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리고 몸을 빌려서 형성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뚱이를 불들어매서 진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해 드리는 말이,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선지식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길을 딛지 말고, 남이 짜 준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남의 물을 먹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지어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 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량이구나!' 하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걸 말로 꼬집어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썼지만 지금 시점에는 정신계의 축지법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느냐, 정신을 뺏기느냐 하는 문제들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것을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관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부부의 몸을 불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들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불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펠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서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쉽지가 않고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 불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으면 자기 차원대로, 아니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기계에 넣고선 굴러 떨어지게 합디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놓고 팝디다.

그러니 천차만별의 그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사랑을 하다가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순간에 악업이 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것이 습성으로 돼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모두 살아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놔라, 제 나무는 제 나무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모두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뿌리 남의 나무를 믿고 잘살게 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그건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죠.

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하나로 묶여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같이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해결이 돼요. 모이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근본으로 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해서 모두 보폴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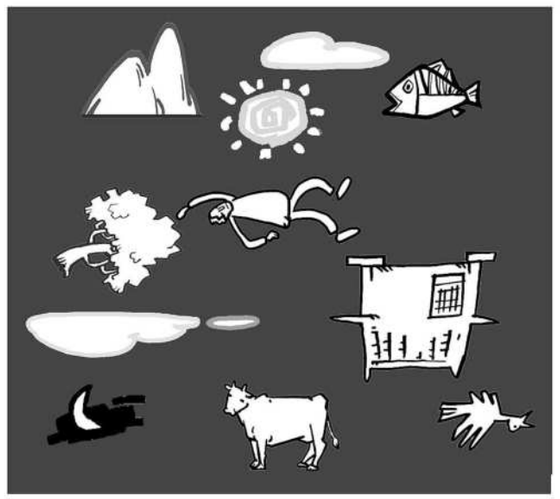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배라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중생들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선장의 마음을 따르게끔 돼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마음의 선장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과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어휴! 저놈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 안에서도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냥 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두고 보자.' 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는데, 나쁘게 조절하느냐, 평화스럽고 아주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으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놓아야죠. 그러면 통신이 돼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해 주거든요. 오늘은 요런 자세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놓으세요.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잘못돼 돌아갈 기미가 보인다든가,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든가, 또는 적대시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기미를 알게 되면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들과 들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신호를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한데, 대뇌를 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요. 결정을 짓게 되면 하달이 돼요. 사대로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업식의 굴레에서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아주 기정사실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 세균성 · 윤회성 · 업보성 · 인과성 이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 있어요. 부인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있는 거니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묘한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모두 종합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게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 없앨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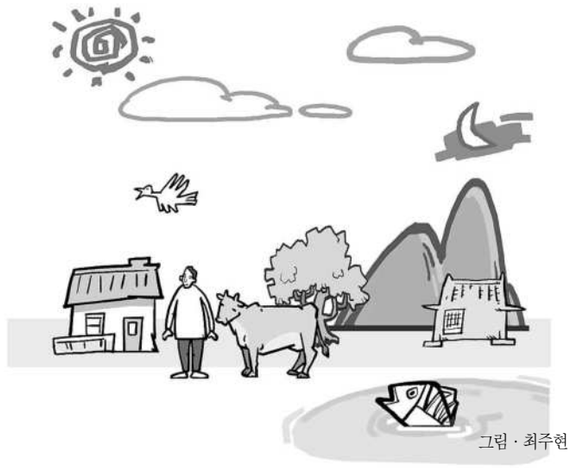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과 밖으로 다 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든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고,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 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 것이라고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 놨다 하면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그렇지만, 더불어 내 거다, 더불어 한마음의 거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고요.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거라고 그런다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이놈의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오늘은요,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들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다 보면 세세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전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하고 있죠. 참, 그것도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게끔,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건 누가 대신 해 줄 수가 없어요. 집 안에 들

☞30면으로 계속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가져야

☞29면에서 계속

어가서도 말 못할 일이 생기고,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다 그렇지요. 혼자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 새겨야 하고, 혼자 참아야 하는 일들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야죠.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건,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 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고,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자1: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견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달마 조사 『혈맥론(血脈論)』에 의하면, 부처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또 경을 외우거나 계를 지켜도 별로 이익이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을 외우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고, 보시를 하면 우리가 복된 과보를 받되 부처는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모양도 빛깔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인이 마음이고, 또 저를 지금까지 형성시켜 온 것이 그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잘 알면 성불을 오히려 못하죠. 잘 아는 것이 앞을 막아서요. 또 몰라도 안 되고요.

▲질문자1: 글쎄, 아리송해서요.

▲스님: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움쭉거리게 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과거 자기는 '부(父)'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형성된 자기는 '자(子)'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가 저절로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가 부로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와서 하나가 되니 부다 자다 할 것도 없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경을 보든 안 보든, 즉 말하자면 경을 보면 '아, 이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로가 되죠. 따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삼천 년 전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든 현재에 말씀하신 거든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는가. 그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형성시킨 자기란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그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근본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작용하는 일체를 나오는 자리에다가 되맡겨 놓으면, 바로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맡겨 놓으면 과거의 입력이 없어지고 새 물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이 되죠.

▲질문자1: 스님! 두 번째로,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느낀 점과 체험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지가 5년 되거든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스님 법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참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냥 음란한 생각도 나고 어리석은 마음도 나오고 이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공부는 제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점점 적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한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아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만 몇 번 갔지, 몸이 아프거나 그래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엉덩이에 밤알만한 종기가 10개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구나.' 하고서 밀어붙였어요. '주인공!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낫게 해야지.'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요. 그전 같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마이신을 맞는다, 뭐 한다 난리를 쳤을 텐데 그 자리에다 맡겨 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종기가 그렇게 크면서도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0여 일이 지나더니 그냥 스스로 나았거든요. 그 뒤로는 몸이 어디 좀 아프거나 하면 그냥 주인공 자리에다가 맡기면 스스로 낫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좋다는 것을 저는 아주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습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가끔 삼독심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는 혼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5년 동안 네가 뭘 공부했느냐?' 이런 자책감도 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 자리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 그때하고 지금의 너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제 몸을 밝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법을 제가 누구 말대로 쉽게, 소 고삐를 올바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습성이 발광을 하고 나올 때에 왜 거슬립니까? 비죽이 한번 웃어 보세요. '허! 너….' 하고 그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 그냥 웃어 버릴 수가 있고 또 '나는 그렇게 해도 속지 않아!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습성들은 화하고 변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자꾸 들러붙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꾸 건이 생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팥죽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팥죽 솥에 팥죽이 끓는데 방울 방울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지. 그러니까 '죽방울은 그 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질문자1: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스님: 예를 들어서 아주 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놈이 일거일동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나는 모든 중생들을 커버하면서 이끌어 가는 어떠한 회사의 중역일 뿐입니다. 그 회사의 건은 그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중역이 이끌어 가는 소임을 맡았다고 그래서 회사 전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 묘법이라는 게 홱 돌아서 바로 구정물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한생각이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다 10년이다, 또는 1년이다 몇 달이다 이런 생각도 말고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욕심을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됩니다.

▲질문자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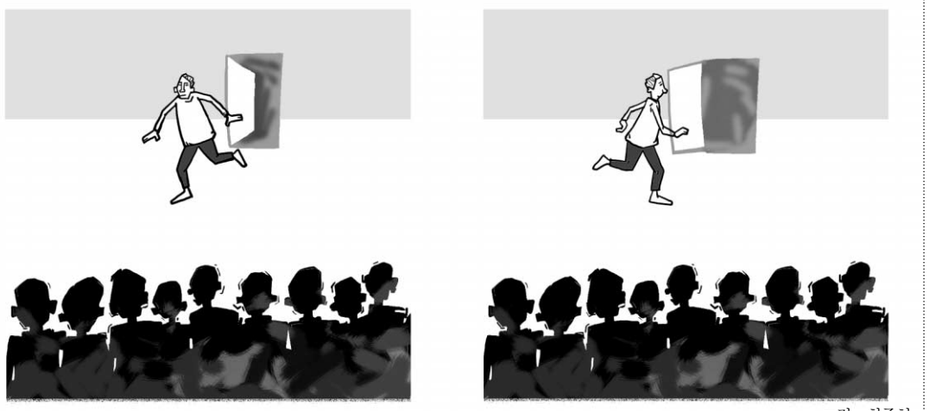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생겼고 업식이 있는 것이니 모든 것을 내탓으로 돌려라!

동희스님 (동희범음회)
범음 특강 공고

모집과목	시 간	강 사
짓소리반	목 14:00-16:00	동희스님 덕림스님
안채비반	금 14:00-16:00	동희스님 선각스님
작 법 반	토 14:00-16:00	동희스님 진성스님

◆접 수 :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413-14 (자인사)
☎ 02)921-0973. 017-396-1644
◆약 도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6번출구 아리랑 고개방향 (도보로 5분 거리) 나운규기념공원 옆 4층 (염불원)

개강 12월 1일(목) 짓소리반 13:00
12월 2일(금) 안채비반 13:00
12월 3일(토) 작 법 반 13:00

제4기 영남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는 영남 범음 · 범패에 뜻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및 축원 송주 등.
● 중급과정 : 신중작법 ,대령관욕, 각단 청, 상주권공, 각종 시식, 다비식,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 바라 작법, 승무 작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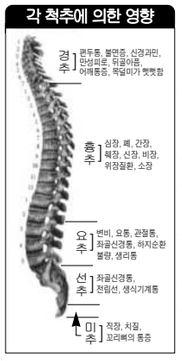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수시접수함.
제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 매주 월 · 목(오후 3시)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 사찰 창건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교육원 위치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수련일시 : 2005년 11월 22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능이 당상이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육품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 토 침 대 (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쇼핑만 하나 신심도 쌓지

올 겨울 백화점서 불교문화 만나세요

'영어로 읽는 금강경' '불화그리기' '다도'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속 개강

백화점에서는 쇼핑만 할까?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명백화점들이 올 겨울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불교문화의 세계로 주부들을 유혹하고 나섰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쇼핑과 불교문화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다가오는 겨울, 집안의 월동준비는 김장으로, 지식의 월동준비는 문화센터 수강으로 준비하자.

백화점별 불교문화 강좌들

백화점		강좌	강사	시간	날짜
롯데백화점	본점 (02-726-4151~3)	불교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철학적 사유	조성택 (고대 철학과 교수)	금 13:20~14:40 10회	12월 1일~ 2006년 2월 26일
		영어로 읽는 금강경	조성택	금 14:50~16:10 10회	
		한국전통건축의 역사와 문화	이강근(경주대 문화재과 교수)	금 11:30~12:50 12회	
		한국의 전통 조각사 한눈에 파악하기	문명대(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금 10:00~11:20 12회	
		한국의 전통공예	김삼대자(홍대 목조형가구학과 초빙교수)/이송희(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장경희(한서대 교수)	화 13:10~14:30 9회	
		현대인을 위한 문학과 사회(종교문학론)	임헌영(문학평론가)	화 15:20~16:30/수 19:50~21:00 10회	
		겨울을 녹이는 향기로운 '차'의 세계	이연자(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다예 출강)	목 11:10~12:30 10회	
		Tea Art(동양권 차문화)	이현숙(경기 명원 차문화원장)	11:30~12:30 3회	11월 25 · 26 · 30일
현대백화점	본점 (02-3449-5502)	만다라화-천위에 채색하기	김은하(21C 홍익미술학원장)	일 13:00~14:30 1회	11월 27일
		하타요가와 명상	양선리(크리야요가센타부원장)	화 16:00~17:00 1회	11월 29일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기독교와 불교 문학	임헌영(문학평론가)	금 10:00~11:20 12회	12월 2일~2006년 2월 17일
		가보고 싶은 세계의 유명박물관	성혜영('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의 저자)	수 11:40~12:40 6회	12월 7일~2006년 1월 11일
		우리나라 최고 티전문가와 함께 홍차왕자 만나기	공은숙	수/토 11:40~13:00 2회	2006년 1월4~11일, 2월 4~11일
		중국 한시와 중국 문학	허세욱(前 고려대 교수)	수 10:00~11:20 10회	12월 7일~2006년 2월 22일
	무역센터점 (02-3467-6682)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기독교와 불교 문학	임헌영(문학평론가)	수 10:00~11:20 12회	12월 2일~2006년 2월 17일
		가보고 싶은 세계의 유명박물관	성혜영('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의 저자)	목 14:40~16:10 6회	2006년 1월 5일~2월 9일
		아름다운 중국의 시와 산문	허세욱(前 고려대 교수)	수 14:00~15:20 10회	12월 7일~2006년 2월 22일
	목동점 (02-2163-1800)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기독교와 불교 문학	임헌영(문학평론가)	월 10:00~11:20 12회	12월 5일~2006년 2월 20일
		가보고 싶은 세계의 유명박물관	성혜영('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의 저자)	수 15:00~16:20 6회	12월 7일~2006년 1월 11일
	미아점 (02-2117-1903)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기독교와 불교 문학	임헌영(문학평론가)	화 10:00~11:20 12회	12월 6일~2006년 2월 21일
		가보고 싶은 세계의 유명박물관	성혜영('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의 저자)	수 15:00~16:20 6회	12월 7일~2006년 1월 11일
	천호점 (02-2225-8810)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기독교와 불교 문학	임헌영(문학평론가)	목 10:00~11:20 12회	12월 1일~2006년 2월 16일
		가보고 싶은 세계의 유명박물관	성혜영('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의 저자)	금 14:10~15:20 4회	12월 1~30일
	신촌점 (02-3145-3386)	차, 그 깊은 맛의 세계	이연자(다도강사)	목 14:00~15:20 11회	12월 1일 ~2월 16일
	중동점 (032-623-3300)	Tea Art & Tea Party	이현숙(경기명연다례원장)	화 10:00~11:20 12회	12월 6일~2006년 2월 21일
	부산점 (051-667-0870-2)	차 한 잔의 여유-다도	최영숙((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	수 10:00~11:20 12회	12월 7일~2006년 2월 22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최창덕의 승무 최 창 덕 (이매방 전통춤보존회장)		월 13:40~15:10 11회	12월 5일~2006년 2월 20일
		하늘물빛 천연염색	홍선표(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연구소장)	월 15:30~17:00 12회	
	강남점	젠 로맨틱 홈패션	박규정(홈패션 디자이너)	금 10:40~12:00 12회	12월 2일~2006년 2월 17일
		인간문화재 김기종의 전통음악	김기종(민족사관고 음악교사)	일 14:30~15:30 1회	2006년 1월 15일
삼성플라자	(031-779-3810)	멋과 향이 있는 다도이야기	성기안(효애실천운동본부 경기도지부 인성교육원장)	화 15:10~16:40 6회	12월 6~2006년 1월 10일
갤러리아 백화점	대전 타임월드 (042-480-5955)	불화그리기	원욱 스님(불화그리기연구소)	목 15:00~17:00 12회	12월 1일~2006년 2월 27일
뉴코아아울렛	야탑점	차와 명상	김태연(차 전문가)	월 13:10~14:10 12회	12월 1일~2006년 2월 28일
		차와 명상-차 한 잔의 여유로움	박경자(차 전문강사)	월 18:30~19:30 12회	12월 2일 28일

롯데백화점 본점은 1979년 개점 후 처음으로 문화센터 그랜드를 12월 오픈한다. 국내 백화점 문화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인 400평에, 건강 자격증 요가 댄스 재테크 예술 문화 등 630여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그랜드 오픈 축하를 위해 롯데백화점 본점은 불교의 사상과 서정을 노래해온 고은 정호승 시인 등이 참석하는 '개원축하 시낭송회'(12월 8일, 롯데시네마 에비뉴엘관)를 마련했다. 시낭송과 함께 성악가의 시노래, 퍼포먼스, 마임, 시극 등 다채로운 축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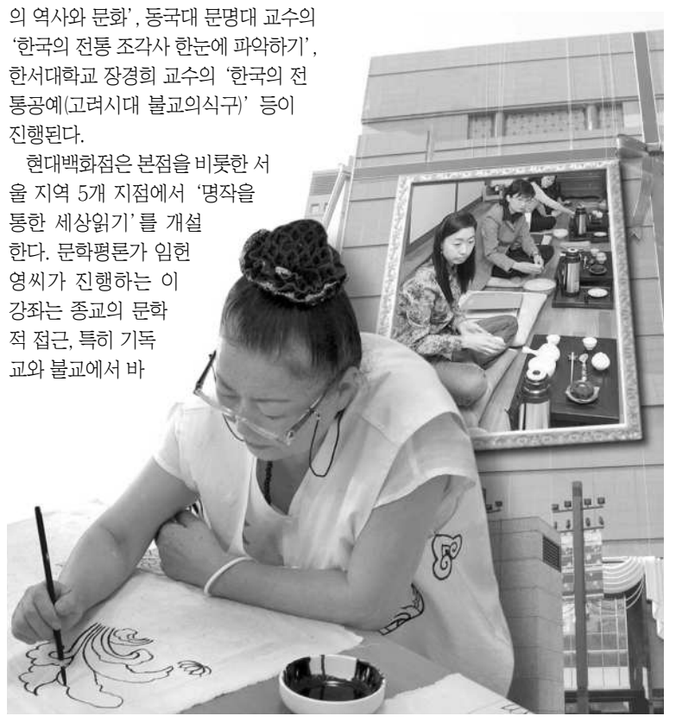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본점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강좌로는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철학적 사유'와 '영어로 읽는 <금강경>' 강좌가 있다. 이와 함께 경주대 문화재과 이강근 교수의 '한국전통 건축의 역사와 문화', 동국대 문명대 교수의 '한국의 전통 조각사 한눈에 파악하기', 한서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한국의 전통공예(고려시대 불교의식구)'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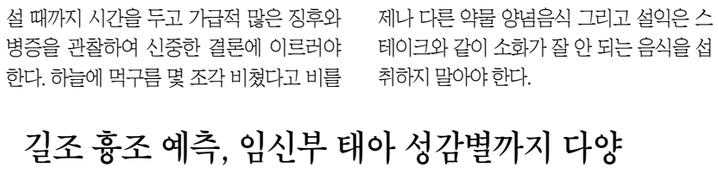
현대백화점은 본점을 비롯한 서울 지역 5개 지점에서 '명작을 통한 세상읽기'를 개설한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씨가 진행하는 이 강좌는 종교의 문학적 접근, 특히 기독교와 불교에서 바라보는 문학에 대한 명쾌한 분석 등을 해줄 계획이다.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만다라화-천위에 색칠하기' 특강도 11월 27일 오후 1시 본점에서 열린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이매방 전통춤보존회장 최창덕 선생의 '승무' 강연이 펼쳐진다. 바느질에 관심이 있다면 강남점에서 열리는 젠 로맨틱 홈패션 강좌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젠 스타일 베개와 방석도 능숙하게 만들 수 있다.

대전 지역에 사는 불자라면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가 개설한 불화그리기 강좌를 만날 수 있다. 12월 1일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불화그리기' 강좌가 열리는 타임월드는 불화로 가득 찬 불국토가 된다. 강의는 불화그리기연구소 원욱 스님이 맡는다.

강지연 기자





오랜 임상경험 통해 진단기법 완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과의 씨름은 진단부터 시작된다. 의학의 발단은 진단과 더불어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전통의학이나 나름의 고유한 진단법이 있기 마련이다. 티베트의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진단은 그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진단법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 점에 있어 티베트의학의 다양한 진단기법과 이론체계는 수 천 년에 걸쳐 잘 다듬어지고 거듭 검증되어 온 오랜 임상경험의 결정체이다.

티베트의학은 다른 여느 의학과 마찬가지로 진단방법에 망진(望診) 촉진(觸診) 그리고 문진(問診)을 두루 활용한다. 진단은 병을 인지하여 판별하는 과정으로 마치 먼발치서 한줄기 연기만을 보고 그곳에 불이 났음을 알아내는 이치와 흡사하다. 의사는 확신이 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가급적 많은 징후와 병증을 관찰하여 신중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하늘에 먹구름 몇 조각 비쳤다고 비를 예보하는 우(愚)를 의학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일상적인 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조와 흉조(吉凶)의 예측 임종과 관련한 꿈의 해몽(解夢) 그리고 임신부의 태아 성감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사는 자신의 모든 오감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읽어내어 장기의 부조화나 병증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시력이 떨어져 있으면 간이 허약하다는 신호로 입술이 바싹 마르고 짓무르면 비장(지라)에 열이 있다는 표시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신장계통에 말소리가 문제면 심장계통에 그리고 코에 문제가 있으면 폐가 좋지 않다는 징후로 금방 알아차려야 한다. 환자의 몸집과 체중 그리고 안색도 잘 살펴야 한다. 임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진료실에 막 들어서는 순간 환자의 거동과 형색만 얼핏 보아도 스트레스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생활이 순탄한지 또 얼마나 화가 쌓였는지 대충 감이 잡힌다. 그렇지만 티베트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망진(望診)은 역시 설진(舌診)과 요진(尿診)이다.

설진은 혀의 상태를 살펴 세 기본에너지의 부조화와 장기의 이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주로 혀의 질감(舌質)과 설태(舌苔)를 관찰하는데 룽(氣)병은 혀가 불그스름하고 거칠며 마른 질감을 보인다. 티빠(膽)병은 혀가 두툼하고 누런 설태가 끼며 쓴맛을 느낀다. 베껜(痰)병은 혀에 핏기가 없이 매끄럽고 희끄무레한 설태가 끼며 축축한 질감을 보인다. 혀의 색깔이 검게 변하면 좋지 않은 징조이니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요진은 다른 고대 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티베트의학만의 가장 독특한 특색의 하나이다. 오줌은 티베트의사에게 장기의 부조화와 체열을 관찰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요진을 받으려면 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전날 밤부터 금기와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자는 검진 전날 밤에 자극성이 강한 차나 커피 술 버터밀크 비타민제나 다른 약물 양념음식 그리고 설익은 스테이크와 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길조 흉조 예측, 임신부 태아 성감별까지 다양
혀와 오줌 진단은 세 기본에너지·장기 부조화 파악

육체적으로도 달리기 같은 힘든 운동이나 땅파기 같은 막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무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진 전날 밤은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오줌에 미묘한 영향을 미쳐 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육류(고기)와 같이 성질이 더운 음식을 양념한 음식과 곁들어 먹는다든가 술 같은 더운 성질의 음료를 섭취하면 티빠(膽)병이 전혀 없는데도 티빠병이 있는 오줌으로 오진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요진(尿診)을 앞둔 전날 밤은 마실것도 적당 양 마시고 식사도 쌀과 채소 같은 평범한 채식으로 때우고 편한 잠을 푹 자주어야 한다.

진단에 쓰일 오줌은 자정이 지난 당일 새벽에 받은 첫 오줌이어야 한다. 자정 전까지는 그날 먹은 음식들이 소화되고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도중에 있어 시오(試尿)로서 부적절하지만 그 후로 받는 신선한 새벽 첫 오줌은 체내의 불균형과 체열을 잘 반영하여 어떤 몸의 이상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묘법사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424번지
● 성 명 : 김준선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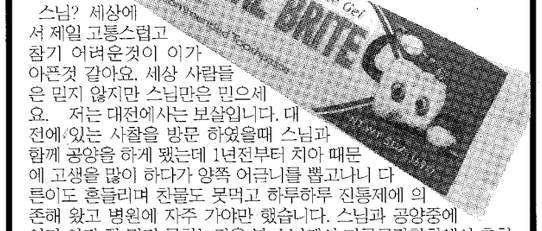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새롭게 증보하여 드디어출간!!

영혼의 존재는 무엇일까?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천체와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는 것일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줄 것이며 인생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우주론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저자 : 오형근(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 가격 : 20,000원 ● 출판사 : 도서출판 대승
● 구입문의 : 02)2264-7120

※ 신편 유식학 입문 출간

기존의 <유식학 입문>을 대폭 수정해서 새롭게 개편했으며, 기존의 책에 없던 현대인을 위한 / 수행법이 추가되었다.

대승불교연구원 / 도서출판 대승

평생 단 한번,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중국 현지에서도 친견이 불가능한 부처님 진신 지골사리 친견

그 장엄한 나툼이 우리 곁에 펼쳐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 대법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기 2549(2005)년 11월 22일(화) 오후2시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 문 의 | 총무원 사회부 02)2011-1820~5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 관 |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태고종	
불기 2549(2005)년 11월 28일(월) 오후2시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불기 2549(2005)년 12월 12일(월) 오후2시	부산벡스코 제1전시장

- 문 의 | 총무원 사회부 02)382-7361~2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 관 |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봉행위원회,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오시는 길

1.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셔틀버스 9시부터 30분 간격]
2. 지하철 5호선(마천행)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3. 시내버스 3412번, 3413번. 올림픽공원 지하철 5호선 정류장 하차.

※ 본 법회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 친견 및 유물 관람비는 주최측이 전액 부담합니다.

당나라 황실 사찰 법문사

부처님 진신 지골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 한국 특별전

기간/장소
[서 울] : 2005년 11월 11일 ~ 12월 3일(23일간)
올림픽공원 제 2체육관(펜싱경기장)
[부 산] : 2005년 12월 8일 ~ 12월 20일(13일간)
벡스코 제 1전시장

주 최 한 국 : 경향신문 / (사)부산컨벤션뷰로 / PSB부산방송 / 부산일보
중 국 : 중국 불교협회 / 중국 국가종교 사무국 / 중국 국가 문물국

주 관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

후 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 부산불교 신도회 / 문화관광부 / 외교통상부 / 한국관광공사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불교TV / 불교방송

[친견기도와 봉축연등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법회와 함께 골수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는 결식아동과 북한 어린이를 위해 쓰여집니다.

법문사 지하궁 유물 전시



• 유금대좌보살 • 유금쌍봉문은향낭 • 뢰뉴마갈문 삼족계대 • 감조석수정곽자

※ 자원 봉사자 모집 :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덕을 짓는 기회에 참여하십시요.

문의처 : [서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종로우정에쉐르빌딩 3층 TEL 02)730-7273~4 FAX 02)730-7275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236-5번지 낙원빌딩 2F TEL 051)852-9062~3 FAX 051)852-9064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
http://www.buljisari.com